

文學碩士 學位論文

阮籍詠懷詩研究

(모호성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 學科

李 成 煥

2008年 6 月

阮籍詠懷詩研究

(모호성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林東春

李成煥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6 月

李成煥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6 月

A Study on the ambiguity of RuanJi <Yong Huai poetry>

SHENG-HWA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YIM DONG CH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icholas F. Colovos, Prof. of Oceanography

.....
.....
.....
(Name and signature)

2008 6
Date

Department of Oceanography
GRDUATE SCHOOL
CHE JU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ambiguity of Ruan Ji 《Yong Huai poetry》

Ruan ji, one of the most famous poets in the time of the Three Kingdoms in China history, is also an outstanding writer and thinker. He and his friends are called "Seven sages bamboo", because he used to drink with them in the bamboo grove.

The thought of Ruan ji inherits the idea of Zhuang zi, which laid a profound foundation for his unique poetic style. He has written a lot of poems which has become a modal for the later generations of poet in China, especially in Tang and Song Dynasty. The most famous poem in his poetry is "Yong Huai" poem.

Although Ruan ji is so famous, many people think that his unique poetic style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figure out later. Hence they don't want to research into it, except me. I would like to make a study of it. Because I believe that the illusory poetic style which combine the fantasy with imagination is the fate for him.

That is why I write this paper. Why should Ruan ji adopt such an indistinct way to express his emotions? Because of the environment of the society and politics at that time, he had to use this wa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political prosecution. Thus "Yong Huai" poem written by Ruan ji is so vague and indigestible.

Besides the reason about the vagueness in the poem, I also want to make an intensive study of the artistic quality in Ruan ji's poems and the influence caused by the idealistic transition. I treat these questions by the stage of his experience. In this thesis, it can be seen that Ruan ji how to quote the ancient fairy tales to express his moods in his works.

목 차

제1장 前 言.....	7
1. 研究目的.....	9
2 研究方法과 範圍.....	11
제Ⅱ 장 家系와情感의變遷.....	12
1 家系.....	12
2 情感의 變遷	14
1) 青少年期.....	15
2) 正始期.....	19
3) 竹林期.....	25
제Ⅲ 장 內容研究.....	33
1 自白類	34
2 諷刺類.....	40
3 神仙類.....	46
4 隱居類.....	52
5 哀傷類.....	57
6 生命類	62
제Ⅳ 장 創作技法.....	68
1 抒情의 深化	69
2 比興과 象徴.....	77
3 典故의 運用.....	85
4 多視覺的 創作.....	90

제 V 장 結 論.....92

참고자료.....98



I. 前 言

阮籍은 建安七子の 한사람인 阮瑀의 아들로 政治的 社會的으로 대단히 혼란한 時期인 魏晉 交替期의 詩人이며 思想家이다. 그의 五言 古詩인 《詠懷詩》 八十二首는 連作詩의 전통을 세움으로써 뒷날 陶淵明의 <飲酒> 20수에서 李白의 <古風> 59수에 이르는 五言詩 連作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漢末에 形成된 五言詩는 魏晉南北朝를 지나는 동안 모든 詩體가 정비되면서 찬란한 唐, 宋詩의 기초를 마련 한 것이 그 歷史的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阮籍詩를 詩史的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독립적인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 점이다. 兩漢시대 400여년의 詩壇에서 詩人의 이름을 표기하고 意圖的으로 창작한 詩 작품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으며 비록 이름이 알려진 詩人이 드물게 있기는 하나 그 수가 아주 적다. 즉 秦漢시대 詩文學 창작은 독립적인 詩人이 없는 創作集團이 주도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建安시대에 들어서서 독립적인 詩人의 창작활동이 있었다.¹⁾ 阮籍의 詠懷詩는 모두 四言詩 13편, 五言詩 82편을 창작하였는데, 建安 詩人의 뒤를 이어 五言詩를 意圖的으로 창작하여 建安의 詩壇을 승계하고 쥘. 宋의 시대가 개막되게 하였다.

둘째는 玄言詩의 개척을 들 수 있는데 何晏의 五言詩에 이미 玄言詩의 기미가 보였으나 이들의 詩는 단지 우연적인 창작활동에 지나지 않았으며 阮籍에 이르러 비로소 詩는 哲學的 이념을 취지로 한 전문 창작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阮籍의 詠懷詩는 建安의 山水詩, 游宴詩 등의 뒤를 이어 玄言詩라고 하는 새로운 詩體를 완성하였다

셋째는 阮籍의 詠懷詩는 曹植의 후기 작품과 "古詩19首" 창작 법을 승계하여 五言 抒情詩의 體制를 한층 더 定立하였다는 점이다. 建安 후기의 詩 風格을 승계하고 발전시켜 함축성이 강조함으로써 唐代 近體詩의 출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상은 阮籍 詠懷詩의 歷史的 意義와 詩史的 意義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阮籍의 詠懷詩가 文學史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1) [9] 袁行霈, 《中国文学史》第二册, 高等教育出版社, 1999年p35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그에 대한 史料의 부족과 당시 時代的 思想的으로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서 起因한 작품의 難解性和 模糊性으로 인하여 접근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필자는 여기서 그의 작품을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政治的 思想的 배경이 그의 창작 활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阮籍의 생애를 성장 단계를 時代的 思想的 배경을 대입해가면서 그의 작품세계에 어떠한 情感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 政治的 변화와 새로운 사상의 출현으로 인한 다양한 요인들이 그의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둘째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작품이 지니는 模糊性和 難解性的 起因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 속에서 投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품을 내용과 주제별로 여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작품의 내용상 서로 混在된 부분이 많아 이러한 분류가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자체가 갖는 模糊性으로 인하여 비교적 그 성격이 선명한 작품들을 골라서 살펴보았다.

셋째로 그의 작품 속에서 운용된 創作技法을 통하여 그가 나타내고자하는 의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비애와 아픔을 표현해 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는 작품 속에서는 많은 典故의 인용과 象徵, 暗示의 수법으로 자신의 감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典故의 운용에 있어서 그의 표현 특색을 알아보고 이러한 模糊한 표현 방식은 外在的 요인인지 아니면 內在的 요인에서 起因하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의미의 模糊함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작자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다만 그의 성장 과정과 思想的 政治的 배경을 통하여 추측만이 가능할 것이다

1. 研究目的

阮籍의 五言詩는 古來로 여러 사람에 의해 研究 되어 왔는데 이들의 一般的인 見解는 공통적으로 難解性 내지는 模糊性을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顏延之(384-456)와

鍾嶸(467-518)을 들 수 있다. 鍾嶸은 《詩品》에서 “그의 詩에는 感動的이며 마음속 깊은 말이 많고 그 뜻이 깊고 넓어 그가 말하고자 한 意味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顏延之가 注解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記錄하고 있다.²⁾

이처럼 阮籍의 작품 중에 政治的 諷刺라는 觀點으로 접근 했을 때 당시의 어떤 人物의 偽善的인 禮敎 現實政治의 추악함을 겨냥했을 것이나 그러나 諷刺의 對象이 대단히 模糊하며 推測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阮籍의 《詠懷詩》 속에는 神仙과 不老長生の 境地를 強烈하게 追求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神仙의 存在를 否定하거나 懷疑하는 내용도 있다. 한편으로는 老莊의 思惟方式으로 一貫한 詩가 있는 반면 훌륭한 儒家를 讚揚하는 詩가 있고 또한 禮敎를 強烈히 비난하는 詩도 보인다. 이처럼 顏延之와 鍾嶸의 말처럼 阮籍 《詠懷詩》의 難解性은 작품의 내용에 나타난 痞鬱하고 悽慘한 분위기가 魏晉 交替라는 時代的 狀況에서 자신의 意圖를 선명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必然的 結果였을 것이다. 太和四年(232) 建安時期 文學을 대표하는 마지막 作家인 曹植의 죽음으로 文學思想의 建安時代는 막을 내리고 何晏, 阮籍, 嵇康, 向秀 등의 登場으로 文學思想에 있어서 새로운 段階로 進入 하게 된다. 이들은 老莊思想을 崇尚하는 文人들로 玄學理論을 主唱하며 思想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의 삶에 理想, 삶에 情緒, 審美的 價值觀, 生活方式 등은 모두 玄學思想에서 깊은 影響을 받았으며 이러한 影響은 자연히 당시의 文學 思想에 反映되었다. 近代에 들어 正始時期 文學을 研究하는 사람의 數가 建安時期 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당연 研究 資料나 이 分野에 관한 參考할 만한 資料가 많지 않은 것에서 연유 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時期 玄學思想이 哲學的 범주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筆者는 文學 創作에 반영된 새로운 현상을 研究하는 것은 그 意味가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劉勰은 이 時期 老莊思想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文人들의 詩歌 創作에 있어서 老莊思想의 影響을 깊이 받았음에 注目한다.³⁾

2) 鍾嶸 《詩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2-1 p.66

“頗多感慨之詞,厥旨淵放, 歸趣難求, 顏延年注解, 怯言其志”

3) 黃侃 《文心雕龍. 論說. 明詩篇》 北京, 中華書局 2006 pp.297-318

迄至正始,務欲守文:何晏之徒,始盛玄論.于是聘周当路与尼父爭涂矣.

乃正始明道,詩雜仙心,何晏之徒,率多浮淺.

정시시기에 이르러 글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하안과 같은 사람들이 현학을 부흥시켰다.

그리하여 노장과 공자사상의 爭論을 야기했다.

사실상 이것은 哲學的思想이 文學創作으로 引入되는 시작으로 文學創作 行爲가 功利만을 위한 인식에서 進一步하여 正始時期는 개인의 情緒를 表現하는 基礎위에 哲學的 思想이 더해진 時期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哲學的 要素가 文學的인 境地에서 말한다면 바람직한 지 않은지를 떠나서 이 시기 文學思想의 新鮮한 傾向을 研究하는 것은 중요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論文에서는 阮籍《詠懷詩》의 作品性 理解를 도모하고 작품이 품고 있는 模糊性은 어디서 기인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냈는지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詩語 自體의 意味로만 작품을 理解하기 보다는 작품 중에 溶解되어 있는 당시 政治的 背景과 思想的인 傾向의 理解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歷代 學者들의 傳統的인 解釋 方法인 歷史的 背景과 考證을 통하여 그의 삶을 靑少年期 正始期, 竹林期로 구분하여 시기별 思想的 政治的 背景이 그의 創作 活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筆者는 여기에서 偏狹된 解釋을 경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接近을 試圖 하려고 한다. 《詠懷詩》라는 題目에서도 그러하듯 政治的 場面을 포함하는 現實과 世代의 推移에 대한 作者의 內面的 指向을 가능한 證據를 통해서 당시 政治的 人物이나 事件 또한 새롭게 登場한 思想的 토대를 詩의 內容과 결부시켜 理解를 하되 작품 自體가 가지는 模糊性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詠懷詩》의 解釋은 歷代로 顏延之(384-456)와 沈約에서 시작하여 近代에 黃節의 《阮步兵 詠懷詩注》까지 대부분 이러한 傳統的인 解釋法을 따랐는데 그 결과 시의 意味가 複雜하게 뒤엉켜 意味傳達이 模糊하고 그렇지 않으면 理致에 맞지 않게 억지로 당시의 사건에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당시의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政治的 社會的 環境은 물론 思想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阮籍의 文學的 才能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작품내용에 담겨진 模糊한 表現들은 분명 작가 자신의 意圖된 계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다방면에 있어서 많은 지식을 겸비하였으며 藝術的 素質의 바탕이 가꾸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創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思想的 傾向에 대해서는 禮教를 信奉하느냐 아니면 道家에 傾倒되느냐 하는 兩家的 態度를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에 대한 見解도 엇갈리는데 이러한 問題는 阮籍《詠懷詩》 특

정인 의미 전달에 있어서 模糊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작품을 理解하는데 多樣性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阮籍의 삶에 대한 方式을 그의 傳統的 隱逸에 대한 態度 및 反禮敎적인 奇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그 작품의 模糊性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阮籍의 隱逸思想은 世俗을 떠난 傳統的 隱者의 삶으로의 志向인지 또한 그가 追求하는 隱逸의 方式은 또 무엇인지 그의 反禮敎적인 奇行은 단순한 現實의 抵抗인지 아니면 反社會的인 行爲를 넘어 나름의 動機와 意味를 지닌 行動인지가 問題가 된다. 이러한 問題는 阮籍의 작품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阮籍에 관한 傳奇的 資料와 당시 政治的 思想的 背景이 뒷받침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論理的 根據를 確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阮籍의 時代的 背景과 外面的 經歷 政治的 性向 思想的 傾向등을 傳記的 資料와 작품을 연계시켜 再構成함으로써 작품의 模糊性이 어디에서 起因됐는지를 研究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研究 方法 및 研究 範圍

《詠懷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外在的 接近의 必要性이 제기된다. 이러한 접근은 阮籍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年譜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 있다. 작품의 年譜가 없을 경우 일정한 段階的 變貌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며 自意的인 獨斷으로 흐르는 禹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年譜는 阮籍의 삶을 보여주는 傳記的 研究를 통하여 自意的 獨斷을 벗어나 유력한 根據를 지닌 研究方向을 設定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阮籍의 阮籍의 生平을 각각 그의 成長段階別로 그의 思想과 情感의 變化 과정을 1) 儒家집안의 士族 2) 靑少年始期 3) 正始始期 4) 竹林時期로 구분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4) 이러한 구분법을 통하여 당시의 政治的 思想的 變化가 그의 成長 過程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阮籍의 작품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創作技法을 1) 抒情의 深化, 2) 比興과 象徴, 3) 典故의 運用, 4) 多視覺的 創作, 네 분류로 나누어 알

4)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出版社.1997년. p.2

아보고 그의 《詠懷詩》八十二首를 그 內容과 主題를 (1) 自白類, (2) 諷刺類, (3) 神仙類, (4) 隱居類, (5) 哀喪類, (6) 生命類, 여섯 부분으로 分類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작품마다 內容과 主題가 서로 混在한 것들이 많고 鮮명한 구분이 가지 않은 작품도 있지만 그나마 이러한 區分法은 體系的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張志岳 선생의 구분법을 따랐다.⁵⁾ 이러한 분류법은 傳統的 註釋家들의 諷刺的 關心을 克服하며 작품이 지니는 言語的 構造와 그 內容과 主題別로 구분하여 模糊性이 起因한 要因과 表現方式에 대한 理解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제Ⅱ장 家系와 情感的 變遷

1. 家系

阮籍, 字는 嗣宗. 漢末 建安 十五年(210)에 태어났으며 魏景元 四年(263)에 卒하였다. 陳留尉氏 (今河南開封市東南人)사람으로 아버지는 後漢末의 名士이자 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阮瑀이다. 阮籍은 魏晉時期 著名한 玄學 名士로 嵇康과 더불어 “竹林七賢”의 精神的 領袖이다. 그는 魏晉時期 官職으로는 步兵校尉를 지낸 것이 인연이 되어 후에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阮步兵”이라 부른 이유도 이러한 관직의 이름에서 연유된 듯하다. 阮籍은 魏晉時期 著名한 文學家이며 玄學 名士로 嵇康과 더불어 “竹林七賢”의 精神的 領袖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阮籍의 五言 《詠懷詩》는 내면세계를 제재로 한 連作詩이며 훗날 도연명이나 이백의 연작시 창작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詩文은 근대에 들어서서 魯迅의 추앙을 받았다.⁶⁾ 그는 중국 역사상 유명한 思想家이며 文學家로서 그의 저서로는 《阮步兵集》이 세상에 전해 내려고 있다.

5) 張志岳, 《略論阮籍及其〈詠懷詩〉》, 北京, 中國語文學社, 1969 p.66-73

6) 魯迅, 《魏晉風度及文章與藥及酒之關係》, 人民文學出版社, 1976 p.92

1) 儒家집안의 士族

兩漢시대에 흥기한 儒家 사상은 魏晉 時期를 새로운 思想인 老莊思想의 대두와 禮敎에 대하여 屢證을 느끼기 시작 하면서 儒家思想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비록 위진 시기 儒家사상이 퇴조의 길을 걷게 되나 어렸을 적 가정환경이 전통적 儒家 문화 밑에서 성장한 그는 儒家의 전통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學者들이 말하듯이 당시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으로 特權을 누리는 階層은 이러한 儒家 사상을 받은 士人이였을 것이다. 士族들의 文化方面的 特權은 漢代에는 儒家를 崇尚했던 時期라 士人들은 대부분 經學으로 立身出世的 길을 다졌고 이로 인해 經學이 매우 重視된 時期로 그들은 講演을 듣고 그 子孫들도 經書를 배움으로써 대대로 儒家의 傳統文化를 踏襲하게 된다. 그리하여 士族出身 대부분 높은 文化的 素養을 갖추게 되었다. 阮籍의 先祖에 관한 記錄이나 行蹟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의 父親 阮瑀를 제외하곤 史蹟에 기록된 바는 없다. 그의 부친 阮瑀는 曹魏 집단에 속한 인물이며 建安七子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저명한 詩人이며 散文과 音樂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晉書》本傳의 기록에 의하면 阮籍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渾이며 그는 晉 太康時期 太子를 보필하는 官職을 지냈으며 또한 司馬昭가 阮籍에게 請婚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한명의 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史籍에 기록된 바가 없어 그녀에 대한 상세한 行蹟은 알 길이 없다. 史料에 의하면 阮咸에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는 阮籍의 조카로 始平太守를 역임했으며 그에 父親인 阮熙는 武都太守를 역임하고 阮咸에 아들인 阮瞻은 晉 永嘉年間에 太子庶人을 지냈다. 阮瞻의 동생인 阮孚는 侍郎이라는 관직에 있다가 후에 吏部尙書 관직을 지냈다⁷⁾. 阮籍은 어렸을 적 阮議의 보살핌으로 幼年 時節을 지내서 아마도 그는 阮議 一家의 儒家의 家風속에서의 思想的 影響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阮籍의 조상들 중에 특별히 높은 벼슬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조상 대대로 벼슬을 지낸 名聞家門은 漢代에 있어서 적었던 반면 일반 士族家門은 오히려 많았다. "文帝(司馬昭)가 아들 武帝(司馬炎)를 위해 阮籍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請婚하자 阮籍은 六十日동안 술에 취해있으니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⁸⁾ 司馬氏는 당시 高級貴族들의 血統的

7)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出版社.1997년. p.9

8) 《晉書.阮籍傳》의 기록에 의하면 "文帝欲爲武帝求婚而籍, 籍醉60日,不得于止."

社會的 政治的 地位 區別을 매우重視 한 점으로 봐서⁹⁾ 阮籍의 조상은 틀림없이 이런 일반 士族家門의 士族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士族은 家門이 文人으로 儒家를 信奉하였으며 이들은 가장 高級貴族에 속하며 만약 先祖 중에 武官이나 다른 일에 종사한 祖上이 있다면 순수한 士族으로 보지 않았다.¹⁰⁾ 東漢末 士族制度가 形成된 이래로 士族은 政治上 地位의 高下와 더불어 더욱더 家門을 重視했다. 武帝는 東漢의 유명한 儒學者 王肅의 장녀 王氏를 妻로 삼았으며 司馬師는 東漢에 儒學者 蔡邕의 외손녀 梁氏를 妻로 맞이한 것을 봐도 이러한 婚姻을 통하여 家門에 地位를 격상시키려는 意圖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阮籍의 出身은 士族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政治的인 地位는 士族을 제외하고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阮籍 본인 또한 당시 權力者들에게 重視되는 人物이었으며 여러 차례의 官職에 권유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門閥貴族들이 得勢한 時代에서는 단순히 阮籍의 才能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닐 것이며 그의 出身成分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¹¹⁾. 阮籍의 아버지 阮瑀는 曹魏의 政權時期에 重責을 맡은 것은 阮氏 집안과 曹氏가 政治上 君臣關係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을 綜合해 볼 때 阮籍의 思想과 生活態度는 曹氏와 司馬氏간의 權力다툼 속에서 그가 보여준 政治的 態度에 直間接的으로 作用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情感的 變遷

阮籍의 一生을 靑少年期, 正始期, 竹林期. 세 단계로 나누어 時期別 情感的 變化를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時期別 구분은 阮籍의 成長過程에서 政治的, 思想的 變化가 극심했던 時期인 까닭이다. 그의 政治的 理想과 포부는 힘의 균형이 무너진 政治的 상황과 새로 移入된 老莊思想의 출현과 맞물린 이러한 外的인 變化가 阮籍의 창작활동에도 직 間接적인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阮籍이 살았던 魏晉 時期는 비판적 儒學 내지

9)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7, pp.12-16

10) 蔡美彪, 《中國通史簡編》, 第二冊 第四章, 人民出版社出版, 1995年, p367

11) 《世說新語任誕》, 《文士傳》: “籍放誕有傲世情不樂 任期所欲, 不迫以職事.”

儒,, 道를 조화하려는 분위기가 흥성 하였으며¹²⁾ 때로는 儒와 道를 넘나들며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기도 했다.¹³⁾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阮籍의 一生을 時代的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그는 작품 속에서 어떠한 뚜렷한 정감의 변화가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阮籍 一生의 思想的 變遷 또한 時期別 구분에 따라 靑少年期에는 崇儒期, 正始期에는 儒에서 老莊으로 기우는 시기, 竹林期에는 老莊思想을 爲主로 삼고 儒家와 對立하는 시기로 파악할 수 있으며¹⁴⁾ 또한 儒.道의 조화기, 道로써 儒를 융합하는 시기, 道家的 자연무위를 신봉하는 세 시기로 정리할 수도 있다.¹⁵⁾ 이러한 思想的 변화는 時代의 변화상과 軌를 같이 한다. 이러한 阮籍의 思想的 변화가 철학적 의문에 의한 변화이기보다는 당시의 정치, 思想的 변화에 의한 被動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의 思想的 변화는 時代의 반영이자 방황하는 지식인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晩年에 자신의 過去를 회상하며 지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區分으로 작품을 추적하여 살펴보면 그의 成長過程과 時代的 변화를 통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1) 靑少年 始期

阮籍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父親 阮瑀는 病으로 建安 十七年 (212)당시 阮籍의 나이 겨우 3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曹丕는 그 옛 친구의 寡婦자식을 同情하여 그를 위해 賦를 지었을 만큼 曹丕와 그의 父親인 阮瑀와의 交分이 두터웠다.¹⁶⁾ 어려서 父親을 여위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阮籍의 어린마음은 외로움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阮籍의 《詠懷詩》에 나타나는 孤獨하고 突出된 性格 一面은 이러한 成長 環境과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다.

阮籍의 文學的, 藝術的 才能은 어려서부터 나타내어 詩文에 능했으며 음악에도 관심이

12) 張立文, 《中國學術通史》, 《魏晉南北朝卷》, 人民出版社, 2004. pp.86-87.

13) 唐翼明, 《魏晉文學與玄學》, 長江文藝出版社, 2004. pp.175-176.

14)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7. pp.48-49.

15) 田文棠, 《阮籍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5. p.86.

16) 審訂. 馬志偉, 《全三國文. 券4》《寡婦賦》賦序 商務印書館 1999

“陳留阮元 瑜與余有舊, 薄命早亡. 每感存其遺孤, 未嘗不倉然傷心. 故作斯 賦, 以叙其妻子悲苦之情.”

많은 듯하다. 종일토록 거문고와 피리를 부는 것은 阮籍이 어린 시절 만이 아니라 사실 그가 평생토록 즐겨하던 취미였으며 이것은 아마 父親의 음악적 재질과 문학적 재능을 이어 받은 듯 하며 또한 그가 홀로 조용히 음악을 즐기는 걸 보면 內省的인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阮籍이 어릴 적부터 詩文에 능했다는 것은 당연히 天賦的인 소질이 있었음을 말할 뿐 아니라 家庭 環境에서 깊은 文化的 影響을 받은 것과 無關하지는 않다. 이러한 소질은 阮籍의 어릴 적부터 이러한 文化的 環境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비록 어려서 父親을 잃은 불행을 겪었지만 이시기는 그가 雄大한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으며 당연히 이러한 意志는 당시 時代的 要求에 歸結되는 結果를 낳았다. 東漢末 黃巾賊의 亂을 계기로 백성들은 流民으로 顛落하고 匈奴와의 頻繁한 戰爭으로 人口의 大量減少와 統治者의 統治不在로 말미암아 社會는 政治的 經濟的으로 심각한 狀況에 이르는 시기이다. 阮籍의 出生 時期에 이르러 이러한 局面은 점차 轉機를 마련하는데 地域的으로 분열과 혼란한 상태에서 점차 安定된 統一 局面을 맞게 된다. 오랜 軍閥統治의 혼란에서 벗어나 曹操는 넓은 北方에 軍閥들을 制壓하고 北部의 廣大한 地域을 平定하기에 이른다. 그 후 經濟와 農業 生産性이 점차 回復됨에 따라 分裂에서 統一에 曙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社會的 분위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未來에 대한 抱負와 希望을 갖게 하였다. 이시기 이러한 社會的 背景과 분위기 속에서 成長한 青年 阮籍은 肯定的 思考와 進取的 精神으로 自信心에 찬 人生態度를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阮籍은 후에 《詠懷詩》十五에서 자신은 어렸을 적에는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儒家에 詩書를 배우기를 심히 좋아 했고 富貴榮華를 구하지 않고 高尚한 人品과 安貧樂道 하는 옛 先人들을 삶을 자기의 표본으로 삼았다고 回想하기도 했다. 다음 작품은 그의 어린 시절을 回想하는 斷面을 볼 수 있다

《詠懷詩十五》

昔年十四五 옛날 열네 다섯살 적에는
志尙好書詩 書, 詩에 뜻을 두었다.

17) 李昉等14人編輯, 《太平御覽卷602》中華書局 1960

“ 阮籍幼有奇才異質,八歲能屬文.性恬靜,兀然彈琴長嘯,以此終日”

被褐懷珠玉 평복을 입었으나 理想은 높아
顏閔相與期 顏淵과 閔子騫를 기약했지.

그는 어릴 적 儒家의 영향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顏”과 “閔”은 顏回와 閔損을 가리키며 모두 孔子의 學生들이며 儒家를 崇尙하는 賢人들로 靑少年期 그의 自我形成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詩는 阮籍의 靑少年期 儒家의 思想이 짙게 베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열네댓살 시기에 儒家의 經典을 공부함으로써 그의 人格形成에 儒家 思想의 영향을 매우 깊은 받았으리란 것을 쉽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阮籍은 어린 시절 詩文이외에도 그는 武技쪽에도 관심이 있는듯하다. 《詠懷詩》六十一 에서는 젊은 날을 되돌아보며 어릴 적 武人으로서 그의 氣概와 강한 濟世의 意志를 엿볼 수 있다.

少年學擊刺 소년 시절에 무술을 배웠는데
妙伎過曲城 뛰어난 실력은 曲城候를 능가 했네
英風截雲霓 빼어난 자태는 구름을 가르고
超世發奇聲 한 세대를 넘어 이름 알려지네
揮劍臨沙漠 사막에서 검을 휘두르고
飲馬九野坳 세상 끝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
旗幟何翩翩 깃발은 바람에 훑날리고
但聞金鼓鳴 오로지 북소리와 징소리 뿐.
軍旅令人悲 전쟁은 사람을 슬프게 하니
烈烈有哀情 오직 비통한 마음 뿐.
念我平常時 나의 젊은 날을 생각하니
悔恨從此生 회한은 여기에서 사무치네.

소년시절을 회상하며 阮籍은 從軍하여 큰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웅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정세가 변하여 曹氏와 司馬氏간의 격렬한 권력다툼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어린 시절 무공을 익혀 큰 공을 세우고자하는 일들을 깊

이 후회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확실히 그는 소년기에는 커다란 포부를 품고 濟世의 意志가 충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時期 阮籍은 士族의 子弟들과 서로 어울리며 歌舞와 浪費하는 버릇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感慨한 심정으로 자신이 靑少年期에 노래와 거문고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자신을 回想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平生少年時 지난 젊었을 적을 되돌아보니.
輕薄好弦歌 경박하게도 노래와 음악을 좋아했네.
西遊咸陽中 서쪽 함양에서 노닐며
趙李相經過 자주 趙, 李와 같은 명기와 어울렸네.

앞서 引用한 《魏氏春秋》 말처럼 “阮籍은 거문고를 타고 피리를 불며 하루를 보냈으며 동산을 거닐며 종일토록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¹⁸⁾ 라고 기록 된 것으로 보아 史料에 기록된 內容과 詩의 內容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물론 《魏氏春秋》와 《七賢傳》의 記述은 대개는 阮籍의 晩年の 生活相을 反映한 것이지만 阮籍이 청년시절에 거문고와 피리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놀음을 즐겼으리란 것은 阮籍의 청년시절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이를 짐작하게 한다. 당시 宗室貴族이나 名門子弟들이 어울려 歌舞를 즐기고 노는 것이 社會的으로 流行 하였으며 晏, 鄧颺, 李勝 등이 이러한 部類에 속한 人物들로 明帝때 이르러서는 政治的 手段으로 이를 制裁하기에 이르렀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阮籍의 그러한 行蹟이 何晏 등에게 直接的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名門子弟들 대부분이 이러한 生活로 消日한 時代에서 阮籍 또한 당시 이러한 분위기에 쉽게 유혹을 받았으리란 상상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嵇康도 경우는 阮籍과 비슷하여 어린나이에 父親을 여위고 이로 인해 放縱한 性格으로 변한 것은 家庭環境 면에서 본다면 阮籍의 이러한 放縱은 아마 嵇康과 비슷한 입장 이었을 것이다. 阮籍의 이러한 放縱한 生活態度的 原因은 방금 말한 것처럼 家庭環境의 영향으로 인한 가능성을 排除할 수는 없으나 앞서 말한 그가 스

18) 《太平御覽》 卷六一一 “或游行丘陵終日不反” “동산을 거닐며 종일토록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19) 《三國志·魏志·曹爽傳》, 《魏略》: “在洛陽互相連結揚扇鼓吹孵化頗成風氣以至于明帝不得不以政治手段抑制之.”

스로도 그러한 나쁜 習性이 있다고 하는걸 보면 그의 청년기 放縱한 生活態度는 疑問의 餘地가 없어 보인다.

阮籍의 青年期の 이러한 행동은 晩年の 행동 그것과는 意味가 다르다. 前者는 순수한 일종에 習性이라면 後者는 政治的 意味가 內在된 行動으로 現實 逃避 내지는 마음에 품었던 現實에 대한 不滿의 표시로 그 意味가 다르다 할 것이다. 阮籍은 이 時期 본격적으로 社會活動을 하게 되는데 史料의 記錄에 의하면 阮籍은 열여섯 살 되던 해 그의 숙부 阮熙를 따라 東郡兗州刺史 王咏을 만났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²⁰⁾ 이러한 일들은 단지 두 가지 측면에서 解釋할 수 있는데 하나는 阮籍이 思慮깊은 面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寡默한 성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확실히 靑少年期の 阮籍이 추구하는 理想과 行動은 이처럼 二重性 特徵을 드러낸다. 청년기 阮籍은 儒家를 崇尚하고 儒家思想의 理想에 따라 立身하고자 하는 信念이 강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外的인 것을 하찮게 여기며 마음대로 행동하고 現勢에 寄託하며 살아가는 態度를 보인다. 그의 이러한 행위를 總體的인 면에서 본다면 이는 阮籍 人生 初期의 精神의 面貌와 生活態度의 주요 一面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다른 한 면은 주어진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성장 발전하여 생겨난 突出 行爲라 여겨진다.

2) 正始始期

齊王 曹芳(240) 卽位하여 年號를 正始로 바꾸었다. 正始 元年에서 嘉平 元年까지(249) 정확히 十年 阮籍의 나이 三十에서 四十歲 되는 時期이다. 이 十年 중에 曹氏 一家와 司馬氏 一家는 점차 協力 關係에서 分裂 樣相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政治的 局面도 安定에서 複雜한 分裂양 상을 띠면서 政治的 社會的으로 매우 不安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時代的 變化에 따라 阮籍의 政治的 態度와 삶의 態度에 있어서 極烈하고 苦痛스런 轉換을 맞게 된다. 이 시기는 曹氏와 司馬氏간의 政治的 힘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서 극도의 政治的인 불안을 가져온다. 청년기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진취적인 濟世의 포부는 이 시기에 들어서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도의 신

20) 《晉書·阮籍傳》：“終日不開口” 王咏 “自以爲不能測”

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그의 조심스런 태도와 심적 변화는 曹가 무너지고 晉의 初
 入시기에서 많은 曹氏 사람들은 司馬氏의 壓政으로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을 당시의 政治
 的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阮籍 또한 그의 父親과 주변 친척들이 曹氏 정권
 에서 중임을 맡았고 신임을 받았던 터라 그는 내심 이러한 내력이 발미가 되어 목숨을
 잃지 않을까 늘 불안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그때의 심정을 회상하면서 그는 다
 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永懷詩 四十二》

王業須良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어진 신하에 보좌가 필요하며
 建功俊英雄 큰 공을 세우는 데는 영웅이 필요하네.
 元凱康哉美²¹⁾ 옛 臣下는 얼마나 위대 했는가
 多士頌聲降 많은 人才 모이니 온 세상이 다 칭송하네.
 陰陽有桀錯 陰陽도 어느 때는 틀릴 수도 있고
 日月不常融 해와 달도 영원히 빛을 바랄 수는 없는 법.
 天時有否泰 宇宙에 運行도 通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으니
 人事多盈沖 인간사 일들이야 확실히 정해진바 없구나.
 園綺遁南岳 園과綺도 南山으로 들어가 은둔하고
 伯陽隱西戎 老子도 서쪽으로 몸을 감추었네.
 保身念道眞 生命을 보전하고 安貧樂道하면 그만인 것을 .
 寵耀焉足崇 富貴榮華가 어찌 崇尚할 만한 것인가.
 人誰不善始 사람이야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선하거늘
 鮮能克厥終 선한 죽음을 맞는 자는 그 몇 사람이나 되리.
 休載上世士 옛 선인들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萬哉垂淸風 그들에 節概는 淸風에 남아 길이길이 이어지네.

阮籍은 본래 王業에 대해 커다란 熱情的 抱負를 품고 있었으며 功을 세워 出世하여 後
 世에 이름을 남길 기대로 높은 열정을 보였던 時期이다. 그는 이전에도 朝廷의 人才들과

21) 杜預 222~284 중국 진(晉)나라 학자·정치가. 자는 원개(元凱) 경조(京兆) 두릉(杜陵)의 명가(名家)에서 태어나, 문제(文帝) 사마소(司馬昭)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부조(父祖)의 봉작을 받은 인물.

함께 힘을 모아 天下統一의 偉業을 달성코자 했으나 政治的 形勢가 자신의 期待와는 正反對로 흘러갔으며 魏氏 朝政은 잠시 平定을 되찾는 듯 보였으나 形勢가 변하여 政局은 날로 惡化一路를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政治現實을 자신의 運命으로 認識한 그는 靑少年 期 품었던 웅대한 의지는 期待에서 失望으로 뜻을 세워 出世하고자 하는 慾望이 隱遁과 孤獨함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이다. 元凱처럼 功德을 세워 立身 하려는 意志에서 超自然主義를 지향하는 園綺와 伯陽같은 삶으로 전도되는 時期이다. 이 時期 阮籍은 思想的으로 老莊의 道家哲學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는 이전에 隱士들처럼 富貴榮華를 버리고 “萬哉垂清風”(그들에 節概는 清風에 남아 길이길이 이어지네.)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이 작품을 통해 본다면 아마 이러한 흐름은 오랫동안 거쳐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魏明帝(239)가 죽고 大將軍 曹爽과 太衛 司馬懿가 이제 겨우 아홉 살인 曹芳을 保衛하며 國政을 이끌어 나갈 時期인 正始期 “司馬懿는 社會的으로 德望과 名聲이 높았으며 能力과 人品을 고루 갖추고 있는 人物이어서 曹爽은 겉으로는 그를 정중히 대하였다.”²²⁾ 曹氏와 司馬氏 政治 勢力은 相對的으로 平衡 狀態를 이루며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政治 狀況이 比較的 安定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에 政局은 심각한 危機 狀況이 潛在되어 있었다. 曹爽은 父母의 배경과 皇室과의 敦篤한 關係를 이유로 政治보다는 놀이와 歌舞를 즐기기에 바빴으며 또한 軍에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만한 人才도 못되었다. 그는 宰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奢侈와 放蕩한 生活로 일관 하면서 한편으로는 勢力을 結集하고 朋黨을 만들어 朝廷을 紊亂케 하였다. 대략 正始初에서 正始 三年 期間 동안 그는 軍權을 親政 體系로 바꾸려 했다. 이와 같은 曹爽의 행동이 司馬懿에게는 당연히 不滿이 있었다. 이러한 曹爽에 專橫은 앞으로 다가올 司馬氏 와 曹氏間에 公開的인 勢力다툼의 씨앗의 싹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曹爽의 이러한 행동은 阮籍이 바라는 理想的인 棟樑은 아니었다. 그가 바라는 人物像은 또한 元凱와 같은 人物도 아닐 것이다. 당시 阮籍은 魏 皇室에 대해 적잖은 실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政局이 好轉되리란 믿음은 결코 잃어버리지는 않아서 아마 일중에 觀望이나 기다리는 態度를 취했으리라 본다. 이러한 推測은 이러한 記錄에서도 알 수 있다. 正始 三年 당시 太衛를 지냈던 將濟는 阮籍의 才能과 큰

22) 《三國志·魏志·曹爽傳》：“以宣王年德并高，恒父事之，不敢專行”
선왕은 덕망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뜻을 품고 있는 人物이라는 것을 알고 阮籍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 소식을 들은 阮籍은 편지를 써서 친히 洛陽城 밖의 都亭에 가서 下級官吏를 통해 將濟에게 전했다. 그는 農事나 지으며 稅나 받치면서 살겠으며 자신의 건강과 力量이 부족하여 부름에 응할 수 없음을 정중히 사죄하는 內容이었다. 將濟는 원래 阮籍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阮籍이 이미 都亭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는 阮籍이 자신의 부름을 받고 이미 와있으면서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단지 체면상 하는 말로 잘못 알고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阮籍을 모셔오라 했다. 그러나 阮籍은 이미 떠난 후였다. 將濟는 대노하여 그 禍가 王默에게 까지 미치자 王默은 목숨을 두려워한 나머지 阮籍에게 편지를 써 사정을 했다. 阮籍은 더 理想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억지로 官職을 맡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을 이유로 辭職하고 돌아와 버렸다. 이것이 阮籍이 처음 官職에 오른 것으로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外的인 壓力에 의한 不得已한 수락의 성질이 강하게 풍긴다. 阮籍의 이러한 將濟의 부름에 拒絕한 원인을 놓고 學者마다 그 見解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將濟가 司馬氏의 사람이어서 阮籍은 당시 內心 司馬氏 集團에 불만을 품고 있는 터라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견해는 司馬氏 와 曹氏의 權力다툼 속에서 자신의 生命을 보존하기 위해 政治的인 일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意圖的으로 回避的인 態度를 취했다는 見解이다. 사실 위에서 말한 正始 前期 政局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暗鬪는 아직 表面化되지 않은 段階로 政治的 權力다툼이 露骨化 되지 않은 상태에서 將濟가 公開的으로 司馬氏 集團 편으로 섰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한 평범한 士人으로서 당시 阮籍은 政治的인 立地가 없고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暗鬪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다지 민감하게 사태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비교적 合理的인 解釋은 阮籍의 寡默하고 內省的인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 이외에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曹爽 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政事에 대한 回避나 觀望하는 쪽으로 傾倒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결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意志를 저 버려서가 아니라 그는 마음속으로 政治的으로 여전히 積極的으로 참여하는 態度를 견지 하고 있다.²³⁾ 阮籍이 將濟의 부름을

23)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 出版社 1997제2장 제3장 요약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아직 出仕할 時期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는 가만히 시대의 變化를 지켜보거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政局은 날로 昏迷를 거듭하고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暗鬪는 점차 表面化 되어 날로 惡化一路를 걷고 있었으며 그의 政治的 抱負는 점차 그 빛을 잃어가 政治에 대한 그의 情熱과 意志는 冷淡과 絶望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暗鬪가 表面化되기 시작된 時期는 대략 正始 五年 以後이다. 司馬懿는 曹魏政權 後半期 가장 높은 戰略家로 그는 曹操가 執政하는 時期에 이미 화려하게 政治舞臺로 登壇했으며 曹氏 三父子가 政權을 이어오는 동안 두 번이나 曹丕와 曹叡의 垂簾聽政의 권유를 받았다. 司馬懿에 長期的인 軍部掌握과 出征에서 연이은 大勝을 거듭으로써 그의 軍部에서의 影響力은 날로 커져만 갔다. 그와 曹氏 집단의 代表人物格인 曹爽과 비교한다면 皇室과의 血緣關係 면에서 劣勢 이외는 資質이나 名望, 經驗, 才能 면에서는 曹爽은 그에 상대가 못되었다. 더욱이 曹爽이 執政한 후 잦은 軍事的 失敗로 그에 無能이 드러남에 따라 暗暗裡에 司馬懿의 政治的 野心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正始 五年(244) 曹爽은 司馬懿에 권유를 無視하고 楚나라 征伐에 나섰다가 慘憺하게 敗하는데 曹爽에 이러한 出兵의 목적은 자신의 威勢를 높이기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軍事的 으로 弱勢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더욱더 司馬懿에 不滿과 政治的 野心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正始 八年(247) 司馬懿는 健康上의 이유로 曹爽과의 對面을 피하는데 이것은 바로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暗鬪가 表面的으로 드러내는 시작이었다. 正始 十年 曹爽이 어린 皇帝 曹芳을 따라 洛陽城 밖의 高坪陵 明帝의 墓에 省墓를 하러가기 위해 曹氏 일행이 모두 城을 빠져 나간 틈을 이용해 司馬懿는 신속히 軍士를 움직여 주요 거점을 점령해 버린다. 曹爽은 이러한 급작스런 사태를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²⁴⁾ 이로써 司馬氏 집단은 權力 다툼에서 主導權을 쥐게 된다. 이러한 政治的 暗鬪가 진행되는 동안 政局은 날로 昏迷를 거듭하게 되는데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는 士人들로 하여금 심한 政治的 압박과 心理的 不安要素로 작

24) 《晋書》 卷1 宣帝紀: 誅曹爽之際, 支黨皆夷及三族, 男女無少長, 姑, 妹, 女子之適人者皆殺之.

曹爽을 비롯한 何晏을 비롯한 曹爽의 추종자와 그들의 三族 모두가 滅族되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시집 간 女형제의 자녀까지 모두 죽였다.

용하면서 자신들의 生死存亡을 점치기 어려운 狀況으로치닫고 있었다. 그 당시 司馬氏는 政敵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혐의가 있거나 思想的 견해만 달리해도 모두 죽여 버렸다. 政治的 권력다툼의 面前에서 政治的 狀況만 바라볼 뿐 阮籍 또한 깊은 憂慮와 不安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隱逸로 政治 參與를 피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司馬氏의 要請을 정면으로 拒絶할 수도 없었다. 大多數에 士人처럼 阮籍도 正始 後期 잠시 官職 “尙書郎”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나 이도 병을 핑계로 그만두었다²⁵⁾

여러 史料를 근거로 볼 때 阮籍이 尙書郎을 역임할 때는 正始 八年으로 대략 史料에 대한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 阮籍이 尙書郎을 역임하면서 있었던 일련에 사건들은 기록되진 바 없어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阮籍이 건강상을 이유로 스스로 관직을 그만둔 중요한 이유는 당시 政治形勢가 험악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⁶⁾ 曹爽이 阮籍을 부른 이유는 자기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意圖가 깔려있다. 그래서 阮籍은 스스로가 부족하고 學問도 그리 높지 못하며 才能도 뛰어나지 못한다고 자기를 卑下하면서 부름에 공손히 거절하지만 아마 曹爽은 將濟 만큼 阮籍의 대한 熱意가 없었으며 阮籍의 拒絶 理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하다. 一年後 司馬懿에게 죽음을 당하고 난 직후 당시 몇몇 사람은 阮籍의 이러한 遠見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른다.²⁷⁾ 사실 이때는 曹氏와 司馬氏의 權力 暗鬪가 이미 表面化 되가는 추세여서 阮籍 뿐 아니라 다른 士人들도 다가올 政治的 波長을 이미 豫見하고 있었을 것이다.

阮籍이 將濟와 曹爽의 부름에 거절한 이유는 사실 그 意味가 각각 다르다. 前者는 阮籍이 政治 現實에 대해 觀望的 態度로 일관된 것은 이 時期는 아직 자신의 理想에 대단한 希望을 품었던 시대요, 後者는 阮籍이 당시 現實政治에 대해 隱逸的 態度를 보인 것은 政治的 挫折과 失望으로 인한 態度 變化이다. 잔혹한 政治 現實 앞에 阮籍은 어쩔 수 없이 社會나 政治 關與와 같은 積極的인 態度를 포기하고 그의 말없고 寡默한 성격이 現實정

25) 《晉書本傳》：“復爲尙書郎，少時，又以病免。”：尙書郎”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나 이도 병을 핑계로 그만두었다

26) 《晉書，阮籍傳》：“及曹爽輔政，召阮籍爲參軍，籍因以疾辭，屏於田里：조상은阮籍을불러참군의관직을주려했으나 阮籍 은 건강을 이유로 농사나 지으며 살고자 했다.

27) 《晉書，阮籍傳》卷49：及曹爽輔政，召爲參軍。籍因以疾辭，屏於田里。歲餘而爽誅，時人服其遠識.

치에 대한 絶望感으로 말미암아 消極的인 태도로 現實을 超越하며 세상을 逍遙하는 態度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 이다.²⁸⁾ 그의 이러한 態度 變化는 正始 時期 阮籍의 政治에 대한 태도변화에서 그 원인과 過程의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阮籍은 초기에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관망적 태도를 견지 하다가 후기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을 隱逸이나 神仙世界的 삶을 동경하며 현실세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竹林時期

正始 以後 學者들은 일반적으로 竹林七賢의 學術 思想 活動 기간을 일컬어 竹林時期라 말한다. 소위 “竹林”은 반드시 하나의 엄격한 時間 概念이나 歷史 概念이 아니며 그 시간 상에 있어서도 上限基準과 下限基準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竹林時期란 用語는 주로 歷史的이나 傳統的으로 부르는 概念으로 이를 빌어 阮籍의 晚年生活을 이 期間 歷史를 指標로 삼기 위함이다. 위로는 嘉平 元年(249)부터 아래로는 景帝 四年 (263) 바로 阮籍이 세상을 떠난 해로 정리할 수 있다.²⁹⁾ 이 時期는 阮籍의 一生 中 에서 가장 중요한 學術 思想을 꽃피운 時期이며 동시에 그의 가장 중요한 政治活動 時期시기라고 볼 수 있다.

竹林七賢이나 竹林之游는 당시 政治 階級 上層部의 政治 鬭爭의 產物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正始 十年 司馬氏의 政變으로 曹氏집단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事實上 政局을 主導 하게 되는데 司馬氏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政治 軍事的 優勢를 이용 反對 勢力이나 不滿 勢力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除去하였다. 景元 六年 司馬 昭가 죽고 그의 아들 司馬炎이 皇帝에 오르니 正式으로 晉나라가 建立되었다. 司馬氏의 이러한 漸進的인 政權篡奪 過程中 反對派들에 대한 殘忍한 鎮壓과 피비린내 나는 政治現實은 士人들의 마음속에 깊은 陰影을 드리우게 된다. 이러한 政治的 現實은 士人들로 하여금 生死에 대한 憂慮와 자신의 運命과 生命에 대해 極度の 恐怖感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극도로 험악한 政治現

28) 《晉書本傳》：“阮籍本有濟世志，屬魏晉之際，天下多故，名士少有全者，籍由是不與世事，追酣飲爲常。”

阮籍은 본시 濟世의 의지가 강한 사람 이었으나 위진 시기 어지러운 세상과 많은 명사들도 죽음을 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阮籍은 세상일을 뒤로하고 청담과 음주를 즐긴다.

29) 高晨陽, 《阮籍評傳》.南京大學 出版社, 1997 p23

實은 士人들로 하여금 現實政治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現實 狀況에 대해 危機만을 謀免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淸談 형식을 빌려 政治的 現實을 애써 外面하는 社會的 분위기로 一貫하면서 隱逸의 風潮가 盛行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阮籍, 嵇康 등은 基本的으로 世事に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生命에 대한 깊은 憂慮를 느낀 사람들로 이들은 함께 “竹林之游”를 맺게 되었는데 그러나 司馬氏의 壓政 아래서 政治에서 몸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政治的 強壓으로 말미암아 正始 이후 얼마 되지 않아 竹林之游 중 대부분의 人士들은 現實을 등지고 隱遁하기 보다는 점차 이러한 隱遁的인 生活에서 벗어나 現實 參與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一連에 態度 變化는 자신들의 行爲가 政治的으로 비난받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現實 政治의 矛盾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世俗 속에서 隱逸을 擇했는지도 모른다. 비록 몸은 世俗에 있으나 마음은 산속에 있고 몸은 官服을 입었으나 業務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淸談으로 자신과 現實 政治에서 멀어지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혹은 神仙이 되고자 渴望하며 現實政治에 대한 失望과 마음속 鬱憤을 감추고자 했다. 여기에 속한 여러 文人들의 精神的 面貌나 政治 態度 및 生活 情緒는 당시 文人 階層의 代表性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은 特定한 社會의 政治 環境이 만들어낸 特殊한 社會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正始 十年 阮籍의 나이 마흔이 되던 해에 阮籍은 司馬懿 밑에서 中郎을 역임했는데 竹林時期的 七賢 중에서 阮籍은 먼저 官職에나선 이유는 그가 社會的으로나 學問的으로 名聲과 德望이 높아 司馬氏의 관심과 관련 있다.³⁰⁾ 阮籍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과 과정은 史料에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상황과 그에 성격을 근거로 보면 그에 出仕는 外部的 壓力과 자신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긴 不得已한 選擇일 可能性이 높다.

甘露 元年 (256) 곧 正元 三年 阮籍은 步兵校尉에 오르는데 이것은 그가 出仕後 두 번째로 自願해서 官職에 올랐다. 《晉書 阮籍傳》에 의하면 營內에 술이 300斗나 있어 술 때문에 步兵校尉를 원했다고 했다. 당시 魏.晉 時期에 步兵校尉는 兵權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이 職責을 願한 이면에는 政治的인 考慮가 配慮되어 있다. 그는 본래 司馬氏의 행동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는 편이었지만 벼슬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司馬氏

30) 孫明君, 《漢魏文學與政治》, 商務印書館, 2003, p.156.

집단과 너무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도 아니었다. 더욱이 그의 社會的 名聲에 많은 陋가 되었으므로 阮籍은 이러한 困境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步兵校尉라는 관직은 비록 中央政府의 官員이지만 武官이고 兵權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司馬氏 집단에게 軍事的 影響을 줄만한 위치도 아니었기에 司馬氏의 우려대상도 아니었다. 그래서 阮籍은 步兵校尉라는 職分은 아마도 司馬氏와 曹氏의 政權 爭奪에 휘말리지 않을 가장 적합한 職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阮籍이 步兵校尉를 하고자 하는 것은 軍營안에 좋은 술이 있어서 그것을 원했다고³¹⁾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이런 구실을 핑계 삼아 政治的으로 政權 爭奪에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欺瞞策일 것이다. 阮籍이 평생 동안 관직을 맡은 중에 步兵校尉가 가장 오랫동안 역임한 것으로 대략 八年을 이 관직에 있었으며 轉職이나 昇職 같은 것이 없는걸 보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阮籍이 步兵校尉를 그만 둔 후에도 계속 司馬氏와의 關係를 維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司馬氏와의 관계를 소홀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했을 것이며 이러한 처신은 당연히 保身의 目的이 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政治的 態度는 완전히 政治的 多難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鐘海는 司馬氏의 사람으로 그가 말하기를 嵇康이 죽음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公開的으로 司馬氏 집단과 政治的으로 協力하지 않은 것과 關係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서 阮籍은 愷康처럼 공개적으로 거부의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빌어 자신이 처한 困境에서 脫皮하는 奇行을 택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奇行은 반드시 效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禮法을 重視하는 人士들에게는 批判에 對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칫 더 큰 禍를 부를 수도 있는 行動이었다. 司馬昭는 孝로서 天下를 다스린다는 名分이었지만 阮籍은 母親喪 동안의 일련의 奇行들은 이는 不孝한 행동이요 이것은 司馬氏의 명분을 沮害하는 사건이었다. 嵇康과 何晏이 司馬氏에게 죽음을 당한 罪名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과 聯關이 있다.³²⁾ 그러나 阮籍은 그들과는 달리 어떤 일이나 사람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적이 없다. 또한 司馬氏 집단 밑에서 오랫동안 官職에 있었던 관계로 嵇康이나 何晏처럼 司馬氏에 대해 公開的으로 反

31) 劉汝霖《漢晉學術編年.第二冊》，商務印書館，1940 pp.19-21요약

32) 《魏氏春秋》：“安引康僞証康義不負心，保明其事..安亦性烈，有濟世誌力.鐘會勸大將軍因此除之.追殺安及康，”

對 意思를 나타내지도 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阮籍은 이러한 態度로 술을 빌어 어리석게 보인다가나 是非에 대한 模糊한 態度로 일관 한다.

이시기 그는 政治的 社會的인 요소로 말미암아 현실을 消極的인 방식으로 대처하며 超脫과 神仙世界를 동경하며 현실 사회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자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부득이 現實參與를 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主動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분위기의 외압에 의한 被動的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는 전연 상관이 없는 政治 참여는 그로 하여금 현실 정치에 대한 외면과 소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대처하게 하였을 것이다. 阮籍은 평소 내적으로 잠재된 생각들을 표현해 내는데 政治的 社會적 외적 압력에 의해 시의 내용들에 담긴 뜻이 模糊함을 더하여 간다. 이러한 것들은 阮籍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며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士人으로서 자신의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말 할 수 있는 정의감의 발로였을지도 모른다. 당시 司馬懿는 一舉에 曹爽과 何晏등 八族을 몰살하는 “典午之變” 이후로 수천에 달하는 名士들이 政治的인 이유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政局을 恐怖 局面으로 造成하여 反對 勢力에 대한 대대적 肅清을 敢行한 것이다. 이 당시 士人들의 心理的 不安感和 生命에 대한 두려움은 실로 대단했을 것이다. 阮籍은 일찍이 그 名聲이 높았고 以前에 曹爽에 부름을 거절한 적도 있고 해서 司馬氏가 보기에 政治上 曹氏 집단에 의지하는 자가 아님을 알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司馬氏의 발탁대상이 되었다. 그가 司馬昭의 부름을 받고 洛陽으로 간 이유는 확실히 嵇康의 죽음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다. 嵇康을 죽인 이유는 司馬氏가 嵇康이 不孝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 이유는 司馬氏의 부름을 거절하여 禍를 당한 것이다.³³⁾ 당시 士人들의 처지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이런 이유로 阮籍 또한 生命의 위협 속에서 부득이한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 阮籍이 출사 후에도 政治的인 일에 있어서 司馬氏에 대해 줄곧 消極的인 態度로 一貫한다. 그 이유는 혹시 모를 司馬氏

33) 《魏氏春秋》：“大將軍(司馬昭)欲辟康,康慨有絕世之言,又從子不善,避之河東,或云避世,及山濤爲選曹郎,舉康自代,康答書拒絕.因自說不堪流俗而非湯武,大將軍而怒焉”

대장군 사마소는 혜강을 관직에 기용하려 했으나 그는 거침없는 말투로 세상을 비판하고 명령을 불복하고 하동으로 몸을 피하며 세상일을 뒤로 하였다. 산도를 조랑에 혜강을 자대에 봉했으나 혜강이 거절하자 사마소는 대노하였다

주위 인물들에 의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다.

阮籍이 中郎이라는 職을 歷任하던 해인 嘉平 六年 司馬師는 齊王인 曹芳을 廢하고 曹髦를 皇帝로 擁立하고 年號를 正元으로 바꾼다. 君主專制 制度下에서 廢位는 대단한 事件으로 朝政 內外로 커다란 衝擊 이었다. 이러한 歷史的 事變을 阮籍은 사건발생 그 해인 가을에 그의 詩賦 《首陽山賦》에서 자신의 心境을 잘 나타내고 있다

嘉粟屏而不存兮 좋은 곡식 거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故甘死而採薇 고사리를 먹으며 기꺼이 죽었다.
彼背殷而從昌兮 다른 사람들은 은나라 배반하고 주문 왕 따라서니
投危敗而弗遲 지체 없이 위험과 패배를 저버렸다.
此進而不合兮 백이숙제는 스스로 나아가 협력 하지는 안했다지만,
又何稱乎仁義 그렇다고 仁義를 말할 수 있겠는가?
肆壽夭而弗豫兮 죽음도 무릅쓴 고생이야 알겠지만
競毀譽以爲度 그것은 애써 명예만을 쫓는 것일 뿐.
察前載之是云兮 이전에 기록들에서 그들을 대한 것을 찾아봤는데
何美論之足慕 칭찬 뿐 인데 무엇이 흠모 할 만한가?

阮籍이 伯夷 兄弟에 대해 이처럼 다른 評價는 자세히 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첫 句節은 悲哀와 깊은 憂慮와 孤獨함과 無力한 분위기가 깔려 있다. 司馬師가 曹芳을 廢한 이유는 道德的 理由를 내세워 皇室을 補佐 한다는 名分이었는데 이는 周나라 武王이 暴政을 없애고 백성을 위한다는 名分과 일치한다. 阮籍이 伯夷 兄弟의 行동을 批判하는 것은 마치 司馬師가 皇帝를 廢한 일에 대해 肯定과 支持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實際 그 內容에 있어서는 正反對의 意味를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표현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사 표시인지 아니면 司馬師가 曹芳을 廢한 사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諷刺인지 模糊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이와 類似한 意味가 담긴 《詠懷詩》十六을 살펴보기로 하자.

《詠懷詩十六》

徘徊蓬池上 蓬池 위를 배회하다가,

走獸交橫馳 들짐승 어지러이 마구 내닫고
 飛鳥相隨翔 날짐승도 서로 따라 나른다.
 是時鶉火中 시절은 鶉火星이 남쪽에서 자라나는 9월에 가을 녘.
 日月正相望 마침 해와 달이 동서에서 마주보는 15일
 朔風厲嚴寒朔風이 불어오니 더욱 더 추워지고
 陰氣下微霜 陰氣는 가벼운 서리를 내리고
 羈旅無儔匹 나그네길 친구할 벗도 없어.
 俛仰懷哀傷 이리저리 돌아봐도 마음만 애달을 뿐

詩中에 분위기가 일종의 悽慘하고 凶惡한 橫暴를 적극 浮刻시킨 점을 당시의 司馬師가 政權을 잡을 때 잔혹한 일면을 나타내는 內容으로 보고 있다. 阮籍은 당시 伯夷 兄弟처럼 直接的으로 司馬氏의 행동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처치고 보면 伯夷 兄弟에 대한 批判을 구실 삼아 스스로를 慰勞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를 펴보면 가을의 스산함과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계절의 변화에 비유 하는 내용들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是時鶉火中” “日月正相望”은 司馬師가 嘉平 六年 廢位事件이 일어난 날을 意味하며 이는 廢位事件을 念頭하고 지은 詩이다.³⁴⁾ 는 해석은 역사적 사건을 내용에 맞추는 듯하다. 伯夷 兄弟에 대해서는 그의 《詠懷詩》에서 여러 차례 首陽山을 말한 것도 伯夷兄弟의 高潔한 人品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 때문일 것이지만 이 詩의 내용상에 있어서 司馬師의 苛酷한 專橫을 서리에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가을의 정취에 비유하여 슬픔을 이야기 하는지 模糊한 느낌이 든다. 하는 이와 관련된 意味를 다음 작품에서 보면

《永懷詩十三》

登高臨四野 높이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北望靑山阿 북쪽 푸른 산자락 보이네.

34) 《義門讀書記》: 何焯의 말에 의하면 “是時鶉火中, 日月正相望” “此詩正指 司馬師廢齊王事也”
 시절은 鶉火星이 남쪽에서 자라나는 9월에 가을 녘. 마침 해와 달이 동서에서 마주보는 15일”은 암암리에 제왕의 폐위시기를 의미한다고 단정했다.

松柏翳岡岑 송백은 높이 솟은 산등성을 에워싸고
 飛鳥鳴相過 나는 새 날개 소리와 새 울음소리 어우러져 지나가네.
 感慨懷辛酸 감개하여 내 마음 쓰리고
 怨毒常苦多 원한에 사무친 마음이 항상 괴롭게 떠오르는데.
 李公悲東門 이사는 동문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며 슬퍼했고
 蘇子狹三河 소진은 三河를 좁다 했네.
 求仁自得仁 仁을 구하고자 해서 仁을 얻었으니
 豈復歎咨嗟 어찌 다시 한탄해서 무엇 하리

여기에서는 주변 경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자신의 감개를 이끌어 내면서 마음속의 感情과 政治에 대한 자신의 眞實를 吐露했다고 볼 수 있다.

“求仁自得仁, 豈復歎咨嗟.”는 그 옛날 孔子가 伯夷 兄弟의 純潔한 뜻을 崇拜하고 欽慕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阮籍이 여기에서 말하는 두 인물은 伯夷 兄弟와 같은 高潔한 人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仁”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을 “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功名과 富貴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러한 그의 위 두 인물에 대한 비유는 司馬氏의 專橫과 璿포에 대한 迂廻的인 諷刺일 수도 있을 것이다.

隱逸과 超脫 내지는 비애와 고통 등 연약한 정감으로 象徵되는 그의 일반적인 價値觀과 자못 相反되는 작품을 하나 보기로 하자. 《詠懷詩》三十九의 내용을 보면 그의 소년기가졌던 웅대한 기상이 아직은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詠懷詩三十九》

壯士何慷慨 장사의 뜻은 너무 커서
 志欲威八荒 온 세상을 위협하려 한다
 驅車遠行役 말 몰아 행역을 나갈 때에
 受命念自忘 명을 받고는 자기 몸을 잊는다
 良弓挾烏號 양궁은 오호를 끼고

明甲有精光 갑옷은 찬란히 빛난다
 臨難不顧生 어려움에 처해선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身死魂飛揚 몸은 죽어도 혼이 날려 떨친다
 豈爲全軀士 어찌 몸을 보전하기 바라겠는가?
 效命爭戰場 단지 명을 받아 싸울 뿐
 忠爲百世榮 충성은 백세에 영화롭고
 義使令名彰 의는 그 이름을 빛내네!
 垂聲謝後世 이름은 대대손손 전해지니
 氣節故有常 절개는 영원 하여라

이 詩는 虛構的인 人物인 壯士를 내세워 自身的 挫折된 抱負에 대한 마음을 壯士라는 假想의 人物을 내세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不分明한 對象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懷疑的이거나 超自然的인 思想을 止揚하고 특이하게도 위풍당당하게 나라를 위해 忠誠으로 목숨 바쳐 그 節概를 만천하에 빛내고자하는 肯定的인 側面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壯士가 阮籍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內容으로 보아 그는 王命을 받고 遠地인 邊防의 官吏로 가서 투혼을 태운 戰士였을 것이다. 阮籍은 이 사람을 찬양하며 위험에 굴하지 않고 전쟁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한 이 壯士의 忠, 義의 高潔한 品格은 後世에 빛날 것이며 그의 氣概와 이름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다.³⁵⁾

阮籍이 崇尚하는 忠, 義는 司馬氏가 主唱하는 “以孝治天下”의 旗幟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魏晉 交替時期의 이 忠臣 義士는 아마 분명 司馬氏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며 아마도 魏 皇室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政況으로 볼 때 母丘檢, 王凌, 文欽, 諸葛 誕 등 司馬氏 집단에 反旗를 들다가 죽은 이들을 聯想해 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觀點은 다분히 歷史的인 事實에 너무 집착하여 解釋하려는 傾向으로 歷史的인 事件을 억지로 작품 內容과 聯關 지으려는 意圖가 있다. 사실 여기에서도 단지 對象을 빌린 것일 뿐 여기서 말한 壯士는 당연히 實存人物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로는 建安 七子 작품 중에는

35) 羅仲鼎 《阮籍詠懷詩 釋解》 南京大學 出版社.1999,p.125

36)

자주 종군이나 정벌을 노래하는 시중에서 英雄 豪傑이나 壯士를 빌어 노래하는 작품이 많다. 그중에서 조식의 《白馬篇》은 가장 전형적인 작품이다. 阮籍은 이 시에서 확실히 조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시는 《詠懷詩》의 은유와 象徵的 수법과 내용이 난해하고 模糊한 특징들이 전연 느껴지지 않은 작품이다.

Ⅲ. 內容 研究

그의 《詠懷詩》 八十二首는 작품에 대한 확실한 年譜가 없기 때문에 비록 全部가 阮籍의 後期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단지 詩의 내용이 基本的으로 阮籍의 後期思想과 心理的 狀態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서 대부분 이 時期에 작품일 것이라는 歷史的 배경을 근거로 추측 할 따름이다. 이러한 그의 《詠懷詩》는 당시 時代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서 상당히 높은 審美的 價値와 藝術的 價値를 지니고 있으며 中國 文學史에서도 阮籍의 《詠懷詩》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鍾嶸은 《詩品》에서 阮籍의 《詠懷詩》 八十二首를 “上品之作”이라 評한 것이나 李夢陽도 阮籍의 《詠懷詩》를 일컬어 “予觀 魏詩， 嗣宗冠焉”이라 稱頌하였던것을 보면 작품의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全體的으로 宇宙 안의 모든 事物에 대한 無常의 분위기로 일관된³⁷⁾ 《詠懷詩》는 그 자신의 일생을 통한 抱負, 理想, 抵抗, 苦悶, 悲觀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詠懷詩》 八十二首를 內容과 主題를 (1)自白類, (2)諷刺類, (3)神仙類, (4)隱居類, (5)哀喪類, (6)生命類,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서두의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詩의 성격상 어떤 部類에 속한 작품인지 내용상으로 混在된 작품들이 많아서 혼란스런 면도 없지 않지만 이의 分類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정감적 세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보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당시 社會的 政治的인 상황에 대하여 典故의 인용이나 비유

37) 陸,馮,《中國詩史》, 百花文藝出版社1999 p.322

象徴的 수법으로 본질의 의미를 교묘히 감추었다. 이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諷刺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模糊한 표현으로 다양한 해석과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1. 自白類

자신의 行蹟이나 趣向을 敘述한 內容으로 이 작품 속에는 濟世의 意志와 歸隱의 憧憬이 混在한 작품들이 많다. 靑少年期 그는 濟世의 意志는 물론 넓은 眼目과 큰 抱負를 지니며 앞날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았었다. 단지 時代的 思潮의 영향과 環境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思想은 儒家에서 道家로 濟世에 대한 渴望에서 超脫의 世界로 바뀌어간다. 이러한 그의 思想的 變化는 漢代 흥성 했던 儒家 思想이 魏晉 시대에 들면서 쇠퇴하고 老莊思想의 대두로 말미암은 이유도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당시 政治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상의 출현과 당시 政治的 狀況과 맞물린 현실에서 지난날 자신이 젊을 시절 품었던 웅대한 포부를 회상하면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을 老莊에 의탁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詠懷詩》五. 《詠懷詩》十五. 《詠懷詩》三十八. 《詠懷詩》三十九首. 《詠懷詩》六十. 《詠懷詩》六十一首. 《詠懷詩》六十二가 이 部類에 속한 작품들로 여기서는 《詠懷詩》五. 六十, 六十一 을 통해서 阮籍의 당시의 心境과 思想的 葛藤 變化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자.

《詠懷詩五.》

平生少年時 지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니
輕薄好弦歌 경박하게도 노래와 음악을 좋아 했네
西遊咸陽中 서쪽 함양에서 노닐 때
趙李相經過 자주 조 .이 와 어울렸네
娛樂未終極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白日忽蹉跎 밝은 해 갑자기 기우니

驅馬復來歸 말 몰아 돌아가는 길에
 反顧望三河 고개 돌려 三河를 바라보네
 黃金百鎰盡 수많은 황금을 다 써버리고
 資用常苦多 늘 쓸 곳은 너무 많아 걱정이네
 北臨太行道 북쪽 太行山 가는 길에 이르러
 失路將如何 길을 잃었으니 장차 이일을 어찌할거나!

古代 評論家들은 이 작품을 曹 皇室에 등을 돌리고 司馬氏에게 기우는 自身을 諷刺하는 內容으로 解釋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阮籍이 司馬氏 밑에서 벼슬을 했다가 衰微해가는 曹 皇室과 司馬氏 간의 政治的 暗鬪中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心情을 노래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여기서 平生은 자신의 어린 시절 輕薄하고 조심성 없이 歌舞와 酒宴을 일삼고 가벼이 出仕하였을 때를 回想하는 句節이다.³⁸⁾

陳沉은 詩에 前 四句는 曹 皇室의 盛時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句節은 明帝의 죽음을 意味하며 太行山에서의 失路는 曹 皇室의 失權과 沒落을 노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政治的 사실과 내용을 근거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主觀的인 견해일 뿐 客觀的으로 詩語가 갖는 意味는 檢證할 방법이 없다. 筆者의 견해는 젊은 날 자신의 放蕩한 行爲를 스스로 認定하며 훗날 政治的 混沌의 時代에 살면서 現實政治의 限界를 克復하지 못하고 方向感을 喪失한 자신의 位置를 다시 확인하고 난 뒤의 심경을 노래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표면상으로 보자면 이 작품은 확실히 자신을 뒤돌아보는 自述的인 意味와 젊은 날 자신의 行動에 대한 後悔의 분위기로 一貫된 느낌이다. 《詠懷詩》중에서 “昔年十四五. 志尙好書詩”. 《詠懷詩》十五“昔余游大梁. 登于黃華顛” 《詠懷詩》二十九“少年學擊刺. 妙伎過曲城” 《詠懷詩》六十一“北臨干味溪. 西行游少任” 《詠懷詩》六十八등은 모두 이러한 자신의 젊은 날을 回顧하며 쓴 작품들이라 하겠다. 現存하는 《詠懷詩》의 內容과 風格으로 본다면 사실 대부분이 中年 以後에 작품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증거는 여기에서 “平生少年時”나 《詠懷詩》六十一에서 “念我平常時”의 內容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하다. 具體的으로 詩語의 意味上으로 살펴보면 “平生少年時, 輕薄好弦歌.” 阮籍 자

38) 劉履, 《選詩補注》: 掩室將亡, 誰欲退而無計, 故篇末托言太行失路, 以喻懊嘆無窮之情焉.

신의 짧은 날 정치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즐기는 것에만 시간을 보냈다는 悔恨의 內容이다.

“西遊咸陽中，趙李相經過。” 서쪽 함양에서 놀았다. 여기에서 咸陽은 옛 秦나라 都城로 여기에서 咸陽은 단지 하나에 代名詞로서 지금의 咸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比喻로서 당시의 曹魏의 都城인 洛陽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³⁹⁾ 이렇게 京城에 가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도 사귀었다. 여기서 말한趙.李는 《漢書》의 《谷永傳》 “小臣趙.李. 常與成帝微行” “趙.李”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잘나가는 人物들로 그들과 어울리며 青年時節을 보냈다는 過去에 대한 回想이며 “娛樂未終極，白日忽蹉跎” 아직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날이 저물었다는 意味로 짧은 날에 그렇게 浪費한 時間들이 瞬息間에 지나가 버렸다는 悔恨의 表現이다. “驅馬復來歸. 反顧望三河.”⁴⁰⁾ 이제야 阮籍은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며 과거에 일들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그래서 지금은 말을 타고 돌아가려는 길에 고개를 돌려 三河를 돌아본다. 三河는 바로 曹魏의 都城이 있는 곳을 意味한다. 또한 繁華와 富裕함이 있는 곳 옛 都城들이 대부분 繁華 하듯이 이전에 阮籍의 짧은 시절 놀았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黃金百鎰盡，資用常苦多” 그때 얼마나 많은 財物을 浪費했는가? 라고 反問하면서 이제야 와서 깨달으니 이미 때는 늦었고 그래서 그는 그 심경을 “北臨太行道，失路將如.”라고 표현한다. 여기에서 “太行”은 큰길이라는 뜻으로 “太”는 바로 크다는 意味다. 중국에는 “太行山”이라는 산이 있지만 여기에서 阮籍은 반드시 이산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길을 가는 도중에 방향을 잃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한지 모르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方向도 잘못 選擇할 수 있다는 意味로 큰 길에서의 方向 選擇은 것은 대단히 慎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작품에서 阮籍은 人生의 짧은 旅程과 無常함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選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詠懷詩六十》

39) 叶嘉莹, 《詠懷詩 讀解》 中華書局 2007 p.94

40) “三河” “李公悲東門，蘇子狹三河”에서 三河는바로 黃河 伊川 ,洛水를 이르는 말이다.

儒者通六藝 儒者は 육경에 정통하고
 立志不可干 일단 세운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
 違禮不爲動 예의에 어긋나면 행동하지 않고
 非法不肯言 법이 아니면 말하려고도 않는다
 渴飲清泉流 목마르면 흐르는 맑은 냇물 마시고
 飢食并一簞 먹는 것은 한 끼 걸러 한번씩
 歲時無以祀 제사 때엔 아무것도 놓을게 없고
 衣服常苦寒 衣服은 늘 추위에 떨 정도이다
 徒履咏南風 짚신 신고 <南風>을 노래하며
 緼袍笑華軒 솜옷 입고도 화려한 수레를 보고 웃는다
 信道守詩書 道를 믿고 詩書를 굳게 지키며
 義不受一餐 의가 아니면 한 끼니 조차도 받지 않는다
 烈烈褒貶辭 열렬한 칭찬과 비난의 말은
 老氏用長歡 노자로 하여금 장탄하게 한다

이 詩에 대한 見解는 여러 評論家들이 각기 多樣한 解釋을 보이는데 마지막 句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儒者에 대한 언급이다. 마지막 句 이외에는 모두 儒家的 指向으로 一貫하다가 돌연 詩의 主題는 마지막 句로 인하여 道家와 儒家가 混在하여 詩 전체의 내용이 모호해 버린다. 이 詩를 陳沆은 儒家의 價値를 지켜내지 못한 漢末 儒學者들을 老子에 빗대어 儒家에 대한 비난으로 여겼으며⁴¹⁾ 또한 老子에 觀點에서 儒家에 偏狹함을 諷刺한 것으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⁴²⁾ 小儒를 諷刺하는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사실은 老子보다 儒家에 대한 優越性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의 模糊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阮籍 자신이 道家와 儒家에 깊은 理解를 갖고 있었으며 儒家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思想은 靑少年期の 濟世志의 抱負에 한 斷面임을 알 수 있다. 本 詩의 內容과 《咏懷》五十九에서의 “河上有丈人”의 內容과 비슷한 일면이 있다. 단지 다른 부분이라면 “河上有丈人”은 주로

41) 陳伯君, 《阮籍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87 pp.165-169

42) 黃節, 《阮步兵詠懷詩注》, 人民文學出版社. 1957 p.7

儒家の 安貧樂道 정신과 당시 功利를 쫓는 社會的 분위기를 비교하여 노래한 것이지만 이 詩는 전체적으로 儒家의 고상한 품격을 描寫하고 있다. 그들은 六藝에 精通하고 忠義와 節概를 지키며 榮利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儒家文化에 대한 欽慕와 崇尚을 表現하였다. 이러한 젊은 날에 抱負와 悔恨이 담긴 작품을 더 보기로 하자.

《詠懷詩六十一》

少年學擊刺 소년시절에 무술을 배웠는데
 妙伎過曲城 뛰어난 실력은 曲城候를 능가 했네
 英風截雲霓 빼어난 자태는 구름을 가르고
 超世發奇聲 한 세대를 넘어 이름 알려지네.
 揮劍臨沙漠 사막에서 검을 휘두르고
 飲馬九野坳 세상 끝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
 旗幟何翩翩 깃발은 바람에 훑날리고
 但聞金鼓鳴 오로지 북소리와 징소리뿐
 軍旅令人悲 군영생활은 사람을 슬프게 하니
 烈烈有哀情 오직 비통한 마음 뿐
 念我平常時 젊은 날을 생각하니
 悔恨從此生 회한은 이곳에서 생겨나네.

이 詩는 內容的으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 悔恨의 情緒를 나타낸 것이다. 잠시 政局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 曹氏와 司馬氏 간의 치열한 내분 다툼으로 政局이 급변하자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少年期 武功으로 立身出世 하려 했던 것을 심히 後悔한 內容이다. 내용으로 보면 그의 自負心이 잘 나타나 있으나 肯定的이기 보다는 後悔와 過去 자신의 행위에 대한 慘憺한 心情을 노래한 詩이다.

이 詩는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알아 볼 수 있다. 少年時節 武術을 배울 때부터 세상 끝에서 말에 물을 먹인 부분은 高度에 劍術 鍊磨와 當당한 氣概를 지닌 소년 영웅의 形象을 주로 描寫 했으며 그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여 커다란 功을 세우겠다는 渴望이

서려 있는 대목이다. “旗幟何翩翩” 이하 4句는 邊防에는 오직 북소리만 들릴 뿐 實際的인 戰鬪가 없어 영웅은 이곳에서 鍊磨한 武術을 펼쳐 볼 기회가 없어 마음속으로 悲哀에 情感이 가득 함을 表現하고 있다. 마지막 두 句節은 위에서 서술한 영웅의 形象을 빌어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아픔을 토로한 구절이다. 阮籍은 진정으로 現實을 逃避하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傳統的인 儒家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고 전에는 雄大한 意志를 품고 出世를 渴望했던 사람이다. 단지 그 시대 政治的 社會的 環境的 요인으로 말미암아 濟世에서 避世 로의 轉換은 그가 儒家信奉者에서 老莊 思想에 深趣로 바뀌어 지는데 晩年에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儒家思想의 기억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늘 矛盾의 아픔을 겪게 된다.

《詠懷詩》중에서 阮籍은 영웅적 人物이나 儒家에 賢人을 예로 들어 表現한 것을 보면 이러한 矛盾的인 心情을 比較的 충분히 表現했다고 할 것이다. 이 詩의 마지막 두 句節은 “念我平常”: 젊은 날을 생각하니 “悔恨從此生” 悔恨은 여기에서 생각나네.” 바로 阮籍의 마음속의 이러한 모순이 잘 表現된 부분이라 하겠다. 阮籍의 이 詩는 老莊思想으로 儒家의 立功 出世的 생각을 批判하고 反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詩에는 또한 象徴的 色彩가 짙게 깔려 있다. “揮劍臨沙漠. 飲馬九野坳” 소년 영웅의 形象 빌어 가슴속에 감춰진 마음의 悲哀를 藝術的 形象으로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어느 정도 詩人의 情緒를 대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가 追求하는 생각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두 句節에서 말한 我는 藝術的 形象의 어투이고 마지막 句의 悔恨은 영웅이 비록 才能을 지녔으나 펼칠 기회가 없어 그럼으로 오는 悔恨일 것이다. 이 두 句節은 어렸을 적 그의 마음속에 감춰진 당시 濟世의 뜻을 이루지 못한 悔恨의 吐露인가 아니면 道家 思想으로 자신을 反省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듯 하나의 내용 중에 서로 상반된 사상이 유입되어 어찌 보면 입장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그 의미도 서로 달라 도대체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호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2. 諷刺類

魏晉 당시 士人들은 혼란한 政治狀況 속에서 積極적으로 魏 王朝를 支持하며 司馬氏에 抵抗할 힘이 없었다. 그들은 눈앞에 展開되는 치열한 權力鬭爭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는 행동으로 消極적인 抵抗意志를 나타낸다. 抵抗은 抵抗이지만 드러내놓고 대들지를 못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禮法을 어기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禮法이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社會生活의 規範이다. 본래 權力者편에 유익한 規範이어서 그것을 無視하면 결국 權力者에게 抵抗하는 意思 表示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詠懷詩》의 諷刺 對象은 물론 主題를 把握은 일은 중요한 문제이다. 작품 속에 담겨진 진정한 意味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詩語마다 作者의 意圖가 지나치게 깊게 숨겨져 있어 쉽게 內心을 파악 하기란 어려운 면이 많지만 그 속에 포함된 一般的인 생각과 그가 表現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면 그가 追求하는 뜻을 대충 알 수 가있다. 解釋이 難解하다는 것과 解釋할 수 없는 것과는 分명한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阮籍은 亂世에 태어나 늘 목숨의 위태로움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의 《詠懷詩》는 늘 生命에대한 애착이 切迫하게 描寫되어 있다. 비록 뜻은 現實社會에 대한 諷刺에 두고 있지만 그에 글은 巧妙하게 僞裝되어 있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審美感을 갖게 한다.

司馬氏와 魏 皇室간의 正權다툼 過程에서 僞善의인 禮敎의 名利追求와 醜惡한 友情과 背信 등을 諷刺한 것으로 《詠懷詩》二, 《詠懷詩》一, 《詠懷詩》十二, 《詠懷詩》十三, 《詠懷詩》二十九 등 모두 十四首로 이는 阮籍의 政治的 立場과 聯關된 작품들이다.

《詠懷詩十一》

湛湛長江水 깊게 흐르는 長江의 물
上有楓樹林 독에는 風水林이 있고
阜蘭被徑路 길에는阜蘭 덮이고
青驪逝駸駸 검은말은 달려지나가고
遠望令人悲 멀리 바라보니 마음 슬퍼지네.

春氣感我心 봄기운에 내 마음 흔들리고
 三楚多秀士 三楚엔 뛰어난 선비도 많았으나
 朝雲進荒淫 荒淫한 말로 임금에게 아침만 했네.
 朱華振芬芳 붉은 꽃향기 내뿜으니
 高蔡相追尋 高蔡에선 서로 즐기지만 할 뿐
 一爲黃雀哀 참새의 슬픔을 생각하니
 淚下誰能禁. 흐르는 눈물 누가 금할 수 있을까?

“湛湛長江水” 이 句節은 楚辭의 《招魂》篇 湛湛江水兮, 上有楓目極, 千里傷春心.을 引用한 부분으로 표면상으로 보자면 단지 長江에 주위 風景을 描寫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劉履의 《選詩補注》에서 그는 이 詩는 아마도 다른 많은 意味를 담고 있다고 했다.

그 內容인 즉 《通鑿》의 記錄에 의하면 西紀254年(正始 元年) 魏 皇帝 曹芳이 平樂觀에서 倡優란 舞女와 즐기던 중 大將軍인 司馬師가 이 사실을 알고 淫蕩 無道함을 빌미로 曹芳을 河內로 廢位하고 君王의 자리에 올랐다. 갑작스런 일에 여러 신하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는 그때의 슬픈 感情을 이기지 못하고 이 詩를 지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은 司馬氏 集團의 이 같은 王位 篡奪을 보고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는 감히 直言할 수 없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그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시의 심정을 詩 로서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前 6句는 전부 《楚辭.招魂》篇의 말을 引用하여 楚나라의 風物을 가지고 感慨를 이끌어 내고 있다. 莊嚴하고 아름다운 長江의 물결이 힘차게 용솨음치며 내닫는 광경과 강 양 언덕위에 가득히 자란 붉은 風林과 蘭草 가득한 小路위를 검은말이 수레를 끌며 내닫는 봄날에 부드러운 아름다운 풍경이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한 아픔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했을 것이다.

작품 속에는 강과 산의 수려한 봄 풍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배어 있는 듯하며 또한 전체 內容의 表現 主題로 깔려 있다. 後半部 6句는 楚나라에 政勢를 노래한 부분이다. 三楚는 南楚. 吳는 東楚. 彭城은 西楚로 統稱하여 부르는 말이며 .43) 여기에서 三楚는 분명 總括的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그중에는 또한 詩人의 生活 根據地를 포함하는

43) 孟康, 《漢書注》: “舊名江陵爲南楚, 吳爲東楚, 彭城爲西楚.”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노래한 楚나라의 政勢는 결코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 現實에 대한 諷刺가 짙게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朝廷 안에는 뛰어난 人傑은 많으나 政事에는 관심이 없고 종일토록 荒唐無愧한 迷信 같은 이야기로 君王을 迷惑케 하며 정권다툼에만 몰두 하고 있음을 안타가워 하고 있다. “朱華”는 宮中에 는 꽃 비단으로 빼곡히 둘러싸여 그윽한 향기로 사람을 유혹하고 君王은 즐기는 것에만 눈이 팔려 마치 蔡靈侯가 高蔡에 있을 때처럼 淫蕩하고 無道한 行爲를 일삼을 때와 다를 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阮籍은 여기에서 引用한 《戰國策· 庄辛諫楚襄王》의 典故는 享樂만을 쫓는 魏王을 叱責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弱點을 찾아 害하려는 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노니는 참새처럼 앞으로 닥칠 위태로움으로 당시의 政治的 상황을 表現했다. 마지막 2句의 “哀”는 全篇에 포인트로 詩人은 曹芳의 廢位를 두고 “哀”로 表現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寵臣을 두고 “哀”다 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두고도 “哀”로 表現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독자들 로 하여금 模糊함과 다양한 思考를 요구 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서 다시의 政治的 비판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詩의 앞부분은 風景을, 중간은 당시의 政勢를, 마지막은 抒情을 自然과 連繫하여 景, 史, 情을 一切的으로 融合하여 諷刺의 意味를 強하게 表現한 작품이다. 당시 특수한 社會 環境에 처한 詩人은 여기에서 現實社會에 대한 諷刺를 典故를 引用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고 自然과 뒤섞여 놓음으로서 高度의 藝術的 着想을 그렷다.

《詠懷詩十二》

昔日繁華子 옛날엔 변화했던
 安陵與龍陽 安陵과龍陽은
 夭夭桃李花 요염한 桃李꽃처럼
 灼灼有輝光 밝고 환한 빛을 발한다
 悅懌若九春 즐거움은 마치 봄날 같고
 磬折似秋霜 가을 서리 맞은 풀잎처럼 고개 숙여 절하네.
 流盼發姿媚 결눈질에 아름다운 자태 흐르고

言笑吐芬芳 말과 미소에 향기 풍기네
 攜手等歡愛 손잡고 함께 사랑하며
 宿昔同衣裳 밤에는 같은 옷을 입었네
 願爲雙飛鳥 한 쌍에 새가 되어
 比翼共翱翔 날개 가지런히 높이 날아오르길 바랐었네
 丹青著明誓 붉게 푸르게 맹세 하는 말 새기기를
 永世不相忘 영원토록 서로를 잊지 않으리

이 작품은 構想과 引用된 古典 또한 매우 특이하다. 이로 인해 後代의 評論家들은 그 意味를 把握하기 아주 難解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安陵과 龍陽은 각각 戰國時代 楚王과 衛王이 寵愛하는 女子들로 그들은 왕의 心中을 잘 읽어내어 楚王과 衛王의 寵愛를 한 몸에 받은 여자들이다. 安陵은 왕이 죽으면 스스로 같이 죽겠다고 고하자 왕은 크게 기뻐하여 安陵君에 封했다. 龍陽 역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음을 比喻로 衛王에 대한 忠誠과 자신의 憂慮를 전달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地位를 공고히 하게 된 女子들이다. 傳統의인 觀點에서 본다면 둘은 자신의 美色과 謎語로 뜻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소위 甘言과 機智로 자신들의 寵愛를 鞏固히 하기위한 일종에 術策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의 美色과 政事 關係는 傳統 儒學者들이 말하는 道德的인 觀念으로 보자면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느 부분에도 한마디 질책이나 諷刺的 意味가 담긴 詩語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積極的으로 두 여자의 美貌와 王에 대한 忠節 등을 노래 하는데 이로 인해 두 가지의 相反된 解釋이 可能해 진다. 하나는 政治的 背景과 內容을 主觀的인 立場에서 詩의 內容과 맞추는 解釋인데 이러한 방법은 五臣 呂延濟가 代表的인 人物로 그의 解釋에 의하면 安陵, 龍陽은 왕에게 寵愛를 받아 忠節을 맹세하고 誠心으로 왕을 보필하는데 그러나 쫓 文王은 魏皇室에 蒙恩을 받았는데도 全力을 다하여 補佐하지 않고 오히려 王位를 篡奪하는 過程을보며 恨이 極에 달한 詩人이 이를 諷刺하는 것으로 解釋한다. 다른 하나는 反語的인 解釋으로 이러한 견해의 代表的인 人物로는 何焯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不正한 關係를 形成하여 勸力과 富를 얻은 人物들로 劉放, 孫

資 등이 이러한 部類에 속하며 이 詩의 전체 內容은 逆說的인 手法으로 表現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두 部類의 解釋은 모두 事實的인 根據가 不足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첫 번째 解釋의 形態는 먼저 魏 皇室과 司馬氏 集團 간의 政權다툼 과정이란 政治的 상황으로 前提를 設定한 뒤 해석을 전제에 맞추는 느낌을 준다. 阮籍은 당시 어떤 형태로든 曹 皇室과 관계가 있는 人物로 司馬氏의 政權篡奪 行爲에 대해 諷刺의 對象을 司馬氏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諷刺的인 냄새가 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設定에서 內容을 解釋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反語的 解釋의 缺點은 완전히 本文 內容을 벗어나 순수한 假說에 의한 論理가 展開전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論理로 사람들을 理解시키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내용이 품고 있는 意味는 아주 다양한 상상력만을 요구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模糊함이 대단히 심하게 존재하는 작품이다.

阮籍은 여기서 安陵, 龍陽 두 美人을 마치 봄날에 화사함같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主君에 대한 공손함과 끝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특히 마지막 네 句는 熱情的인 言語로 그들은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열망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熱情과 忠誠을 맹세했다. 《詠懷詩》중에 阮籍은 자주 古典을 引用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모두가 阮籍 자신의 抒情的 필요에 의해 變形된다. 이 작품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阮籍은 이러한 歷史上에 記錄되진 사랑과 충정을 노래한 것일까? 그의 《詠懷詩》중에 神女나 美女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아마도 阮籍 자신의 人生에 대한 理想 追求를 表現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의 理想은 政治的 혼란에서 오는 陰謀와 謀略이 亂舞하는 時代에서 忠義와 貞節로 왕을 섬기고 信義로서 친구를 사귀는 道를 追求 했을 것이다. 阮籍은 여기에서 安陵, 龍陽을 이 詩가 어떤 諷刺나 世態를 꼬집는 意味가 담겼다면 아마 이런 意味에서 노래했을 것이다. 그는 여기서 安陵, 龍陽의 부정적인 意象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킴으로서 逆으로 王에 대한 忠節을 지켜내지 못한 司馬氏를 겨냥한 諷刺인지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하고 단정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의미의 모호함은 한층 더 깊어만 간다.

《詠懷詩二十九》

昔余遊大梁 옛적에 내가 대량에서 노닐 적에
登于黃華顛 황화 산꼭대기에 올랐었다
共工宅玄冥 홍공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았는데
高臺造青天 높은 누각은 하늘에 닿았다.
幽荒邈悠悠 황막한 땅은 끝없이 펼쳐져
悽愴懷所憐 슬프고 애처로운 생각이드네
所憐者誰子 애처로운 자 누구인가?
明察自照妍 통찰력은 있으나 스스로의 노력만을 믿는 자
應龍沈冀州 應龍은 기주에 가라앉고
妖女不得眠 요녀는 잠들 수 없었다.
肆侈陵世俗 사치하여 세속을 멸시하니
豈云永厥年 어찌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阮籍의 活動 時期와 政治的 중심 무대는 당시 首都인 洛陽, 梁(지금의 河南 開封市 西北쪽)으로 政治的 位置는 그다지 중요치 않은 곳이었다. 《詠懷詩》十三, 二十九, 三十一首에서는 모두가 梁을 詩語의 對象으로 삼았으며 이는 戰國 時期 魏나라의 首都인 梁에 대해 틀림없이 깊은 意味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 詩에서 그는 魏 明帝의 放蕩하고 사치스런 行각으로 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한 財政的의 궁핍을 招來한 것을 諷刺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욱이 明帝가 임금의 資質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人事정책으로 결국에는 晉에게 亡하는 아픔을 안타까워했다⁴⁴⁾

다른 한편으론 曹爽과 何晏을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權力을 濫用하고 權威를 誇示하며 奢侈와 酒色으로 결국은 曹皇室의 敗亡을 招來한 人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共工, 妖女를 司馬氏를 諷刺한 것이라 하지만 사람들마다 意見이 紛紛하여 그 一致點을 찾기가 힘들다.

작품 중에 登場하는 人物인 共工, 應龍은 古代神話중의 人物로 古書중에서도 여러 說들이 존재한다. 복잡한 歷史的 原因으로 말미암아 中國 古代神話의 來歷이 혼란스럽고 그들

44) 許德南 《阮籍, 嵇康》 北京 中華書局 1983.1 p17

의 운명은 과연 어떤 결과로 幕을 내렸는지 그 상세한 內容은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阮籍이 생활하던 그 時期에는 아마 완전한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작품을 상세히 살펴보면 “幽荒邈悠悠, 悽愴懷所.” “應龍沈冀州” “妖女不得眠.” 이러한 表現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이들은 모두다 결국에는 悲慘한 終末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 일이다. 阮籍은 古代神話에서 登場하는 共工, 應龍등 才能이 傑出한 人物을 통하여 자신의 才能과 힘만을 믿고 專橫을 일삼는 이들의 悲劇적인 運命을 마치 인간들에게 이러한 哲學을 설명하는 듯하다. 그래서 末尾에는 共工, 應龍처럼 방자하고 많은 사람들의 怨聲과 怨望을 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에 結末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警告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具體적으로 누구에 대한 警告인지는 알 길이 없다. 내용상의 분위기로 보자면 共工, 應龍에 대한 態度는 矛盾된다. 才能이 傑出한 人物의 運命이 悲慘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同情心을 품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道德的 觀點에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두 人物들의 專橫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는 必然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3. 神仙類

대다수의 中國古代 知識人들은 神仙으로 象徵되는 不老長生の 追求를 중요한 關心거리로 바라보는 것은 했지만 그것을 實際로 믿는 것은 아니었으며 많지는 않지만 《詠懷詩》 속에는 단순한 現實 世界의 暗示가 아닌 眞實로 不死와 永生の 神的 境地의 즐거움을 神秘主義적인 形態로 提示하는 작품들이 보인다. 이러한 超越적인 試圖는 당연히 現實에서 起因된 것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神仙 存在에 대해 確信이 없었기에 그의 작품 속에서 언급된 神仙에로의 傾倒는 現實에 대한 葛藤과 現實 社會에 대한 失望을 表出하기 위한 暗示的 性格이 강하다. 그의 《詠懷詩》에는 확실히 神仙思想이 充滿하다. 八十餘首의 《詠懷詩》 중에 直接的으로 提示되는 王子喬, 赤松, 羨門, 浮丘公, 安期生, 西王母등 傳說 속에서 登場하는 神仙들이 적지 않다.

現實 逃避수단으로 神仙의 逍遙나 高상함을 憧憬한 《詠懷詩》十, 《詠懷詩》二十三, 《詠

懷詩》三十五,《詠懷詩》四十一,《詠懷詩》八十一首 등은 모두가 現實的인 苦悶을 克服하려는 노력의 意志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그의 《詠懷詩》는 사람들에게 神仙世界를 憧憬하는 마음들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는 이러한 神仙世界에서 자유롭게 노닐고 아무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심적 해방을 누리하고자 했을 것이다. 生命의 限界를 超越하여 俗世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社會의 壓迫과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神仙이 登場하는 작품을 살펴보자.

《詠懷詩十》

北里多奇舞 北里 에는 理想한 춤이 많고
 濮上有微音 濮에는 미묘한 음악이 있다
 輕薄閑遊子 경박하고 할 일없는 사람들은
 俯仰乍浮沈 時俗을 따라 부침하며
 捷徑從狹路 지름길로 좁은 길로 들어서며
 僂俛趣荒淫 애써 망당한 생활을 쫓아가네
 焉見王子喬 어찌 왕자교가
 乘雲翔登林 구름타고 숲을 지나는 걸 보겠는가
 獨有延年術 오직 延年術만이 있어
 可以慰我心 내 마음 위로할 수 있네

이 詩는 世俗人的인 放蕩하고 無道한 생활을 典故를 引用하여 神仙의 모습에서 자신을 처지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北里는 古代 춤의 이름으로 紂王은 樂師인 師涓으로 하여금 음탕한 음악을 새로 만들게 하였으며.”⁴⁵⁾ 그리고 춤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北里之舞,”라 하였다. 北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北里志》에 보이는데 여기에서 北里는 妓女나 舞姬들이 寄居하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⁶⁾ 결과적으로 北里는 요염한 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각종 이상한 춤들이 많은 곳을 말하는 듯하다. 濮上은 春秋時期에 濮水上以侈, 靡之音 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말로 後代에 와서 이를 일컬어 濮上을

45) 《史記·殷紀》 “紂使師涓作新淫聲 北里之舞, 靡靡之樂.”

46) 《北里志》: “平康里入北東門, 東門三曲, 卽諸妓所居之聚也”

淫蕩하고 放蕩한 소리에 代名詞로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亡國之音으로 認識 하였다. 微音은 가냘픈 음악소리를 가리키는 말로 魏 靈公은 濮水에 머물다가 그 소리를 듣고 師涓으로 하여금 기록을 命하였다.⁴⁷⁾ 商紂과 魏靈公은 本來 放蕩끼가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서는 放蕩하며 政事를 돌보지 않은 魏皇室에 대한 失望感 表現해 냈다.

“輕薄閑遊子, 俯仰乍浮沈,”은 오직 時俗만을 追求하고 荒淫에만 몰두하고 自由奔放한 生活와 現實 狀況에 따라 浮沈하는 이들을 “捷徑從狹路, 僂俛趣荒淫,”로 표현하고 正當하고 떳떳한 길을 원하기 보다는 단지 편리하고 빠르고 옳지 못한 좁은 길로만 가고자 하며 음탕한 生活만을 일삼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앞 四句는 당시의 鄧颺이나 何晏 같은 사람들을 諷刺하는 것이며 後四句는 阮籍 자신이 마음속의 또 다른 憧憬을 나타낸 것이라 했다.

“焉見王子喬, 乘雲翔登林,?” 이 두 句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너희들처럼 正當하지 못하고 여자나 놀음만 아는 자들이 어찌 王子喬와 같은 仙人의 境界를 알겠느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清代 曾國藩은 이를 두고 阮籍 자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말로서 神仙에 경지는 다가갈 수 없는 世界로 세상에는 神仙이란 없는데 내가 어찌 王子喬가 구름타고 鄧林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라는 懷疑的인 어투로 神仙에 경지에 이를 수도 또한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心境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자신의 심적 모순을 드러내는 의미인지 아니면 당시의 鄧颺이나 何晏같은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세계에 들어 설수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 인지 모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鄧颺이나 何晏같은 사람들 풍자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阮籍은 무수한 해석에 다양성을 제공하여 독자로 하여금 나름의 해석을 맡기는 느낌을 듯하다.

“獨有延年術, 可以慰我心,” 이 마지막 두 句 역시 評論家들이 해석하는데 있어서 見解를 달리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王子喬는 볼 수 없지만 그가 남긴 延年術은 여전히 남아 作者를 慰勞 한다는 意味로 보고 있으며⁴⁸⁾ 한편 이 구절을 放蕩과 奢侈를 일삼는 爲政者는 결코 王子喬같은 仙人을 볼 수 없다는 견해로 여기서 作者가 世俗人에 대한 蔑視의 뜻으

47) 《禮記·樂記》：“柔間濮上之音，亡國之音也”

48) 吳汝綸《詩紀》：“後四句倒語也。言生當亂世，獨有求仙之一法，而仙人不可見也。”

로 解釋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각가지 서로의 解釋이 다를지라도 作者의 世俗的 葛藤과 神仙의 延年術을 서로 對比하여 이것에서 派生되는 心的 葛藤을 表出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詠懷詩二十三》

東南有射山 동남쪽에 射山이 있는데
汾水出其陽 汾水는 그 북에서 흘러 내린다
六龍服氣興 여섯 마리 龍이 끄는 수레는
雲蓋覆天網 그 구름 뚜껑이 하늘의 법도를 덮는다
仙者四五人 네다섯 명의 仙人은
逍遙晏蘭房 유유히 노닐다가 蘭房에서 휴식하는데
寢息一純和 침식은 純粹로 통일하고
呼吸成露霜 호흡은 이슬과 서리가 된다
沐浴丹淵中 丹淵 속에서 목욕하고
照耀日月光 日月처럼 밝게 빛을 내며
豈安通靈臺 마음을 넘어서 즐겁고 편하게
遊瀟去高翔 공중에서 이리 저리 날아다닌다

이 詩는 神仙들의 日常을 노래한 것으로 神仙만이 누리는 幸福과 그들만의 생활을 描寫하고 있다. 《詠懷詩二十三》는 神仙을 통해 現實的인 고민을 克復하기 위해서보다는 自然과의 一致된 神仙들의 純化한 生活相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神仙 描寫는 莊子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⁵⁰⁾ 現實 世界를 脫皮하기 위한 구실로서가 아닌 俗世의 束縛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자유로운 햇빛 아래서 목욕을 즐기는 神仙들의 생활을 內心 憧憬한 듯하다. 그의 이러한 神仙 指向의 思想은 宗教的인 次元으로 발전 되어 神仙의 存在를 확신하고 神仙이 누리는 행복을 描寫하고 있다. 여기에서 阮籍은 射山에서 寄居하는 神仙들과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을 俗世와 멀리 떨어진 遙遠한 곳에서 사는 것으로 區分하고 있다. 여기

49) 以當時之事証之,如賈充之張水嬉以示夏充蓋閑游而趨荒淫者,豈知夏充乃乘云而翔之子喬哉.

50) 《莊子·逍遙遊》:藐山射之山有神仙居焉.肌膚若冰雪,淖約處子,不食五穀,吸風飲露.乘雲氣,御飛龍,而遊乎四海之外

에서 말하는 射山은 바로 《莊子.逍遙游》에 描寫된 內容으로 “有仙人居焉” 그들은 “乘六龍 服氣輿”로 非凡한 能力의 所有者들이며 또한 古代 神話와 傳說에 자주 등장하는 一般的인 神仙의 特徵이다. 그들은 모두 근심 걱정 없는 自由 自在한 생활로 일반인들의 생활 속의 束縛과 苦痛이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마음에 拘束에서 벗어나 逍遙하며 자유로운 境地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想像으로 이러한 理想世界는 그가 간절히 추구하는 境界였을 것이다.

阮籍은 이렇듯 思慕와 期待하는 心情으로 한 폭에 神仙世界의 生活을 描寫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思想의 心理的 根源은 바로 現實 社會의 環境에 대한 不滿에서 起因된다. 그는 神仙 世界에서의 自由, 平和, 逍遙의 생활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시의 現實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神仙世界의 생활과 선명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神仙의 세계를 동경하다가도 이러한 세계에 대한 회의적인 작품들도 보이는데 아래의 《詠懷詩》四十一를 보면 그의 神仙에 대한 심적 모순이 잘 드러나 있다.

《詠懷詩四十一》

天網彌四野	하늘에 망은 온 세상을 덮고
六翮掩不舒	날개는 덮여 펴지지 않는다
隨波紛綸客	분주한 무리들은
汎汎若浮鳧	마치 한 무리 물오리 떼 같구나
生命無期度	우리네 生命은 기약 할 수 없어
朝夕有不虞	朝夕을 예측할 수 없으나
列仙停修齡	神仙들은 수명이 확고하여
養志在沖虞	沖虞에서 기를 양생하며
漂漂雲日間	구름과 태양 사이를 표표히 노닐고
邈與世路殊	세속에 길과는 너무나 다르다.
榮明非己寶	명예나 명성도 그들의 보물이 아닌데
聲色焉足娛	聲色같은 것이야 어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랴!
採藥無旋返	불로초를 찾아 돌아오지 않으니
神仙志不符	神仙의 이야기는 들어맞질 않구나
彼此良可惑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의혹을 낳게 하여

令我久躊躇 오랜 세월을 머뭇거리게 하네

이 詩는 그의 理想 세계에 대한 憧憬과 渴望에 基礎하여 現實 세계에 대한 不滿과 증오를 나타낸 작품이다. 이러한 葛藤은 濟世의 欲求를 實現할 수 없고 또한 現實을 超越할 수도 없는 葛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葛藤은 그가 아마 평생을 품고 있는 情緒였을 것이다. 詩의 첫머리에서 比喻와 象徵으로 그의 葛藤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늘에 망은 세상을 덮고, 날개는 덮여 퍼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는 政治的 社會的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賢德한 선비들은 그들의 才能을 발휘할 수 없음을 象徵적으로 表現했다. 三, 四句에서 “분주한 무리들은 마치 물오리 떼 같구나.”는 政治的 變化에 따라 浮沈을 반복하는 機會主義者들을 象徵하고 있다. 자신을 큰새처럼 하늘 높이 날수도 없고 그렇다고 權力과 功名을 다투는 이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內的矛盾이 묘사 되어있다. 그러한 心理的 矛盾은 그의 작품 중에 자주 드러나 있다. 이 詩의 前 四句는 對比 手法으로 그의 心的 葛藤을 나타냈다. 五句이하 여섯句는 生命 無常과 험난한 世態와 榮譽와 名聲은 모두 다 영원하지 않음을 탄식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그는 俗世를 超越하여 雜念을 버리고 뜻을 키워 神仙이 되기를 渴望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採藥無旋返, 神仙志不符” “불로초를 찾으러가 돌아오지 않으니, 神仙의 이야기는 들어맞질 않구나.”로 神仙에 대한 懷疑와 疑心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意味를 內包하는 작품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阮籍은 現實 세계에 대하여 思慮 깊은 행동으로 자신의 處世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理想 세계의 虛構的 空間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意志는 실현될 수 없음을 스스로 느낀다. 그래서 阮籍은 이 詩의 끝부분에서 이러한 幻想에 대한 懷疑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마지막 두 구절은 直接的으로 마음에 담았던 心情을 토로한 句節로 理想 세계에 대한 懷疑에서 오는 아픔과 彷徨을 서술 하고 있다. 魯迅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런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에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며 阮籍은 이때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阮籍의 당시 심경을 이해하고 있다. 험악한 現實 社會 환경에서 幻想의 世界로의 아름다운 꿈이 忽然 깨어나 사라져 버렸을 때 그는 內心的 葛藤과 苦痛은 한층 더 심했을 것이다.

4. 隱居類

여기에서는 現實과의 괴리, 現實과에 鬪爭을 消極的으로 逃避하는 방법으로 隱居에 대한 결심을 표현한 작품 들이다. 그의 隱居觀念의 直接的인 原因을 찾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政治的인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心理的인 側面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전히 生命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權力과 富貴榮華를 추구하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悲鳴橫死 하는 것을 수없이 바라본 그로서는 차라리 隱居生活이 오히려 자유와 즐거움과 生命에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道家 哲學이나 玄學에서 自然을 崇尚하는 것과 魏晉南北 時期 詩歌에서 나타나는 神仙 思想과 隱逸 思想을 同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것을 阮籍의 思想을 理解하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데 사실상 이러한 견해는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다. 비록 연관성은 있으나 同一한것은 아니다. 이들은 별개의 것으로 서로 다른 思想과 價値 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道家에서 특히 《莊子》에는 많은 神仙들이 등장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神人, 仙人들은 단지 일종의 이야기일 뿐이며 道家에서 말하는 자연 숭상 자아 초월의 世界는 단지 象徴的인 힘일 뿐이다. 이 당시 隱逸은 순수한 자연 숭상이나 神仙世界로의 동경이라기보다는 生命에 대한 집착과 政治的인 실망감에서 오는 일종의 逃避的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阮籍이 現實 參與를 강렬히 願하였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不滿과 抵抗이 담겨있는 작품들로 《詠懷詩》 六, 四十三, 四十六首를 살펴보기로 하자.

《詠懷詩六》

昔聞東陵瓜 듣건 데 옛날 東陵候는
近在靑門外 장안 성 남쪽 밖에서 참외밭을 일구며 살았네
連畛距阡陌 밭두렁에는 넝쿨이 연이어 좌우로 이어져
子母相鉤帶 크고 작은 참외 마치 모자처럼 연이어 붙어있네.
五色曜朝日 아침햇살 영롱히 참외를 비추니
嘉賓四面會 귀한 손님들 사방에서 몰려드네

膏火自煎熬 기름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 듯
多財爲患害 많은 재물은 근심과 화를 부르네
布衣可終身 남루한 옷 걸치고 한평생을 살아도 그만인 것을
寵祿豈足賴寵愛와 俸祿은 어이 믿을만한 것인가

여기에서 阮籍은 참외를 심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邵平의 故事를 통해서 莊子의 “無用”을 引用하여 生命을 보존하는 道理를 나타내고 있다. 生命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그리고 政治的 투쟁에서의 超越을 渴望하는 내용이다. 그는 여기에서 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詩語로 서술했으나 이러한 表面的인 평온함 裏面에는 오히려 아주 깊은 아픔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의 작품 전반에 깔려진 분위기라 할 것이다.

玄學家라 할 수 있는 阮籍은 《詠懷詩》에서는 그의 內心的 葛藤 世界와 現實 社會와의 관계가 비교적 近接해 있으나 그의 저서인 《達庄論》이나 《大人先生傳》 등의 글은 그의 理想世界에 대한 表現이 많고 現實 社會와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 그는 現實 生活에서 수시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 하면서 喜怒哀樂이나 悲憤과 憂慮등의 감정 露出은 자연스런 현상 일 것이다. 그러나 玄學 理論에 의한 理想 世界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慰勞하고 답답한 心境을 토로 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단지 超現實的인 想像의 世界에서는 단지 바라볼 수만 있는 접근 할 수 없는 彼岸에 世界일 뿐 이다.

사실 그는 진정으로 現實을 超越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에 마지막 인생까지 진정으로 生死와 現實에 대하여 超越에 이른 적이 없는 것 같다.

魏晉 交替期에 잔인한 權力 暗鬪 중에 수없이 많은 名士들이 목숨을 잃었다. 嘉平元년에 대량 죽임을 당한 거나 嘉平 五年과 景元 三年에 嵇康과 呂安등의 죽음은 阮籍으로 하여금 커다란 教훈을 남겼을 것이다. 죽음을 당한 名士들은 대부분 政治的 鬪爭過程과 直接 關聯이 있는 人物들로 처음에는 統治 集團의 信望을 얻었으나 이러한 榮譽와 寵愛로 인하여 不幸한 結果를 招來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邵平은 나라가 亡하자 東門밖으로 가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참외를 심으며 隱居하면서 生命을 保全했다는 歷史的 故事를 인용한 부분이다. 이것은 逆으로 莊子의 “無用之用”의 理論을 證明하는 것으로 阮籍이 이러한 典故를 인용하여 자신의 感情을 表現함과 동시에 자신을 警戒하는 것으로 삼았을

것이다. 阮籍은 비록 邵平처럼 隱居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政局에 不安과 到處에 도사리는 生命의 危險을 認知하고는 政治적으로 대단히 慎重한 態度를 취했다. 그러한 예로 그는 여러 차례 曹魏의 부름을 받았으나 갖은 핑계로 거절한 것이나 司馬氏 政權下에서도 술을 핑계 삼아 司馬氏의 請婚을 拒絕하며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스스로 政治的 鬭爭에 휘말려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그는“膏火自煎熬, 多財爲患害”(기름은 스스로를 태워 없애 듯 많은 재물은 근심과 화를 부르네.)라는 깊은 意味를 알았을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다툼에서 어떤 한쪽의 寵愛도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스스로가 超然한 態度를 堅持하는 것만이 죽음의 禍를 모면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상은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한 表面的인 解釋으로 人間事에 盛衰와 貧賤 富貴에 無常함을 적고 있다. 이러한 富貴 榮華는 한 순간이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平民으로서의 平凡한 생활이 더욱 값있는 삶이다 는 內容이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의 意味를 당시의 時代的 狀況과 政治的인 事實을 結付하여 事物이나 典故에 빗대어 자신의 心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阮籍의 諷刺 對象이 주로 曹魏나 司馬氏인데 여기에서는 司馬氏를 諷刺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鐘會는 司馬氏를 위해 忠情을 다하였으나 후에 司馬氏에 의해 悲慘한 最後를 맞은 사람이다. 또 다른 한 사람으로는 成濟를 들 수 있는데 그는 曹髦를 暗殺한 사람이다. 그는 魏太子의 庶人으로 후에 司馬昭에게 간 사람이다. 曹髦가 군대를 이끌고 司馬昭를 공격할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主君을 죽이고 司馬昭편에 들었으나 司馬昭는 오히려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成濟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뒤 죽여 버렸다. 이처럼 鐘會나 成濟 이 두 사람은 참외나 심으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평민보다도 못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諷刺한 것으로 權勢만을 追求하는 결과는 좋은 最後를 맞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政治的 현실에 결부하여 이러한 삶이 결국은 生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임을 스스로에게 위로하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듯 그의 작품은 표면상으로는 극히 평범하면서도 內面的인 情緒의 意味는 헤아릴 수조차 힘들 정도로 깊은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아래의 《詠懷詩》四十三도 또한 그의 感

慨가 아주 깊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詠懷詩四十三》

鴻鵠相隨飛 鴻鵠은 서로 뒤 따르며 날아
飛飛适荒裔 날아서 세상 끝에 이른다
雙翮臨長風 날갯짓하며 바람 위에 올라
須臾万里逝 순식간에 万里를 달린다
朝餐琅玕實 아침으로 琅玕의 열매를 먹고
夕宿丹山際 저녁은 丹山 가에 가서 머문다
抗身青云中 푸른 구름 위로 떠오르니
網羅孰能制 어떤 그물로 그것을 잡을까?
豈与鄉曲士 어찌 우둔한자 들과 더불어
携手共言誓 손잡고 맹세를 말하리

이 詩는 比喻와 象徴的인 手法을 使用하여 詩人의 超越的인 世界와 세상에 대한 不滿과 鬱憤을 表現하고 있다. 이 詩에서 주요한 象徴 對象은 鴻鵠으로 《詠懷詩》二十一에 나오는 玄鶴과 《詠懷詩》七十九의 鳳凰은 같은 象徴的 意味를 갖는다. 이들이 갖는 共通的인 特徵은 高潔하고 俗世를 벗어난 現實 超越이다. 이들은 모두 홀로 悠悠自適하게 스스로를 즐기는 世俗을 超越하는 情緒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象徴的인 意味로 高潔함과 超越的인 삶을 나타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짙은 悲劇의 色彩가 드리워져 있다.

鴻鵠이 “抗身青云中”은 인간 세상에 처진 網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구름 위를 나는 玄鶴 또한 “抗志揚哀聲”은 슬픈 울음소리를 길게 내품는 것이며 鳳凰은 “但恨處非位, 愴恨使心傷” 나지막이 한없는 아쉬움과 感慨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象徴 對象物인 玄鶴, 鳳凰, 鴻鵠은 사실 阮籍 자신의 신세와 運命을 象徴한다 할 것이다.

象徴的 比喻 手法으로 思想的 感情과 情緒를 表現하는 手法은 阮籍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先秦 哲學家인 莊子와 屈原, 宋玉 등 楚辭 作家들이 이러한 方式으로 意味를 傳達하는 手段으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을 賢臣이라는 假定하에 鳳凰,이나 鷲鳥, 黃鵠 등에 比喻하지만 小人를 比喻 할 때는 燕雀이나 烏鵲, 鷄鶩등으로 比喻한다.⁵¹⁾ 이 작품의

構成과 象徵的 比喻는 확실히 上述한 作家들의 影響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詩 중에서 비록 世俗을 벗어난 超越的 情緒를 노래하지만 高潔히 자기 本分을 지키고 生命을 維持하고자 하는 情緒가 始終 一貫 重要的 位置로 자리 잡고 있다.

《詠懷詩 四十六》

鸞鳩飛桑榆 비둘기는 뽕나무, 두릅나무 위를
 海鳥運天池 海鳥는 天池 위를 나른다
 豈不識宏大 어찌 바다가 크고 넓은 줄을 모르리
 羽翼不相宜 날개가 적당하지 못 할 뿐이로다
 招搖安可翔 높이 치솟아 멀리 날 수 없으니
 不若栖樹枝 나뭇가지에 머무르는 게 더 나으리라
 下集蓬艾間 아래로는 쭉 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上游園圃籬 위로는 정원 울타리에서 노닌다
 但爾亦自足 단지 스스로를 만족하며
 用子爲追隨 새끼들을 데리고 이리 저리 노는데

《詠懷詩》二十一, 四十三, 七十九에서 鴻鵠, 玄鶴, 鳳凰등이 象徵的 色彩로 對象을 描寫하고 그의 超現實的인 情緒와 現實 世界에 대한 아쉬움과 鬱憤을 表現했다면 이 작품과 《詠懷詩》八은 이것들과는 正反對의 象徵的 對象인 鸞鳩과 燕雀을 들어 혼란스런 世態와 혼탁한 政治的 環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相反된 情緒는 그의 心理的 情緒에 兩端面을 잘 보여준 부분이다. 그는 玄學 思想을 바탕으로 超現實을 나타내는 반면에 어둡고 혼탁한 現實에 대한 批判과 不正을 토로 하고 있다. 이는 阮籍 思想의 독특한 일부로 混濁한 社會의 抑壓된 環境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動搖하는 다른 한 면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豈不識宏大, 羽翼不相宜”와 八首의 “黃鵠飛四海, 中路將安歸?”에서 그는 결코 天池를 나는 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단지 날개가 날기에는 적당치 않음을 염려 하고 있다. 魏晉 交替期의 政治的 激變期에 살았던

51) 《離騷》: 鸞鳥之不群兮, 自前世而固然。《涉江》 鸞鳥鳳凰, 日以遠兮, 燕雀, 烏鵲, 與巢堂壇兮。
 《卜居》: 寧與黃鵠比翼乎? 將與鷄鶩爭食乎? 宋玉《九辨》: 鳧雁嗚夫梁藻兮, 鳳愈飄翔而高舉。

그는 비록 現實을 超越하고자 하는 意志를 품었으나 결국은 일평생 어쩔 수없이 司馬氏 밑에서 걸어나마 同調 할 수밖에 없는 現實과 妥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詩에서는 阮籍이 現實과의 妥協의 意味가 集中的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이 阮籍과 嵇康에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司馬氏로 하여금 阮籍의 일련의 突出 行動을 理解하게 하였으며 嵇康과 正反對에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原因은 그는 政治的으로 慎重한 態度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現實 狀況과 妥協을 할 줄 아는 智慧로운 면이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嵇康의 性格은 直線的이며 始終一貫 司馬氏의 好意를 無視하고 世俗의 禮敎와 어떤 妥協도 원치 않았기에 이로 인해 서로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詩에서 두 가지 象徵的 對象은 모두 《莊子. 逍遙遊》에서 引用된 句節로 海鳥는 大鵬을 鸞鳩는 斑鳩를 意味하며 이 두 對象의 對比가 매우 명확하고 강렬하다. “豈不識宏大, 羽翼不相宜”는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 理想과 본뜻이 아니고 외부 環境의 壓力에 의해 어쩔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높은 官職을 탐하지 않으며 功名을 다투지 않은 것은 그가 능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목숨을 維持하기 위한 주요한 策略 이었을 것이다.

5. 哀傷類

阮籍이 살았던 時期가 魏 晉 交替時期인 政治的으로 매우 혼란 하여 內部 鬪爭이 날로 심해가는 時期이다. 일부 知覺 있는 선비들은 曹魏의 腐敗와 無能으로 인한 不滿도 컸으나 더욱이 恐怖 政治를 일삼는 司馬氏의 暴政에 의하여 늘 生命의 두려움으로 날을 보내는 실정이었다. 西紀 二四九年 司馬懿가 登極하면서 당시 많은 文人들도 수차례 政治的 逼迫과 威脅 속에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다. 阮籍은 이 같은 험악한 社會 環境 중에서 단지 술과 淸談으로만 자신을 달랠 수 있었을 뿐 政治的인 일에는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이러한 자신의 運命의 비애를 그린 작품들로 그는 詩를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極端的인 苦痛과 마음속에 鬱憤을 表現 할 수 밖에 없었다. 司馬氏의 政權 奪取 과정을 전후

하여 失意와 悲哀를그린 작품들로 時代的 암흑상에 대한 恨이서려 있는 작품들이다. 여기에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오는 아픔과 비애를 그린 작품들로 《詠懷詩》三. 七. 九. 十四 . 六十六. 七十, 八十 중에서 《詠懷詩》三. 七. 八十을 살펴보기로 하자.

《詠懷詩三》

嘉樹下成蹊 좋은 나무아래 길이 생기니.
 東園桃与李 동쪽정원에 복숭아 자두나무가 있음이라.
 秋風吹飛藿 가을바람이 콩잎을 흔들면
 零落從此始 이때부터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네.
 繁華有憔悴 화려했던 것은 초라해 지고
 堂上生荆杞 대청에는 가시나무 자란다.
 驅馬舍之去 말을 몰아 이곳을 떠나서
 去上西山趾 서산의 기슭에 오른다.
 一身不自保 내 한 몸도 보전하지 못하면서
 何況戀妻子 어찌 처자를 그리워하겠는가?
 凝霜被野草 된서리 풀잎에 맺히니
 歲暮亦云已 한 해가 또 저물었다는 것이리라.

季節의 변화에서 오는 주위의 草木들의 繁盛과 衰落에 비유하여 權力 構圖의 變化에서 오는 자신의 슬픈 처지와 깊은 우려와 비애가 드리워져 있는 작품이다. 이 詩의 내용은 全體的으로 크게 兩分 하여 볼 수 있다. 앞 여섯 句는 주로 盛衰와 富貴 榮華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象徵的 수법으로 당시 社會環境과 政治的 現實을 굴곡 있게 反映했다. 처음 두 句는 《史記.李將軍列傳》중 “桃李不言, 下自成蹊”:(복숭아 나무, 자두나무는 말이 없는데 그 밑에는 길이 생겼네.)에서 말이 약간 변화해서 빌려 온 것이다. “秋風” 이하 두 句는 桃李를 포함해서 모든 草木들이 싸늘한 가을바람에 어김없이 그 무성했던 잎들이 말라 시들게 될 것이란 것을 描寫한 대목이다. 句節중에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과 무성한 桃李나무 가지와 잎을 一衰 一盛, 一枯 一榮, 一亡 一興을 對比시켜 剛烈하면서 鮮明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繁華”의 이 詩語도 모든 富貴 榮華는 언제인가는 衰落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名譽와 富를 누리다가 밀려나면 가을의 서리 맞은 초목처럼 초라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란 것이다.

뒤 여섯 句는 阮籍이 混沌의 時代에서 禍를 면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驅”는 그 절박함을 드러낸 詩語라고 할 수 있다.

그는 伯夷와 叔齊처럼 西山에 隱居하고자 하는 心情을 노래한 대목으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스스로를 자책하는 심경으로 모든 것을 버리려는 態度로 보인다. 이는 당시 統治者들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어두운 現實에대한 강한 憤慨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시 自然의 風景을 描寫 하는데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들판에 잡초들은 차가운 가을 서리로 말미암아 시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禍를 면할 수 있는 時期를 놓치면 그 결과가 어찌하리란 것을 暗示하는 대목이다. 이 詩의 특징은 自然의 섭리를 빌어 “桃李”를 比喻하여 세상사와 人生의 盛衰 榮枯들의 비애를 은밀히 暗示하고 있다. “秋風”, “凝霜” 등은 당시 權力者들의 權威를 象徵하는 意象들로 이것은 당시 가혹한 政治的인 탄압을 象徵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詩에 전체 內容의 情緒가 表面적으로는 自然의 순환에서 오는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면서 비애와 고통에 젖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내심은 현실 政治的 현실에 대한 아픔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詠懷詩七》

炎暑惟茲夏 이번 여름 더위는 타는 듯하더니.
三旬將欲移 어느덧 가을에 문턱에 섰구나.
芳樹垂綠叶 향기로운 나무에는 푸른 잎 드리워져
靑雲自逶迤 푸른 구름 혼자서 이리 저리
四時更代謝 계절은 바뀌어 또 한 계절이 가고
日月遞差馳 해와 달은 차례차례 바뀐다.
徘徊空堂上 空堂에 홀로 이리저리 배회하며
切怛莫我知 나를 알아줄 친구 없음이 근심스럽고 슬프다.
願觀卒歡好 원컨대 이별의 슬픔 없이
不見悲別離 즐거움과 기쁨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이 《詠懷詩七》 또한 阮籍의 깊은 아픔과 悔恨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표면상으로는 季節의 變化를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炎暑, 茲夏는 六月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더운 날이 지나감을 表現한 것이다. “三旬將欲移” 여기에서 一旬은 열흘을 가리키니 三旬 즉 무더운 六月 한 달이 가고 곧 季節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 芳樹垂綠叶, 靑云自逶迤. 여기에서 芳樹는 아름다운 나무를 이르는 말로 여름날 나무가 茂盛하게 자라서 푸른 잎이 아래로 늘어져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진 풍경을 그려냈다. “靑云自逶迤” 여기에서 逶迤는 어떤 事物이 비스듬히 기우러져 구불구불 기다란 모양을 形容하는 것으로 詩語의 意味로만 본다면 하늘에 얽은 구름을 말하는 것으로 淸明하고 상쾌한 모습을 形容하고 있다. 여기서 “靑云”은 다른 版本에는 淸으로 씌어져 있고 어떤 板本에는 靑로 되어 있는데 비록 뜻은 다를 지라도 이 모두 구름을 形容하는 말이다. 劉履은 그의 《選詩補注》靑云의 意味를 “綠叶垂蔭之象”으로 나뭇잎에 의해 생겨난 그늘로 解釋하는데 아무래도 구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앞 句節에 이미 “芳樹垂綠叶” 씌어져 있는데 反復해서 나무의 그늘을 구름에 形象으로 형용한다면 앞 句節과 서로 重複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푸른 나무 그늘과 푸르고 맑은 하늘과 구름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이 짧은 여름 한 달이 덧없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며 “四時更代謝, 日月遞差馳”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四時は 四季節을 意味하며 更은 반복의 意味로 쓰였다. 이는 四季節이 反復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한 季節 한 季節이 저물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日月遞差馳” 하늘에 태양과 달이 서로 연이은 반복을 거듭하며 나타나는 形象을 말하는 것이다. 《文選》에서 五臣의 解釋은 해와 달이 연이여 뜨고 진다는 意味로 어떤 일정한 질서에 따라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식의 反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黃節은 이와는 다르게 보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解釋은 아마 정확한 것이 아니며 마땅히 無秩序하게 反復되는 形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모습을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실려 있다. “徘徊空堂上, 忉怛莫我知.” 季節은 바뀌기를 반복하고 해와 달은 덧없이 뜨고 지는데 阮籍은 자신처럼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도 함께할 친구도 없는 아픔을 한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텅 빈 공간에서 홀로 徘徊하는 쓸쓸한 形象으로 자신의 깊

은 아픔을 理解해줄 친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愿觀卒歡好,不見悲別” 마지막 句節에서는 이처럼 짧고 無常한 四季節의 變化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슬픔이 잘 나타나 있다.

《詠懷詩八十》

出門望佳人 문밖을 나서 佳人을 바라지만
 佳人豈在茲 어찌 佳人이 이곳에 있을까?
 三山招松喬 삼신산에 올라서 적송자와 왕자교를 부르니
 萬世誰與期 지나간 세월 그 누가 그와 함께 하였을까
 存亡有長短 인간사 언젠가는 죽으니
 慷慨將焉知 슬피한들 무얼 알리오.
 忽忽朝日隕 아침 해는 빠르게 서산으로 기우니
 行行將何之 이리저리 헤매다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不見季秋草 늦가을 풀들이 보이지 않은 것은
 摧折在今時 최근에 바로 다 시들어 꺾어진 게 아닐까?

悲痛함과 絶望감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悲劇的인 情緒가 짙게 깔려있는 內容이다. 이 詩의 첫 句節에서 佳人도 만날 수 없고 神仙들도 만날 期約이 없음을 哀痛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는 阮籍 자신이 품었던 理想과 希望에 대한 期待가 한낱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失望과 挫折에서 오는 心境을 노래하는 句節이다. 人間 生命의 무상함을 아침 햇살과 해가 서산에 기우는 것으로 人間 生命의 마지막 장면을 象徴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典故의 인용은 그의 《詠懷詩》 전반에 걸쳐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表現方式이다. “行行將何之”는 그의 理想과 希望이 무너진 후 그를 엄습하는 두려움과 방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두 句는 늦가을의 풀들이 시들어 가는 것으로 그의 험난한 앞날의 운명을 比喻한 것이다. 이는 당시 政治的 社會的으로 혼란하고 험난한 時期로 자칫 행동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들이 마치 現實로 다가와 자신의 운명이 한낱 늦가을에 들풀처럼 죽어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과 슬픈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의 情緒는 《詠懷詩》三과 매우 흡사하다. 절박감이 감도는 音律이나 疑問句를 사용하면서 感歎句로서 結末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초조함과 마음속 悲哀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詠懷詩》三에서 “驅馬舍之去, 去上西山趾.” 그나마 西山으로 逃避할 할 곳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을날의 들풀처럼 그냥 運命을 맞이하는 길 외에는 이미 어떠한 출구도 없음을 의미 한다. 사실 佳人과 松喬는 모두 阮籍 자신의 理想 世界에 대한 象徵的 對象들로 實質的으로 存在하는 對象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藝術的 技法은 屈原에서 시작하여 曹植에 이르기 까지 廣範圍하게 사용된 表現 手法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屈原의 賦에서의 美人은 그 마음속에서 渴望하는 美政 曹植의 작품 중의 美人은 간혹 자기 자신의 化身으로 阮籍의 마음속의 美人 즉 佳人是 자신의 精神的 理想 世界를 나타내는 것이다. “佳人不見”은 자신의 理想 世界の 파괴를 意味하며 이로 인해 더욱더 깊은 시름과 絶望의 世界로 가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意味 하는 것이다.

6. 生命類

生命에 대한 無常을 恨歎하는 內容은 阮籍의 《詠懷詩》의 主要 主題 중에 하나 이며 모두 각기 다른 角度에서 이 공통의 主題들을 表現해 냈다. 이외에도 神仙類에서도 生命 無常의 깊은 시름과 탄식을 노래하는 부분이 많다. 儒家에서는 生命의 社會的 價値를 重視한 반면 道家는 生命의 自我 價値를 重視한다. 예를 들면 司馬遷은 宮刑을 당하였음에도 여전히 史記 기록에 혼혈을 쏟아 史記를 완성한다. 이러한 것은 個人 生命의 社會的 價値를 重視는 儒, 道家가 본래 각각의 價値觀에서 의해 實現 된 다는 의미일 것이다. 儒家에서는 葬禮를 성대히 오래 동안 치르기를 주장하지만 죽음에 대한 견해는 오히려 간단해서 그들은 政治的 思想을 實現할 수 만 있다면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孔子의 “朝聞道, 夕死可矣”는 이런 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道家에서는 生命에 존재를 하나의 自然 現象으로 認識한다 죽음도 일종의 自然 現象으로 단지 生命 存在에 대한 다른 形式일 뿐 라는 것이다.

儒家 思想의 영향 밑에 있었던 先秦兩漢 時期的 작품들 중에는 거의 이러한 침울한 우려와 생명에 대한 탄식 작품을 볼 수 없다. 그러나 漢末에서 魏晉에 이르는 사이 儒家의 衰退와 道家의 대두로 전통적인 生命 價値觀이 무너지면서 思想 또한 중대한 變化를 맞게 된다. 게다가 빈번한 戰爭과 疾病, 飢餓로 인한 人命이 무수히 犧牲되는 상황에서 過去 옛 전통적인 標準과 信仰 價値에 대한 懷疑와 否定으로 흐른다. 이러한 思想的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生命과 運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오랜 政治的 혼란 속에서 生命에 대한 危機를 느끼고 人間 生命에 대한 깊은 애착을 담은 內容들로 《詠懷詩》四, 五十二, 八十二 살펴보기로 한다.

《詠懷詩四》

天馬出西北	천마는 서북쪽에서 나서
由來從東道	동쪽 길을 따라서 온다
春秋非有托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으니
富貴焉常保	富貴 榮華가 어찌 영원하리
清露被皐蘭	맑은 이슬 皐蘭에 덮이고
凝霜沾野草	된서리는 들풀을 적시네.
朝爲媚少年	아침엔 젊은 少年이었던만
夕暮成丑老	저녁에는 추한 늙은이 되었네
自非王子晉	王子晉을 제외하고는
誰能常美好	누가 부귀영화를 영원히 지킬 수 있으랴

阮籍의 이 詩는 그의 근심과 슬픔은 社會 環境에 대한 깊은 憂慮로 인한 生命 價値에 대한 懷疑와 연민을 그려냈다. 榮華의 歲月은 영원할 수 없으니 富貴인들 어찌 保存할 수 있겠는가? 봄 이슬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가을 서리가 홀연히 내리니 아침에는 소년 이었는데 저녁에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사람은 다 늙고 죽으니 오직 神仙만이 不老長生하네. 이 詩의 全體的 意味는 아주 확실하다. 단지 天馬에 대한 來歷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데 張琦는 이 부분을 比喻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天馬라는 詩語로 봄가을에 정취

를 이끌어 낸 것 일뿐 그다지 깊은 意味가 없다. 단지 이를 이용하여 아래 문장의 시작일 뿐 이어서 이를 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²⁾ 이 작품에는 比喻 및 對照 手法도 보인다. 즉 아침 이슬을 젊은 날의 소년으로 서리를 老年의 삭막함으로 比喻 하고 있으며 또한 北과 東, 露와 霜, 朝夕을 少老 등으로 時空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詩語들이다.

“天馬出西北, 由來從東道”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의 “自非王子晉. 誰能常美好”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영원히 掌握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두절은 “天馬”를 들어 분위기의 興을 일으키고 있다. 天馬는 원래 中國의 西北쪽에서 나는 馬이다.⁵³⁾ 그런데 무슨 이유로 동쪽으로 왔는가? 阮籍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일들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 天馬와 같은 좋은 말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比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는 대목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 같은 心情으로 “春秋非有托, 富貴焉常”의 슬픔을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托은 멈춘다는 意味의 止의미이다.⁵⁴⁾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기 마련이며 四季節이 멈추지 않고 돌면서 變化하는 것처럼 자연에 현상은 쉽 없는 變化를 거듭한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이어서 浮沈과 興亡 盛衰를 반복 하면서 循環하는 것이며 이러한 循環은 必然的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富貴榮華도 언제 가는 變하고 영원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清露被皐蘭. 凝霜沾野草.” 물가의 蘭花는 봄에는 정말 푸르고 무성하여 너무 보기 좋은데 때가 되면 차가운 이슬이 蘭花에 뒤덮여 차가움에 겨워 결국에는 지고 말 것이다. 이보다 더 추워져 서리가 내릴 때면 들꽃들도 모두 추위에 말라 죽는다. 이러한 表現은 《詠懷詩》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으며 여기서 “清露被皐蘭. 凝霜沾野草.” 두 句는 意味가 중복된 느낌이지만 앞 구절 보다 뒤 구절이 무게감을 더한다. 清露에서 凝霜로 皐蘭에서 野草로 결국에는 山野의 모든 식물은 늦가을이 되면 어느 하나도 된서리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며 이러한 계절의 변화처럼 인간의 興亡과 生死도 이와 같을 것이다 고 적고 있다.

52) 張琦: “天馬二句喻司馬有必興之勢”

五臣: “天馬從西而來, 喻萬事不定”

53) 《史記·大宛 列傳》: 初得烏孫馬好, 名曰天馬, 及得大宛汗血馬, 益壯, 更名烏孫曰, 西極大宛馬曰 “天馬”

54) 鄭玄, 《禮記注》: “托. 止也”

“朝爲媚少年，夕暮成丑老。” 여기에서 朝，夕이라는 詩語로 인간의 짧은 生을 比喻하여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걸어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지난 젊은 날들이 마치 朝夕之間에 일어난 변화처럼 인생이 덧없이 지나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년을 아침에, 노인을 저녁에 比喻하여 對比시킴으로서 변화의 색깔을 극대화 한 점이 돋보인다.

“自非王子晋，誰能常美好.” 마지막 절에서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富貴榮華나 權勢도 영원히 붙들 수는 없으며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혹 王子喬같은 神仙이라면 모르겠지만 하고 結末을 한다. 여기서 神仙의 故事를 빌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王子喬같은 神仙이 없고 어차피 우리는 神仙도 아닌데 어찌 어느 것 하나라도 영원히 붙들 수 있겠느냐고 反問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표면상으로 보면 단지 일종의 興亡 盛衰와 季節의 無常한 變化를 슬퍼한 것 같지만 이 內容은 司馬氏를 염두에 두어 지은 것이라 한다.⁵⁵⁾ 이러한 해석은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생명무상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순환의 섭리로 司馬氏를 諷刺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러한 각도를 다리하면 색깔도 달라져 보이는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詠懷詩》가 가져다주는 매력 일 것이다.

《詠懷詩五十二》

十日出暘谷 열개의 해가 暘谷에서 떠서
 弭節馳万里 일정하게 천천히 만 리를 달린다.
 經天耀四海 하늘을 지나면서 온 세상을 비추고.
 倏忽潛蒙泛 순식간에 몽극으로 사라진다.
 誰言焱炎久 누가 태양이 영원토록 빛을 낸다 했는가?
 游沒何行俟 떠다니다 사라지니 가다가 멈추는 것인걸.
 逝者豈長生 가버린 자가 어찌 오래 산 것인가?
 亦去荊与杞 그 역시 가시덤불에 덮이고 만 것을
 千歲猶崇朝 천 년의 세월도 한나절 잠깐으로
 一餐聊自己 한 끼 정도 시간이면 그대로 그만인 것을

55) 陳沆 《詩比興箋》의 《阮籍詩箋》 正生書局 臺北 1975

여기에서 그는 이 시를 司馬氏를 諷刺하는 작품으로 보았다

“馬出西極，途非不遠，孰召使來？則由東道主人之，猶司馬氏本人臣，而致使有禪代之勢，非世上者致之有漸乎？”

是非得失間 시비와 득실 사이에서
 焉足相譏理 어찌 비방하고 따지는가.
 計利知術窮 이익을 따지면 지술이 궁해지니
 哀情遽能止 슬픈 감정 마침내 멈추어지리.

生命의 無常과 人生의 덧없음을 탄식하는 하는 것이 《詠懷詩》의 주요한 主題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인생의 짧은 세월을 玄學的 人生觀으로 人間事를 굽어보며 하늘에 대한 怨望과 사람에 대한 失望을 정면으로 描寫하지 않았다. 첫 여섯 句節은 古代 神話를 引用하여 낭만과 과장된 筆法으로 日出과 落照의 풍경을 描寫했다. 그는 일출에서 일몰의 자연현상을 통하여 인간 세상과 만물은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은 서서히 일몰에 다가 서고 있는 중이며 화려했던 權勢나 榮華도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변할 수 있다는 추론인데 道의 觀點에서 본다면 千年이란 세월도 단지 잠시 머무는 순간 일 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이 짧은 인생 중에 사람들은 오직 名利를 위해 서로 다투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음과 정력을 다 낭비해 버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智略과 술수는 언제인가는 限界가 오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슬퍼지니 스스로 슬픔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得失과 利害를 따진들 인간에 지략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고집하기에 슬픈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른 견해는 스스로 자신의 지략과 술책에 한계를 인식하면 이러한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解釋이 가능하다. 陳沆은 阮籍의 《詠懷詩》를 단지 比興에 입장에서만 解釋하려한다⁵⁶⁾. 그는 《詠懷詩》작품에 대한 解釋에 있어서 나름의 견해를 피력 했는데 그는 “이 詩는 達觀하여 스스로 마음속에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 하늘을 가로 질러도 때가되면 서산에 기운다. 運이란 것은 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착점 이란 게 있다. 漢이 滅亡하고 魏가 일어났으

56) “이 詩는 達觀하여 스스로 마음속에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 하늘을 가로 질러도 때가되면 서산에 기운다. 運이란 것은 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착점 이란 게 있다. 漢이 滅亡하고 魏가 일어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亡했으니 그렇다면 司馬氏 集團도 이 역시 이러한 前轍을 밟을 것이다. 興盛하고 沒落하고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이니 謀略과 術數는 目前에 것일 뿐 내가 보니 오늘과 옛날은 아침과 저녁 같은 것이니 이도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黃沆說“此達觀自遣白日經天有時淪沒;運無常降,理有終極,漢滅魏興,不旋踵而魏蹙;則將來典午之潛替,亦可俟也. 盛衰起伏,愚計目前;達人曠觀,今古旦暮,則今古何足深較哉!”

나 얼마 되지 않아 亡했으니 그렇다면 司馬氏 集團도 이 역시 이러한 前轍을 밟을 것이다. 興盛하고 沒落하고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이니 謀略과 術數는 目前에 것일 뿐 내가 보니 오늘과 옛날은 아침과 저녁 같은 것이니 이도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결부한 해석은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부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간에 漢이 멸망하고 魏가 일어났으나 얼마 되지 않아 망했으니 그렇다면 司馬氏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諷刺的인 입장에 달라붙은 느낌이다. 물론 阮籍이 가장 격렬한 政權 鬪爭의 중심기에 생활했기 때문에 “計利知術窮, 哀情遽能止.” 이러한 비통하고 슬픈 감정은 바로 現實 社會에 대한 진정한 경험일 것이다. 이러한 “千歲猶崇朝” “一餐聊自己.” 이것을 老莊思想 입장에서 본다면 本質的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지만 사람들이 名利를 위해 싸우는 것은 극히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阮籍이 몸소 겪은 경험과 개인적인 아픔은 도리어 오랜 동안 삶속에서 잊혀 지지 않고 강하게 남아 있어서 “哀情遽能止”는 司馬氏 집단도 이 역시 이러한 前轍을 밟을 것이다. 라는 解釋은 또한 근거가 희박하다.

《詠懷詩八十二》

墓前熒熒者 묘 앞에 빛나는 것은
木槿耀朱華 아름답게 피어난 무궁화이구나.
榮好未終朝 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건만
連颿隕其葩 씩 없는 바람에 꽃잎을 떨 구는구나.
豈若西山草 어찌하여 서산에 풀이
琅玕与丹禾琅玕 와 丹禾처럼
垂影臨增城 겹겹이 싸인 성에 그림자 드리우고
余光照九阿 넘치는 빛을 九阿에 빛낼 수 있을까?
宁微少年子 비록 나이 어린 少年일 지라도
日久難咨嗟 날이 저물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阮籍은 주관이 확실한 詩人으로 그의 《詠懷詩》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당시의 혼란기 社會 現實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은 阮籍의 主觀的인 內心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여기

에서 象徴的 意象인 木槿과 琅玕은 각각 짧은 생명력과 영원한 神仙世界를 象徴하는 것으로 《詠懷詩》四十四와 《詠懷詩》七十二에서도 주요 象徴體로 등장한다. 《詠懷詩》四十四에서는;“琅玕生高山,芝英耀朱堂”(琅玕은 고산에서 자라고 영지는 주당에서 빛난다) 와 《詠懷詩》七十二에서의 “木槿榮丘墓,煌煌有光色.白日頹林中,翩翩零路側”(무궁화 꽃은 언덕 묘에 피어서 반짝반짝 빛을 낸다. 해는 숲속으로 지고 나뭇잎은 길가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墓前에 내포된 意味와 동일하며 더욱이 詩語와 表現방법도 비슷하다. 당연 모든 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생활체험과 자주 사용하는 주제나 表現방법, 詩語나 意象, 抒情描寫, 修辭 등이 있다. 예를 들면 屈原의 賦중에는 芳草美人이나 陶潛詩 중에는 酒, 陸遊 작품에는 곳곳마다 從軍이란 詩語가 反復的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缺點은 후대사람들에 의해 비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⁵⁷⁾ 그렇다고 이 작품이 전연 새로운 新鮮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意象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렬하고 선명하게 對比하고 있다. 形相的으로는 여기에서는 초목의 짧은 생을 통하여 인생의 짧은 시간과 神仙世界에 영원함을 表現해 내고 있다.

IV 創作技法

지금까지 阮籍 《詠懷詩》를 연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阮籍詩는 “隱晦難懂” 그의 詩에는 많은 의미가 깊게 감추어져 있어 지금까지도 그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다. ⁵⁸⁾ 이러한 평가는 많은 詩評家나 文學家들로 하여금 阮籍詩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일반화된 견해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 생각으로는 그의 意象 意境등 표현기법의 運用에 있어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阮籍詩의 缺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자연 사물

57) 龐垞, 《詩義固說》子部·兩漢魏晉南北朝筆記: “阮公《詠懷詩》賦至八十二首..故往往有復處,率處,滯處,參錯處.”

58) 李善, 《文選》卷二十三: “文多隱避, 百代之下, 難以情測”

을 보고 얻어진 영감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여 표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道家的 人生 理念을 문학에 도입하여 인간과 自然간의 親和感을 표현하고 있으며 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그 융합의 시도인 것이다. 그의 《詠懷詩》는 자연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과 정치현실이 어우러져 표현의 성격이 模糊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마저 갖게 한다. 이러한 창작력은 天賦的인 笑疾과 끈질긴 生命力, 풍부한 感性에서 起因한 것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鐘嶸 《詩品·上》:“厥旨淵放, 歸趣難求” “言在耳目之內, 情寄八荒之表”(영회 작품은 마음과 정신을 닦게 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정서는 멀리 세상 끝까지 펼쳐진다.) 沈德潛 《古詩源·卷六》:“反夏零亂, 興寄无端, 和愉哀怨, 雜集其中, 令讀者莫求歸趣”(세상의 어지러움이 반복되어 마음을 기탁할 곳이 없고 평화로움과 즐거움, 비애와 원망이 모두 뒤섞여 그 시에 두루 모여 있다.) 이러한 평가는 阮籍이 《詠懷詩》에서 그 내심이 깊이 감추어진 意象과 象徵、暗示의 예술적 운용이 그 특징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표현 형식은 그의 철학적 사상과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져 황홀 하고 模糊함이 《詠懷詩》만이 갖는 특색이라 할 것이다.⁵⁹⁾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상상력과 다양성을 유발 시키는 《詠懷詩》의 特色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 抒情의 深化

阮籍의 《詠懷詩》는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政治的 감정을 시로 엮어낸 선구자적 인물이다. 《詠懷詩》는 불안한 환경적 여건 하에서 形而上學的인 象徵性 문구로 마음속의 苦惱와 悔恨을 담아내고 있다. 八十二編의 五言 《詠懷詩》는 阮籍 인생의 哲學思想과 감정에 대한 集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詩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실 그의 일생을 통한 政治的 감개를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⁶⁰⁾ 후대 사람들이 《詠懷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기로 하자.

59) 羅宗強, 《魏晉南北朝文學思想史》中華書局, 1996 p.62.

60) 《晉書·阮籍傳》:“決非一時之作, 吾疑其總集平生所爲詩”

鐘嶸曰：“詠懷之作，可以陶性靈，發幽思，言在耳目之內，情寄八荒之表，洋洋乎會于風雅，使人忘其鄙近，自致遠大，頗多感慨之詞”《詩品.上》

중영이 말하기를 영회 작품은 마음과 정신을 닦게 하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보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정서는 멀리 세상 끝까지 펼쳐진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짧음을 잊고 스스로 멀리 바라보게 하여 많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陸時雍曰：“八十二首俱憂時閔亂”《詩鏡》卷七，《魏》第四

82편의 시 모두 어지러운 시국을 걱정하는 것이다.

沈德潛曰：“阮公詠懷，反戛零亂，興寄无端，和愉哀怨，雜集于中”（《古詩源》卷六）

阮籍의 《詠懷詩》는 세상의 어지러움이 반복되어 마음을 기탁할 곳이 없고 평화로움과 즐거움, 비애와 원망이 모두 뒤섞여 그 시에 두루 모여 있다.

吳汝綸曰：“要其八十一章，決非一時之作，吾疑其總集平生所爲詩，題爲《詠懷詩》耳”（《古詩鈔》卷二）作爲玄學家的阮籍，其生活于魏晉易代之際，當時“天下多故，名士少有全者”《晉書.阮籍傳》

그의 《詠懷詩》를 보면 틀림없이 어느 한 시기에 창작한 작품이 아니다. 나는 그가 평생의 작품을 영회라는 제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玄學家인 阮籍은 위진 시기 혼란한 시기에 생활한 사람으로 변고가 많고 명사들은 온전하게 생을 마감한 자가 드물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늘 자신에 대한 모함과 비방으로禍가 자신에게 미칠 것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 체제“濟世”에 뜻을

두었으나 嘉平의 참극은 그의 삶을 소극적인 삶으로 바꾸어 버렸다. 당시 士人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었으며 그들은 隱身하고 世事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⁶¹⁾ 이러한 행동은 정치에 대한 환멸인 동시에 위협으로부터의 회피하고자한 의도였을 것이다.

가혹한 정치 탄압과 극심한 사회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目睹한 그는 生命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로 어릴 적 품었던 포부와 희망을 실현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老, 庄의 隱逸과 超脫의 세계에 의탁하여 한 文人으로서의 가슴 속에 가득한 감개를 《詠懷詩》를 통하여 토해냈다. 이러한 政治的, 社會的인 현실에서 阮籍은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감정의 風格을 형성해 가는데 그것은 바로 극도로 감정 노출을 自制 하는 신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나머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模糊하고 난해하게 함축되어 갔다. 이러한 감정노출을 自制하는 표현과 道家的 玄遠한 比喻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模護性과 難解性으로 인식 되면서 阮籍詩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난해하고 模糊하다. 라는 생각들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模糊性의 이면에는 그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 것이다.

다음 《詠懷詩》第一 首를 살펴보면 이 詩가 품고 있는 情感의 정도가 아주 깊고 이 짙은感性이 배어나 있는 작품이다.

《詠懷詩一》

夜中不能寐 깊은 밤 잠 못 이루어.
起坐彈鳴琴 일어나 앉아 거문고를 타네.
薄帷鑒明月 얇은 휘장으로 밝은 달빛 어리고.
清風吹我襟 처량한 밤바람 옷깃을 스미는데.
孤鴻号外野 떼 잃은 외기러기 들판에 울부짖고.
翔鳥鳴北林 잠자리 찾아드는 새 북쪽 숲에서 우짖네.
徘徊將何見 배회할들 무슨 소용 있으리.
憂思獨傷心 근심어린 마음 혼자만 가슴 저미네.

61) 馬小虎, 《魏晉以前個體“自我”的演變》,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이 詩는 八十二編 五言 《詠懷詩》의 序曲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 《詠懷詩》의 풍부하고 복잡한 감정의 基調를 정립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詩의 주인공은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하여 옷을 걸치고 거문고를 켜다가 휘영청 밝은 달빛이 휘장에 드리워진 모습을 바라본다. 이때 바람에 의해 옷깃이 흔들림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문득 저 멀리 외기러기가 들판에서 울부짖고 등지를 찾는 새는 북쪽 숲에서 우짖는 광경이다. 그는 이러한 느낌으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또한 주변 풍경을 빌어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덧붙였다. 이러한 周圍 事物에 대한 描寫는 詩人의 主觀的인 情感이 녹아 있는 것으로 全體的으로 悲哀의 분위기와 渾然一體 되어있다.⁶²⁾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바랄 수 없어서 그런 까닭으로 고민에 빠져 홀로 아픔마음 달랠 수밖에 없음을 가을의 정감을 빌어 나타내고 있다.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로서 형용 할 수 없는 근심과 感慨를 근심어린 情感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그의 소년시절 濟世의 의지에서 榮華와 功名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깨우치고 神仙의 세계를 동경하는 작품을 보기로 하자.

《詠懷詩十五》

昔年十四五 옛날 열네 다섯살 적에는
志尙好書詩 書 .詩에 뜻을 두었다
被褐懷珠玉 평복을 입었지만 理想은 높아
顏閔相與期 顏淵과 閔子騫을 기약했지
開軒臨四野 창문 여니 사방이 훤히 눈앞에 들어오고.
登高望所思 높이 올라 그리운 옛 사람 생각한다.
丘墓蔽山岡 언덕배기 첩첩한 묘지는 山岡을 뒤덮고.
萬代同一時 옛 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인 것을
榮名安所之 榮華와 功名은 어디로 갈 것인가 뜬 구름 같은 것을.
乃悟羨門子 나는 비로소 羨門子 같은 仙人을 깊이 깨우치곤

62) 王國維, 《人間詞話》 卷下: “一切景語皆情語也” 풍경을 묘사하는 모든 詩語들은 모두가 다 정감을 나타내는 詩語이다

千秋萬歲後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嗷嗷今自嗤 자신에 아픔을 스스로 비웃는구나.

여기에서 “昔年十四五” 《論語》의 《爲政 篇에서 孔子가 말하기를 “吾十有五而志於學” 했다 이는 사람은 열다섯 살 무렵이 바로 立志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시기에 비록 詩書를 숭상하여 顏, 閔을 본받으며 자신의 포부를 키워 偉대한 理想을 당시 政治的 혼란 속에서 榮華와 功名 추구하다 죽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는 것으로서 차라리 神仙의 세계를 생각하니 내가 전에 품었던 濟世의 의지는 한낱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 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어렸을 적 儒家를 숭상하며 濟世의 의지를 키웠던 것들이 한낱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神仙의 세계를 두드려 본다. 그는 이렇게 神仙의 세계에서 바라본 자신의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자기의 그러한 어리석었던 생각들을 스스로 비웃는 듯 정감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登高望所思”:(높이 올라 그리운 옛 사람 생각한다.)에서 所思는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그리움 일까?

그의 《詠懷詩》에서 “所思”가 등장하는 작품을 보기로 하자.

《詠懷三十七》

臨路望所思 길가에 서서 먼 곳 마라보며 생각을 하여도,
日夕不復來 날이 바뀌어도 그대는 오질 않네.

《詠懷十五》

開軒臨四野 창문 여니 사방이 훤히 눈앞에 들어오고.
登高望所思 높은 곳에 올라 그리운 사람 생각하네.

《詠懷四十九》

步游三衢旁 큰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惆悵念所思 비통한 심정으로 친구를 생각하네.

《詠懷五十五》

獨坐山岩中 홀로 산중바위에 앉아
惻愴懷所思 애통한 마음으로 그대를 생각하네.

《詠懷十七》

日暮思親友 저녁 무렵 친구를 생각하며
晤言用自寫 언제나 서로 만나 이 근심 털어 질지.

위에서 말하는 所思는 아마도 그 당시 그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그리운 사람 이였을 수도 있고 속세에서 榮華와 功名 추구하다 죽은 사람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니 지나간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러한 榮華와 功名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깊은 물음에 잠긴다. 구체적으로 “所思”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위에서 말하는 顏回와 閔子인가 아니면 당시 榮華와 功名 추구하던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위 두 가설을 설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가에 대한 비판의 소리인지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諷刺인지가 模糊함으로 남는다. 그의 심적인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政治的인 외재 요인인지 아니면 思想的 갈등인지가 模糊함으로 남는다.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할 길이 없어 그는 “嗷嗷今自蚩”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비웃는구나. 라는 것으로 스스로 비웃는 듯 감정을 표출해낸다. “이따금 마음이 내키는 대로 홀로 수레 몰고나 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 문득 서러운 생각에 울다가 돌아오곤 하였다.”⁶³⁾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이러한 복잡한 심경은 분명 이러한 그리움과 옛일을 회상하면서 理性과 感情, 사랑과 미움, 積極과 消極, 入世와 出世등 많은 상반된 모순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당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그의 작품 속에다 그의 복잡한 하고 허무한 심경을 模糊한 필체로 그려낸 것인지도 모른다.

《詠懷三十三》

63) 《晉書·阮籍傳》：“時率意獨駕，不由徑路，車迹所窮，輒慟哭而反”

一日夏一夕 밝은 대낮이 가면 밤이 찾아 들고
 一夕夏一朝 이 밤이 다하면 또 낮 인 것을
 顏色改平常 얼굴은 초췌하여 예전 같지 않구나.
 精神自損消 정신은 피폐하고 의기마저 없구나.
 胸中懷湯火 마음속의 고통은 뜨겁게 타오르는데,
 變化故相招 生命에 대한 우려가 사람을 쇠하게 하네.
 萬事無窮極 세상사 모두가 예측할 수 없으니,
 知謀苦不饒 모든 지혜 다 동원 하여도 피할 수 없으니
 但恐須臾間 사람의生命은 무상하여 禍당하는것은 순간이라,
 魂氣隨風飄 혼백은 흩어져 바람 따라 이리 저리
 終身履薄冰 한 평생 살얼음 같은 발걸음 걸으며
 誰知我心焦 그 누가 나의 이런 초조한 마음 알리오.

이 詩는 감정 표현이 대체적으로 솔직하며 구절마다 마치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한 정감이 흐른다. “顏色改平常,精神自損消”(얼굴은 초췌하여 예전 같지 않으며,정신은 피폐하고 의기마저 없구나) 이는 시인의 초췌한 모습을 표현한 대목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매우 힘든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終身履薄冰,誰知我心焦”(일 평생 살얼음 같은 발걸음 그 누가 나의 이런 초조한 마음 알리오.)는 절묘하게 마음속의 끊임없는 生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⁶⁴⁾ 그는 당시 혼란한 시기에서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는 生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生命의식에 대한 깊은 미련과 인생무상에 대한 탄식을 그는 작품 속에서 아주 슬픈 정감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司馬氏 集團에게 함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그는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울분을 토로해 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언어는 격렬하며 정서는 감개와 원망으로 가득하다.

《詠懷詩》三十四

64) 陳沆,《詩比興箋》,臺北 正生書局 1975
 “終身薄冰之思,此其粗豪淺陋軼蕩形骸者哉.”

一日夏一朝 하루가 가면 아침이 오고
一昏夏一晨 저녁이 가면 새벽이
容色改平常 얼굴색은 예전 같지 않고
精神自飄淪 정신은 절로 희미해져가네

에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순간이며 세상사 옳고 그름은 별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虛無 哲學이며 이러한 哲學은 人生 悲哀에서 解脫을 구하고자 하고자 함이나 그 根幹에는 오히려 인생의 悲哀가 깊이 잠겨있다.

《詠懷詩五十二》

是非得失間 시비와 득실사이에서
焉足相譏理 어찌 서로 다투는가.
計利知術窮 공명을 쫓아 가면 갈수록 사람의 지혜는 궁해지니
哀情遽能止 가슴속 가득한 슬픈 감정 어찌 빨리 끝날 수 있으리오.

《詠懷詩五十四》

一餐度萬世 밥 한 끼니 먹을 시간이면 만세가 되고
千歲再浮沈 천년마다 다시 浮沈을 거듭 하는데
誰云玉石同 누가 옥석을 같다고 하는가?
泪下不可禁 눈물이 흘러 멈추지를 않네!

《詠懷詩》七十一

蜉蝣玩三朝 하루살이는 사흘을 살아도
采采修羽翼 예쁘게 날개를 다듬는다
衣裳爲誰施 옷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俛仰自收拭 위아래로 닦는가

위 세 작품에서는 모두가 인생의 무상함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우려와 깊은 고

너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 詩語는 감개하고 정서는 슬픈 悲哀에 잠겨 있다. 이 같은 표현들은 일종의 강한 生命에 대한 애착에서 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작품을 보면 그의 강한 生命力과 진한 예술적 정감의 색채를 볼 수 있다. 그의 감정변화는 격렬 하면서도 부드럽게 전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의 심오한 감정조절의 예술적 단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도는 아마 그가 당시 처한 위태로운 정치 현실과 시대적 환경이 빚어낸 결과였을 것이다. 阮籍 자신의 무거운 현실의 심적 부담을 老庄 哲學에 의탁하여 탈출하고자 시도한다. 직접적인 의미 전달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象徵과 비유적 수법을 동원한 模糊한 표현으로 깊이 감추려는 신중한 그의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울분과 비애 회한의 정감들이 서로 하나의 작품 속에 서로 뒤엉킨 복잡한 자신의 심경이 전반적인 《詠懷詩》의 분위기로 흐른다.

2. 比興과 象徵

建安時代의 五言詩는 兩漢時代의 抒情詩의 전통에서 벗어나 유연시, 山水詩 등의 형식으로 사물에 대한 묘사와 함께 抒情的인 묘사도 가미하였으나, 그 심도가 깊지 않다. 그러나 阮籍의 《詠懷詩》의 서정적인 부분은 심도가 있다.⁶⁵⁾

阮籍은 象徵, 암시 등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비록 산수경치를 묘사한다 하더라도 抽象的인 景物과 의념중의 景物이 많다.

比興과 象徵은 中國古典 詩歌에서는 美人이나 草木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象徵 대상물에 의탁하여 비유하는 전통이 있다. 그는 자신의 政治的 견해를 감히 명백히 밝히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는 감추어지고 模糊한 비유로 자신의 심경을 곧잘 나타냈다. 이는 그의 강한 자신의 生命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 것이며 함축된 의미 표현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자신의 眞意를 감추고 있다. 그의 이러한 慎重한 처신은 保身을 위한 최선의 자구수단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司馬政權의 권력자와 談論할 때는 더욱 慎重하여 말은 玄遠하고 深遠하며 인물이나 일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았다.⁶⁶⁾1 당시는 인

65) 劉勰 《文心雕龍·明詩》: 阮籍의 시는 아주 깊다(阮旨遙深)이라 하였다.

66) 《世說新語·德行》: 晉文王稱阮嗣宗至慎, 每與之言, 言皆玄遠, 未嘗臧否人物.

물비평을 즐겨하는 분위기여서⁶⁷⁾ 淸談의 내용도 玄虛한 談論이 아닌 人物品評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⁶⁸⁾ 그러나 阮籍은 禍의 근원을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인물 품평은 물론이고 時事評論도 일체 하지 않았다. 晉 文帝는 그런 阮籍을 天下의 至愼이다라고 평하였을 만큼.⁶⁹⁾ 신중함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다. 죽음에 임해서도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던 .康조차 ‘阮籍의 신중함을 본받으려 했으나 불가능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萬石의 愼이라고 극찬했다.⁷⁰⁾ 이렇듯 그의 이러한 신중한 행동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적지 않은 象徵과 비유의 수법으로 자신의 숨겨진 심경을 조심스럽게 나타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詩의 내용은 함축성과 模糊성이 한층 더 심화 되어 갔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政治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司馬氏에게 마음속으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밑에서 관직에 있었고 늘 生命에 대한 두려움이 常存한 상태여서 그는 처세에 있어서 극도로 신중하여 감히 직언을 삼가 하였다. 阮籍 자신이 어쩔 수 없이 逼迫 당하는 現實에서 자신에 感情을 숨기고 끌어오르는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作品들은 분명한 象徵的色彩를 띄고 있으며 그의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져 그의 주관적 情緒를 심도 있게 표출해 낸 것이다. 예를 들면 《詠懷》二에서 그에 表現 방법이 잘 드러나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심도 있게 처리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王夫之가 阮籍의 《詠懷詩》를 評하여 “말하기를 멀리 《國風》을 가깝게는 《古詩十九首》를 계승하였다.”⁷¹⁾라고 評하였으며 또한 黃節이 말하기를 “그의 시는 곧 “小雅”와 같은 부류이다.”⁷²⁾ 라고 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阮籍의 《詠懷詩》는 比興 象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능숙함을 보인다. 또한 中國 古典 文學의 전통을 대담하게 계승 발전 시켰다. 이러한 것은 한 文人이 文學 창작에 있어서 대담한 試圖라고 할 수 있다.

그의 《詠懷詩》에서 보이는 象徵物들은 動物類와 植物類로 구분 되는데 動物類가 주로

67) 唐長孺, 《魏晉南北朝史論叢》「淸談與淸議」 河北教育出版社, 2001, p.282.

68) 劉大杰, 《魏晉思想論》, 上海 古籍出版社, 1998, p.159.

69) 《世說新語·德行》〈李康家戒〉: 上(晉文王)曰: 『……然天下之至愼者, 其唯阮嗣宗乎! 每與之言, 言及玄遠, 而未嘗評論時事, 臧否人物, 可謂至愼乎』

70) 《晉書·康傳》 卷49: 阮嗣宗口不論人過, 吾每師之, 而未能及……吾以不如嗣宗之資, 而有慢弛之闕, 又不識物情, 闕於機宜. 無萬石之愼……

71) 王夫之, 《古詩評選》 卷四: “遠紹《國風》近出于《十九首》

72) 黃節, 《阮步兵詠懷詩注》序篇: “若阮公之詩, 則小雅之流也”

당시의 권력 암투의 당사자 들이나 阮籍 자신을 비롯한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植物類는 주로 나라의 興亡과 인생무상을 대상으로 한 象徵體로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雁, 鸞, 鷺, 鸞鳩, 青鳥, 鶴鴒 등은 비록 부패한 정권이지만 끝가지 신의를 지킨 자로 묘사되며 黃鵠, 鶻鳩, 鶻鷂, 海鳥, 鳴鳩, 鳧, 등은 司馬氏 정권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 자로 鶴, 鴻, 鶴, 焦明 등은 이러한 세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속세를 등진 인물들을 비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桃李, 芳樹, 芳草, 朱草, 荊杞, 荊棘, 蒿萊 등 식물류는 인간생명의 유한함과 세상사 흥망성쇠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⁷³⁾

그럼 比興 象征의 수법이 잘 나타나있는 그의 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詠懷十四》

開秋兆涼氣 서늘한 기운은 가을이 왔음이며,
蟋蟀鳴床帷 귀뚜라미는 침대 머리맡에서 끝없이 슬피 우는데
感物懷殷憂 사물을 맞이하여 깊은 수심 가득하니
悄悄令心悲 근심어린 마음에 마음 편치 못하네.
多言焉所告 하고픈 말 많으나 누구에게 얘기 할까?
繁辭將訴誰 가슴속 아픈 말 누구에게 얘기 할까
微風吹羅袂 살랑 이는 바람에 옷깃 훑날리고
明月耀清暉 밝은 달빛은 휘황 찬란도 하여라.
晨鷄鳴高樹 새벽닭은 높은 가지에서 울고
命駕起旋歸 수레 돌려 집으로 돌아가네.

이 시는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감흥을 빌어 시작된다. 여기에서도 귀뚜라미가 가지는 특성을 빌어 그 울음소리에서 비애를 느끼게 한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통해 시의 전체 적인 분위기를 쓸쓸함과 가을의 정취에서 오는 적막한 분위기를 비유하여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흥을 일으켜 귀뚜라미 울음소리의 象徵的 의 미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애를 절묘하게 소화해낸 부분이다⁷⁴⁾.

73) 沈 禹 英 《어문학연구》제8집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74) 陳伯君 《阮籍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87 P.265.

黃節引吳洪曰: “古之勞人,多托興于蟋蟀,蟋蟀感時而鳴,人又感蟋蟀之鳴而悲”

“多言焉所告, 繁辭將訴誰”는 (하고자 하는 많은 말들을 어찌 다 얘기하며 머리아픈 얘기 그 누구에게 호소하리.) 에서 그는 세상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탄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계절의 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되살린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 하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구절이라 할 수 있다.

《詠懷三十二》

朝陽不再盛 아침햇살은 광채를 잃고
 白日忽西幽 석양은 저녁노을 저편으로 기우는데
 去此若俯仰 세월의 흐름이 순간이네
 如何似九秋 인생길은 이다지도 길 단 말인가
 人生若塵露 사람목숨은 티끌이나 아침이슬 같건만
 天道竟悠悠 우주는 늘 유유 하다
 齊景升丘山 제공은 산에 올라
 涕泗紛交流 하염없는 눈물 흘렸네
 孔聖臨長川 공자는 큰 냇가에 서서
 惜逝忽若浮 흐르는 물을 보며 짧은 인생 한탄 했네
 去者余不及 가버린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來者吾不留 오는 세월 막지 못하네
 願登太華山 太華山정상에 올라
 上與松子游 적송자와 함께 노닐고 싶다.
 漁父知世患 굴원은 세상의 근심 알고는
 乘流泛輕舟 흐르는 물에 배를 띄웠네

첫 구절의 “朝陽”、“白日”로 詩興을 일으켜 인생무상의 탄식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서 “如何似九秋, 人生若塵露, 惜逝忽若塵”는 形象의 比喻로 世上事의 무상함을 노래고 있는데,⁷⁵⁾ 여기에서의 比興을 運用함으로서 詩意로 하여금 냉담한 언어로 抒情을

한층 더 深化 시키는 느낌이다. 이러한 것은 그의 성숙된 比興 手法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아래의 작품을 보면 직접적으로 黃昏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한다.

《詠懷詩八十》

存亡有長短 人間事 언젠가는 죽으니
慷慨將焉知 슬피한들 무얼 알리오
忽忽朝日隕 아침 해는 빠르게 서산으로 기우니
行行將何之 해매다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詠懷詩八十一》

人生樂長久 사람들은 인생이 길어
百年自言遼 백년이나 된다고 들 얘기 하지만
白日隕隅谷 태양이 양곡으로 지면
一夕不再朝 저녁 후에는 더 理想 아침은 없네

《詠懷詩》의 比興 운용기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술적 기교나 작품속의 생동감 넘치는 형상, 고도의 포괄적인 묘사를 어떻게 작품속의 서정의 심화를 유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그 깊은 思想的 내용은 그의 풍부한 현실 사회의 政治的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를 있음을 살펴볼 필요 가있다. 언어적 표현이외 다른 뜻이 없다면 그 시는 아주 無味乾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⁷⁵⁾

그는 이러한 比興을 運用하여 감정과 뜻을 전달 하고자 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의 自制가 政治的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심원한 함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재능이 기초하였기에 가능한 일 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예술에 대한 집착과 추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象徴 개념을 서양은 자연속성을 중시한 반면 동양은 자연물의 象徴的 意義를 중시하므

75) 陳伯君《阮籍集校注》P.312

黃侃曰：“人道之促，自古所嗟，唯有從赤松，隨漁父，庶几永脫世患也”

76) 袁枚《隨園詩話》卷二 未坎校点本 P.41

“詩无言外之意，便同嚼蜡”

로. 이러한 관점은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 한다고 할 것이다 77)

봉건 사회의 文人으로서 阮籍은 당시 濟世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政治的 窶박에서 일탈하여 《离騷》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기법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해냈다. 方東樹 아마도 《离騷》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詠懷詩》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다⁷⁸⁾. (《离騷》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詠懷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한 것처럼 詩 속에 등장하는香草, 云, 鳥, 美人等 意象들이 갖고 있는 象徴의 對象體는 자연 숭상이나 음주, 풍류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현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詠懷八》

灼灼西隕日 붉은 태양은 서산에 지고
餘光照我衣 석양빛에 여운이 내 옷깃을 적시는데.
回風吹四壁 휘감아 도는 바람은 四方壁에 부니
寒鳥相因依 寒鳥는 서로를 의지하네.
周周尚銜羽 周周새는 자기 짝에 깃털을 입에 머금을 줄 알고
蛩蛩亦念飢 蛩蛩이란 짐승도 서로 상부사조하여 허기를 채울 줄 아는데.
如何当路子 어찌 관직에 몸담은 우리는
磬折忘所歸 오히려 꾸불꾸불한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 메일까?
豈爲夸譽名 어찌 공허한 명예를 위하여
憔悴使心悲 나의 육신을 초췌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宁与燕雀翔 차라리 제비나 참새처럼 날며 춤을 출지언정
不隨黃鵠飛 黃鵠처럼 놀지는 않으리
黃鵠游四海 黃鵠는 온 세상을 누비며 다닐 수 있으나
中路將安歸 중도에 서있는 우린 장차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詠懷十九》

西方有佳人 서방에 아리따운 미인이 있어
皎若日光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네.

77) 〈古代文學理論研究從刊〉第九輯. 上海, 古籍出版社, 1984 P59

78) 方東樹《昭昧詹言》“大約不深解《离騷》不足以讀《詠懷詩》”

被服讖羅衣 몸에는 비단옷 입고
 左右珮双璜 허리 양춤에는 옥 장신구를 걸치고
 修容耀姿美 수려한 자태는 눈부시게 아름답네.
 順風振微芳 바람 따라 향기 날리고
 登高眺所思 높은 곳에 올라 그리운 사람 생각하며
 舉袂當朝陽 옷깃을 들어 올려 조양을 대하고
 寄顏云霄間 구름 저편에 몸을 맡기니
 揮袖凌虛翔 옷깃은 허공에서 춤추네.
 飄鶴恍惚中 보일듯 말듯 황홀히 흔들리니
 流盼顧我傍 눈물 보이며 나를 뒤 돌아 보네.
 悅懌未交接 서로 사랑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아픔은.
 晤言用感傷 말로다 할 수없이 나를 아프게 하네.

《詠懷七十九》

林中有奇鳥 숲속에 기이한 새가 있어
 自言是鳳凰 스스로 말하기를 봉황이라 말하네
 淸朝飲釀泉 상쾌한 아침에 맑은 샘물 마시고
 日夕栖山岡 밤이 되면 둥지 찾아 깊은 산속으로 간다
 高鳴徹九州 큰 울음소리는 구주까지 미치고
 延頸望八荒 고개 들어 사망을 살피니 끝없는 황무지네.
 羽翼自摧藏 소슬한 가을바람이 돌연 불어오니
 一去昆侖西 단번에 날아올라 곤륜산으로 날아가네
 何時夏回翔 어제 다시 돌아오려나
 但恨處非位 참새가 여기 있으니 봉황은 몸을 숨기네
 愴恨使心傷 이러한 고뇌가 나를 아프게 하네

《詠懷詩》八에서는 황혼 무렵의 여러 대상물들로 回風, 寒鳥, 燕雀, 黃鶴 등을 비유하여 혼란한 사회에서 그의 마음속의 아픔과 억압을 象徵하고 있다. 《詠懷十九》에서는 내용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미인의 모습을 한 폭의 아리따운 서방 여인의 美人圖 처

림 부드럽고 황홀한 연인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마치 서로 사랑하지만 이루어 질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노래하는 듯하다. 그는 이렇게 現實과 理想을 오가며 무언가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理想世界에서 그려낸 여인의 모습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마치 현실로 옮겨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이야기 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그는 理想世界에서 美人을 빌어 理想을 절실히 갈망하는 심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인지 아니면 理想世界의 “美人을 빌어 濟世之志”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는 자신의 슬픈 현실을 象徵하는지 알 수 없어 模糊함을 더해간다. 이러한 원인은 그가 아마도 현실에서 오는 심적인 모순을 理想과 현실을 수시로 오가는 심리적 갈등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詠懷詩》七十九는 鳳凰의 모습으로 자신의 意志를 象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도 理想의 세계와 현실의 갈등이 서로 반복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다. 현실의 아픔을 理想世界를 빌어 이야기 하는 듯 보이며 그의 뜻은 원대하나 시대적 가혹한 현실에 가로막혀 굳고 장대한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없음을 象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일탈하여 神仙의 세계로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가 模糊하다. 이러한 模糊함 속에는 현실의 政治的 배경이 커다란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그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신중한 성격과 자신의 현실과 理想에서 오는 심적 갈등을 초월 하여 오히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빌어 마음속 아픔을 표현해내고 있는 듯하다.

《詠懷詩》는 괴로움과 고독한 정서가 충만 하며 그는 현실 사회의 억압에서 오는 아픔을 理想 세계로 장소를 옮겨와 詩로서 소화 시키고 있다. 이는 자유의 갈망과 해방을 갈구하는 生命力이며 강한 억압과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點綴되어 오로지 理想世界로의 동경으로 현실의 고민과 인생의 비애로부터 탈피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상상속의 미인이나 봉황을 등장시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이처럼 《詠懷詩》에서는 樹,木,花,草의 피고 지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나 이러한 孤鳥, 寒鳥, 孤鴻, 離獸 等 동물들을 象徵體로 등장시켜 비유의 수법으로 그들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자신의 처지와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諷刺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人間生命의 유한함과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권력과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없음을 象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봄에 태어나 가을에 生命을 다하는 蟋蟀, 螿蛄등은 그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象徵物이다. 이렇게 자연에

서 인간사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象徴적인 색채로 마음속에 응어리진 많은 고민들을 詩로서 표출해 냈을 것이다. 혼탁한 사회와 짧은 인생을 마주 하며 그는 이러한 비애와 悔恨을 象徴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시 시인의 우울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3. 典故 運用1.

典故는 神話나 歷史 事件이 암시하는 바를 感知, 體驗, 想象, 理解등을 통하여 현재의 사건, 情況이나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언어와 문화 행위이다. 阮籍은 당시 司馬氏의 政治的 壓制로 청년시절 마음속에 품었던 웅대한 포부와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러나 문인으로써 阮籍은 자신의 심경이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는 古事를 통하여 은밀히 자신의 울분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당시 이러한 典故의 인용한 표현기법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 되었다.⁷⁹⁾ 여기서 阮籍이 典故를 인용하여 감정을 실어내는 방식이 좀 남다름을 알 수 있다. 그는 古事속의 인물들을 歷史的인 否定的인 形象에서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열정과 충정의 形象으로 發展시키고 그 情緒를 描寫함에 있어서 主觀的인 形象으로 昇華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사고를 유발 시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늠하기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 수법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당시의 날카로운 政治的 諷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며 한편으로는 그의 이러한 예술적 재능은 《詠懷詩》가 가지는 특색일 것이다. 여기서 《詠懷詩》二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劉向의 《列仙傳》中の 神話에 관한 이야기 인데 그러나 八句 이하는 《列仙傳》에 記載된 것과는 서로 不合된다. 그는 여기에서 題目을 빌어 想像力을 발휘하여 주관적인 형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다.

《詠懷二》

二妃游江濱 두 선녀가 강변에서 유유히 노닐며

79) 趙翼, 《甌北詩話》卷十 : “詩寫性情, 原不專恃數典, 然古事已成典故, 則一典已自有一意, 作詩都借彼之意, 寫我之情, 自然倍覺深厚, 此后代詩人不得不用書卷也.”

逍遙順風翔 바람결에 이리저리 날으며 逍遙하고있네
 交甫懷環佩 그들은 아름다운 옥패를 交甫에게 건네주니
 婉孌有芬芳 그녀에 사랑에 증표가 얼마나 향기로운가
 猗靡情歡愛 그들에 사랑은 바람결처럼 깊어만 가고
 千載不相忘 그들은 오래도록 변치 않길 맹세 했네
 傾城迷下蔡 두 선녀는 온 성을 매혹시켰고
 容好結中腸 그들에 미모는 사람에 심금을 울리네
 感激生憂思 그들에 흠모에 정은 결국 우수에 젖게 하여
 萱草樹蘭房 그들은 방안에 忘憂草를 심어놓아 근심을 잊으려 했건만
 膏沐爲誰施 예쁘게 단장하고 분바르는 화장은 누구를 위함 인가
 其雨怨朝陽 하염없는 빗물은 아침햇살을 원망하고
 如何金石交 금석교와 같은 맹세는
 一旦更離傷! 홀연 사라져 사람을 슬프게 하네.

이시는 내용상에 있어서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읊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典故를 운용하고 있다. 처음 四句는 神話중의 애정이야기를 빌어 왔다. “猗靡情歡愛,千載不相忘”은 宋子侯의 “何時盛年去, 歡愛永相忘”의 詩句를 인용한 것이며 “傾城迷下蔡”는 宋玉《登徒子好色賦》“東家之子嫣然一笑”는(東家の 여식이 애교 있게 생긋 웃다.) 라는 의미로 傾城과 “迷下蔡”는 모두가 여자의 絕世 美貌를 象徵하는 말이다. “萱草”以下 三句는 모두가 《詩經.衛風.伯兮》의 詩情을 인용한 부분이며 結尾 二句中 “金石交”는 《漢書.韓信傳》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시는 典故의 아주 미미한 단서를 인용 하여 명쾌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 그가 말하고자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아주 애매模糊하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적잖은 논쟁을 야기한다.

沈約은 단지 애정이야기를 諷刺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았으며 何焯은 “言爲喻君臣” 君신관계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元代 劉履은 그가 완곡한 표현으로 司馬氏가 曹魏 政權을 무너뜨린데 대한 諷刺로 해석 하였다. 그는 典故를 인용하여 여기에 주관적인 상상력이 더해져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模糊한 상황으로 유도하여 諷刺의 화살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사랑의 이별을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석교 같은 맹세를 당시의 政治的 상황에 비추어 信義를 저버린 司馬氏를 부드러운

사랑이야기로 諷刺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내용표현에 있어서 諷刺的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후 후대 사람들에게 그 典故가 가리키는 의미를 추측하게 유도하는 것은 《詠懷詩》가 가지는 또 다른 이 詩의 예술적 매력이 아닐까 한다.

《詠懷十六》

徘徊蓬池上 蓬池위를 배회하다가
還顧望大梁 뒤돌아 大梁을 바라본다.
綠水揚洪波 푸른 물 큰 파도 일렁이고
曠野莽茫茫 광야는 끝없이 펼쳐지네.
上獸交橫馳 들짐승 어지러이 마구 내닫고
飛鳥相隨翔 날짐승도 서로 따라 나른다.
是時鶉火中 시절은 鶉火星이 남쪽에서 자라나는 9월에 가을 녘.
日月正相望 마침 해와 달이 동서에서 마주보는 15일
朔風厲嚴寒朔風이 불어오니 더욱 더 추워지고
陰氣下微霜 陰氣는 가벼운 서리를 내리고
羈旅無儔匹 나그네 길 친구할 벗도 없어
俛仰懷哀傷 이리저리 돌아봐도 마음만 애담을 뿐
小人計其功 소인은 그들의 공적만을 내세우고
君子道其常 군자는 常道를 얘기할 뿐
豈惜終憔悴 걱정과 시름으로 심신이 초췌해져
詠言著斯章 시를 지어 읊어 본다.

이 시의 典故 운용은 대단히 정교하다. 그는 처음부터 時空을 아주 먼 戰國 의 大梁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의 마음속 깊은 감정과 상상을 유발한다. “鶉火”는 비록 시간의 실마리를 암시하는 詩語로 교묘히 《左傳》의 내용을 빌었다. 晉侯가 虢國을 정벌하는 典故에 나오는 말로 “君子”와 “小人”의 결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교묘히 은폐시키는 표현이다. 또한 그는 대담하게 《荀子·天論》 “君子道其常,小人計其功”(군

자는 늘 도를 말하고 小人은 그 功名을 따진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이처럼 그는 심혈을 기울여서 인용함으로써 최소한 司馬氏 集團에게 의심을 눈초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재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

《詠懷》三의 “嘉樹下成蹊 東園桃与李”(좋은 나무 밑에 길이 생긴 것은 동원에 복숭아, 자두나무가 있음이라.)의 부분은 《漢書·李廣傳贊》“桃李不言, 下自成蹊”(복숭아, 자두나무는 말이 없는데 그 밑에는 길이 생겼네)의典故를 인용한 부분으로 張玉谷은 《古詩賞析》에서 “此首言世事有盛有衰, 避亂宜早也.”(이 詩는 세상사 興亡盛世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評하였다. 《詠懷》三의 七、八句의 “驅馬舍之去, 去上西山趾”(말 몰아 이곳을 떠나 서산 기슭에 오른다.)를 伯夷、叔齊의 故事를 인용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그들처럼 서산으로 들어가 隱居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神仙의 세계를 동경하며 세속을 떠나고 싶은 심정을 典故를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詠懷詩》三十二의 “齊景升牛, 涕泗紛交. 孔聖臨長川, 惜逝忽若浮.(제나라 경공은 산위에 올라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네. 공자는 긴 냇가에 서서 세월의 흐름이 물처럼 빠름을 한탄했네.) “齊景公游牛山”과 공자의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이는 모두가 《尚書》, 《莊子》, 《楚辭》, 《史記》 등의 典故를 인용한 것들로 황당한 어조로 진지한 주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曹의 패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런 晉의 건국을 노래한 것이다⁸⁰⁾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그는 이렇게 해서더라도 자신의 울분을 털어내고자 했을 것이다.

典故의 運用에 있어서 詩意는 象徵的 함축의 미와 부드러움을 내포하고 있어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고 模糊하게 전개됨으로 내용을 의미심장하게 자세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詠懷》十 “焉見王子喬, 乘云游鄧林”(구름타고 들림을 노니는 왕자교를 볼 수 있겠는가?)처럼 그 자신이 초탈 세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미묘하게 허무맹랑한 神仙 세계를 동경하고 갈망하는 심정을 그려 내고 있기 때문이다.

80) 黃節, 《阮步兵詠懷詩注》 藝文出版社 臺北, 1975 P42
“言不爲魏死, 耻与晉生”

《詠懷詩》二十二

夏后乘灵輿 夏后는 두 마리 용을 타고
夸父爲鄧林 夸父는 등립을 만들었네.

《詠懷詩》五十四 “

夸談快憤懣 과장된 이야기는 잠시 울분을 덜어 주지만
情慵發煩心. 게으른 생각은 여전히 마음을 괴롭게 하네.
西北登不周 서북의 不周에 올라서
東南望鄧林 동북의 등립을 바라보네.

여기에서 “鄧林”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理想世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詠懷詩》二十二 “鄧林”은 계절의 변화와 짧은 인생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오직 王子晋만이 神仙이 되어 후대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詠懷詩》五十四에서도 그는 무한한 우주와 짧은 인생을 “鄧林”의 典故를 통하여 세속의 혼탁함이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울분을 토로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잠시 동안 마음에 아픔을 달랠 뿐 만일 그가 철저히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理想世界를 동경하였다면 그가 바라는 바로 그곳이 “望鄧林”일 것이다. 아마 “鄧林”은 마음속서 동경하는 그의 理想 世界임을 알 수가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詠懷詩》는 이처럼 典故를 사용하여 詩의 분위기를 부드러움과 神仙의 이야기로 그 模糊함을 더해간다 의도가 諷刺를 의미하든 자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아득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시대적 시련으로 말미암아 강한 生命力에서 그의 심금을 자극하여 나타난 산물일 것이다. 魏晉 시기의 詩歌를 생각하면 당연히 阮籍의 詩가 떠오른다.⁸¹⁾ 게다가 그는 심원하고 모호한 은유적 표현으로 남의 귀를 자극하지 않은 시들지 않은 生命力을 탄생 시켰다고 할 것이다.

81) 沈德潛, 《說詩碎語》: “遭阮公之時, 自應有阮公之詩”

4. 多視覺的 轉換方式의 創作技法 分析

阮籍의 《詠懷詩》를 보면 그 착안점이 多視覺的으로 빈번하게 변환하는 작품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또한 실제의 현상에서 환상의 세계로의 전환이나 時空을 초월하는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가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의 심적인 갈등에서 기인 한 것도 있지만 그가 시문을 창작 하는데 있어서 대단한 소질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표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보다 가볍게 감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내용을 보다 모호하게 함으로써 쉽게 자신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와 현실, 현재와 이상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자신의 현실의 아픔을 이상세계의 景物을 빌어 현실의 아픔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작품 《詠懷詩》十七을 보기로 하자.

《詠懷詩十七》

獨坐高堂上 홀로 높은 대청에 앉아있는 나는
誰可與歡者 누구와 함께 즐길 것인가,
出門臨永路 문을 나서 영로에 이르렀으나
不見行車馬 다니는 수레와 말들이 보이지 않네.
登高望九州 높이 구주를 바라보니
悠悠分曠野 한적한 들판만 펼쳐 있네.
孤鳥西北飛 외로운 새는 서북으로 날아가고
禽獸東南下 무리 떠난 짐승은 동남으로 내려가네.
日暮思親友 해질 무렵 벗이 그리워지니
晤言用自寫 말없이 스스로를 적어보네.

“獨坐高堂上,誰可與歡者”는 틀림없이 阮籍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인 홀로 앉아있는 텅 빈 대청의 자신의 모습에서 눈

에 보이지 않은 九州로 옮겨 온다. 그러다가 다시 孤鳥 離獸로 전환되는데 이는 실제 보이는 장면과 보이지 않은 장면들이 그의 想像 중에서 환상처럼 각인되어 진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理想的인 친구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하나 결국은 진실로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를 찾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이 현실의 어두운 시대로 돌아와 슬픔과 비애를 써 내려가고 있다. “獨坐高堂上”은 공간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는 空堂에서 永路로登高로의 일률적인 공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 《詠懷詩》三十一에서는 歷史的 時空을 추적해가는 작품을 볼 수 있는데

《詠懷詩三十一》

駕言發魏都 수레몰아 魏都을 떠나
 南向望吹台 남쪽 吹台를 바라본다
 簫管有余音 음악 소리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梁王安在哉 梁王은 어디가고 없는가?
 戰士食糟糠 전사는 糟糠을 먹고
 賢者處蒿萊 현자는 초야에 물렸네
 歌舞曲未終 歌舞曲이 끝나기도 전에
 秦兵已夏來 秦兵이 갑자기 들이 닥쳤네
 夾林非我有 夾林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서
 朱宮生塵埃 朱宮은 먼지만 쌓였네
 軍敗華陽下 군사는 華陽에서 패하니
 身竟爲土灰 양왕은 결국 죽고 말았네

여기에서 그는 양 왕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과거의 상황을 경험한 듯 하는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駕言發魏都, 南向望吹台” 수레몰아 魏都을 떠나 남쪽 吹台를 바라본다. 그는 吹台에 이르러 옛사람이 된 양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簫管有余音, 梁王安在哉? 戰士食糟糠, 賢者處蒿萊. 歌舞曲未終, 秦兵已夏來” “음악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양 왕 그대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에게는 거친 음식 먹게 하고 어진 신하는 초야로 쫓아냈으니 춤과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나라 군사가 들이

닥쳐구나”라고 역사적 사건을 더듬어 가다가 “夾林非我有，朱宮生塵埃” 여기서 “夾林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니 朱宮은 먼지만 쌓였네.” 라고 다시 양 왕을 대신하여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軍敗華陽下，身竟爲土灰” 군사는 華陽에서 패하니 양 왕은 결국 죽고 말았네. 라고 회귀한다.

그는 이처럼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정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과거를 빌어 과거와 현실을 오가는 작품이나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며 신선을 동경하는 작품들 모두가 시공을 초월한 阮籍의 모순된 내면의 세계를 그려낸 것이라 여겨진다. 이 때문에 그의 《詠懷詩》는 갈등 속에서 빚어낸 감정들이기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내용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지도 모른다.

V. 결 론

지금까지 阮籍의 生平에서 부터 당시의 時代的 背景과 思想的 흐름 등을 성장과정을 시기적으로 분류하고 창작기법 및 내용을 통해서 阮籍의 작품을 理解하기 위한 試圖를 해보았다. 그가 활동하던 時期는 中國 歷史上에 있어서 政治的 社會的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이며 思想的으로도 儒家가 衰退하고 道家가 興盛하는 時期이다. 또한 玄學 思想史에 있어서 何晏이나 특히 王弼 같은 人物이 老子思想에 새로운 氣風을 마련하면서 이에 맞추어 阮籍은 창작 활동을 통한 莊子學術思想을 定立되는데 특별한 貢獻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兩漢 時代에는 儒家의 興盛으로 말미암아 莊子思想은 아주미미 하여 儒家의 學術思想과는 견줄 바가 못 되었다. 魏晉時期에 이르러 玄學이 크게 興盛하였지만 당시에는 老子思想만이 유행했다. 비록 史籍에는 그 명칭을 老莊思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전히 충분한 注意를 끌지 못했던 시기이다. 《莊子》가 사람들에게 중시를 받기 시작하고 思想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竹林時期부터 이며 이 時期에는 玄學史에 莊子가 出現하고 莊子에 관한 저작물도 보인다. 이 時期 주목할 만한 莊子學者로서는 向秀와 阮籍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莊子 思想의 유행은 思想的 解放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1950年代 이후 특히 최근에 들어 玄學이 이러한 思想解放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學者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思想解放이라는 것은 아마 傳統的 學術思想과 禮節이나 전통관습과의 충돌이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 思想 및 新觀念의 體系가 形成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阮籍은 당시 政治的 社會的인 자신의 감정이나 不滿을 함부로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內心的 感慨한 감정을 表現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그는 《詠懷詩》에서 빈번한 典故에 引用과 莊子 思想에서 보이는 逍遙나 神仙世界를 통하여 思想的 解放의 出口로 사용하고자 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阮籍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表現의 個性이 강한 사람이며 언행에 있어 지극히 신중함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내용에서 다루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러한 성격 형성은 아마도 魏晉 時期의 혼란한 政治的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보듯이 《詠懷詩》의 意味가 매우 遙遠하고 模糊한 것은 그의 성격상 쉽게 밖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詠懷詩》가 훌륭한 점은 그의 이러한 矛盾된 性格에서 오는 苦痛과 悲哀를 吐露하는 과정이 激動的이지 않고 부드럽으면서도 그 뜻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아득하고 모호하게 전개함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많은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원하게 한다. 竹林七賢중의 하나인 嵇康은 阮籍과함께 竹林時期를 代表하는 文人으로 文學史에 있어서 대단한 業績을 남겼지만 이 두 사람의 작품의 風格 면에서 서로 다른 特色이 있는데 阮籍의 작품이 深遠하고 모호한 느낌을 갖게 하는 반면 嵇康은 鮮明하고 단호하며 直線的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의 굽힐 줄 모르는 호방함과 直線的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阮籍의 生은 理想과 現實 사이를 방황하며 초조와 번민으로 가득했다. 심하게 말하면 二重의 人格을 갖는 것처럼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도피를 지향하면서 현실에 참여하는 二重의 마음의 태도로 일관하고 생활 한 점은 이미 思想的으로도 儒家와 道家적 理想이나 신념, 혹은 가치 관념이 混在된 내적인 모순과 충돌을 안고 있었기.⁸²⁾ 때문에 부정과 저항은 지극히 소극적 이었고,⁸³⁾ 奇行과같은 일탈행위는 자유보다 고통을 더 많이 수반했으며, 영원한 超越을 지향했으나 끝내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삶이었다.

82) 吳云, 《魏晉南北朝文學研究》, 北京出版社, 2003, p.226.

83) 孫明君, 《漢魏文學與政治》〈阮籍與司馬氏集團之關係辨析〉, 商務印書館, 2003, p.159.

阮籍의 일상에서 보이는 非正常的인 行爲는 아마 마음속깊이 자리 잡은 悲哀와 현실 禮敎에 대한 幻滅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成長期에 儒家的 환경에서 성장하였지만 당시 權勢家들이 法道를 지키고 禮法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 자신들을 위한 것일 뿐 진정으로 禮法에 대한 信仰에서의 發露가 아니며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外部的으로 보이는 名聲을 위해서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現實과 理想에서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矛盾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兩面的 壓力은 일반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現實과 理想과의 矛盾은 당연한 것이지만 政治的 社會的으로 안정된 시대에서는 現實과 理想사이에서는 날카로운 對立이나 極烈한 衝突은 사실상 形成되지 않는다. 그러나 社會의 질서가 무너지고 政治的으로 혼란한 時期에는 이러한 現實과 理想에 대한 矛盾이 격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종의 理想이나 正義感을 품은 人士들 입장에서 본다면 謫戔 積戔 間에 現實에 대한 壓力이나 環境의 威脅으로 말미암아 心理的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는 現實的인 方面에서는 여전히 儒家的 價値 觀念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의 母親喪에서 보여준 奇行은 그의 二重의 人格形象이 鮮明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는 儒家와 道家의 價値 觀念에 있어 極烈한 衝突을 意味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詩歌에서도 青年期의 儒家的 思想에서 晩年에는 道家思想으로 顛倒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神仙에 대한 懷疑的인 反應으로 봐서는 아마도 阮籍의 깊은 마음에는 儒家的 價値觀念이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阮籍이 母親喪 기간에 禮法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道敎的 價値觀念에 依據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후 그가 보여준 행동은 즉 母親喪 후에 목 놓아 통곡하는 이면에는 이 같은 道家의 生死價値觀念에 대하여 깊은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며 阮籍의 人格形象의 基本 바탕이 아마도 儒家的 道德的 標準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⁸⁴⁾ 그의 《詠懷詩》 대부분에 主題도 生命에 대한 두려움과 現實 政治社會에 대한 諷刺로 이러한 生命에 대한 연민은 그의 內心 世界에 존재하는 초조함, 고통, 아픔, 공포, 우려 등으로 그 핵심내용은 生命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과 現實 社會에 대한 關心과 憂慮 人生無常과 生命의 짧음을 한탄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의 그

84) 高晨陽, 《阮籍評傳》, 南京大學 出版社.1997.3 pp236-240 요약

러한 意志는 現實사회에 諷刺로 이어지는데 이는 《詠懷詩》를 구성하는 주요한 思想이다 즉 이러한 生命에 대한 두려움과 現實社會의 諷刺라는 두 내용은 哲學的인 觀點에서 보면 根本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서 前者는 個人的 生命價値에 대해 무게를 두었다면 後者는 生命을 社會的價値로 理解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思想의 基礎와 思想的 背景은 儒家的 理想과 價値概念에 基礎한 것이다. 이러한 思想은 《達莊論》과 《大人先生傳》에서 요구하는 現實超越思想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思想的 矛盾은 阮籍의 精神世界와 心理的世界의 分裂을 의미하는 것이다. 阮籍은 초기 高尚한 氣概와 나라에 대한 忠貞을 높이 稱頌하며 자신도 王業을 이루는데 나라에 棟梁이 되겠노라는 이러한 詩句는 모두 阮籍이 過去를 回想하면서 쓴 것으로 이는 竹林時期의 理想과 追求를 나타낸 것이며 그의 이러한 힘차고 자신감에 찬 문장에서 점차 後期 玄學思想으로 顛倒된 후에 나타난 그의 세상에 대한 抱負가 확연히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儒. 道家가 生命價値와 實現方式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완전히 對立되는 것으로 阮籍은 生命에 대한 우려에서 나아가 生命存在의 超越로의 試圖는 그의 主觀的인 精神的 領域이 有限에서 無限으로의 轉換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儒家的 觀念이 道家의 것으로 철저히 同化되지 않아서 그의 《詠懷詩》의 분위기는 確信과 懷疑를 넘나들며 완강한 矛盾된 心情을 외부로 표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심적 갈등 양상은 당시 阮籍이 처한 時代에서 그가 渴望하는 社會的 生命價値의 實現은 어려웠을 것이며 그 生命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生命에 대한 깊은 우려와 彷徨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출구가 절실히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詠懷詩》는 더욱더 玄遠해지며 模糊한 의미를 담으면서 현실과 이상을 자유로이 옮겨 다니고 모든 자연의 景物 만이 아니라 우주의 형상까지도 寄託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正始 이후 그의 《詠懷詩》는 思想解放을 위한 神仙世界와 隱逸에 世界로 진입한다. 生命에 대한 근심과 憂慮, 現實 社會의 諷刺가 《詠懷詩》주된 내용이라면 游仙의 내용은 이 주된 내용을 생동감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觸媒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正始時期 창작된 詩篇 중에 神仙 世界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阮籍을 正始時期의 詩人으로 보는 입장이 과연 정확한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⁸⁵⁾

85) 黃侃, 黃延祖 《文心雕龍·明詩》 中華書局 出版社 2006.5 pp.296-328 요약

阮籍의 《詠懷詩》에는 확실히 神仙思想이 충만히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詠懷詩》八十餘首의 詩歌 중에 적어도 열여섯 수는 直接的으로 王喬, 赤松, 羨門, 浮丘公, 安期生, 西王母등 傳說속의 神仙人物이 등장하는데 文學史的 觀點에서 論한다면 그중 몇몇 작품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神仙 思想에 속한 작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는 阮籍이 여러 神仙을 意象으로하면서도 여전히 生死 存亡의 두려움이 그 心理的 背景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阮籍이 人生 無常과 生命의 짧음 그리고 無限한 宇宙에 대해 깊은 思索에 잠길 때 彼岸의 世界인 아름다운 神仙 世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神仙의 世界를 讚美하고 欽慕하며 이를 빌어 자신의 억압된 자유와 生命의 有限함을 또한 醜惡한 現實과 不公平에 대한 反抗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阮籍이 神仙 世界와 神仙들의 생활을 憧憬하는 그 原因은 바로 이 아름다운 世界야 말로 人生을 超越하고 또한 運命과 現實 社會를 超越하는 일중에 象徵的인 힘이기 때문이다.

阮籍은 中國 歷史上에서 가장 혼란하고 험악한 시대에 살면서 당시의 時代相과 자신의 內心을 담아내는 《詠懷詩》八十二首를 後世에 남겼지만 文章이 워낙 深遠하고 比喩的인 표현으로 그 뜻을 헤아리기가 아주 모호하여 이로 말미암아 후세사람들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意志를 파악하는데 많은 想像力과 歷史的 知識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詠懷詩》의 내용이 이렇듯 模糊하고 난해한 이면에는 역사적 思想的 배경과 그의 신중한 성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歷代 評論家들의 공통된 見解는 阮籍의 《詠懷詩》八十二首의 全般的인 내용이 生命에 대한 근심과 人生無常을 노래 한 것이지만 意志는 現實 政治에 대한 失望을 諷刺한 것들로 意象과 意境이 反復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당시 많은 名士들의 죽음을 目睹한 그로서는 자신의 意志를 直接的인 手法으로 나타낸다거나 表面的으로 당시의 政治的 狀況에 不滿을 표시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풍자의 의미를 깊숙이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는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창작을 하기위해서 다양한 象徵과 여러 典故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 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象徵 對象이 갖는 본래의 이미지 보다는 단지 외면적인 모습만을 그려 냄으로서 詩語가 주는 의미전달이 模糊하며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

“ 正始明道,詩雜仙心,何晏之徒,率多浮淺;惟嵇康清峻,阮旨遙深,高能標焉”

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여기며 이는 그의 문학적 소질이 아주 뛰어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의 《詠懷詩》 내용을 파악하기가 난해하다고는 하지만 난해하다는 것과 해석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가 이렇듯 模糊함으로 자신이 하고자한 말들을 감춘 이유는 다분히 당시 혼란한 政治的 상황에서 保身 성격이 강하지만의 한편으로는 표현기법이 深遠하고 遙遠한 당시 유행했던 淸談이나 神仙思想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의 模糊性들은 단지 推測만이 可能할 뿐 斷定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갖가지 推測들이 主觀的인 觀點에서 解釋이 가해진다면 이 또한 갖가지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作者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은 이상은 無意味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가 儒家思想에서 玄學 思想으로의 顛倒는 아마도 思想的 解放이나 表現의 自由를 실현하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理想과 現實, 確信과 懷疑를 넘나드는 세계는 讀者입장에서 보면 작품 底邊에 깔려있는 心理的 變化가 대단히 복잡하고 비슷한 意象이나 意景들의 반복적인 출현으로 紊亂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典故를 運用하거나 自然現象이나 주변의 自然風物에 依託하여 意境을 形成하여 자신의 感慨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詩는 그 의미가 難解한 것만은 사실이다 模糊한 象徴的인 필법으로 자신의 감개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리저리 비유되어서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반적인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과 典故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의 작품을 음미하면 할수록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상해야 할 것이며 詩語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를 가벼이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阮籍詠懷詩探解(續前) 陳賡平著 蘭州大學學報·人文科學版1 964,(1)
2. 略論阮籍及其“詠懷詩” 張志岳著 哈爾濱師範學院學報·人文科學 1961,(1)
3. 阮籍、嵇康玄學思想的演變 余敦康 文史哲 1987,(3)
4. 阮籍詠懷詩探解(續) 陳賡平 蘭州大學學報:社科版 1982,(1)
5. 陳沆《詩比興箋》 正生書局 臺北;1975
6. 魯迅論阮籍、嵇康、陶潛 王永生 社會科學(上海) 1983,(8)
7. 阮籍詠懷詩研究 邊成圭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1
9. 阮籍及其詠懷詩 丹志 中州今古 1986,(6)
10. 阮籍詠懷詩探解(續) 陳賡平 蘭州大學學報:社科版 1982,(1)
11. 阮籍思想辨析 丁冠之 中國哲學史研究 1982,(1)
12. 阮籍詠懷詩探解(三續) 陳賡平 蘭州大學學報:社科版 1982,(2)
13. 《中國古代 文學史》 허세욱 法文社 1986
14. 《阮籍詩選》 吳伏生. 中華書局,2007
15. 《阮籍詠懷詩釋解》 羅仲鼎.南京大學 出版社 .1999
16. 試論阮籍的《詠懷詩》 王濤 文史知識 1989,(6)
17. 《阮籍評傳》 高晨陽著 南京大學 出版社 1997
18. 《文心雕龍》 黃侃 中華書局 2006
19. 陳伯君校注《阮籍集校注》 中華書局 北京;1987
20. 祁欣 譯註《阮籍詩文選擇》 巴蜀書社 成都;1989